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29~830 1982년 5월21일(금)& 22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May 21, & 2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고부장 : 송 광 호

MAY 2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내각 총사임

6천억 사채스캔달이 몰고온 회오리

민정당 당직 개편 권정달·봉두완 사임

(서울본사전화)=전두환 대통령은 이철희·장영자부부사건의 검찰수사가 밝혀짐에 따라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을 위한 정계 개편을 단행, 20일 하오 민정당의 당직을 전격 개편했으며, 21일 대폭 개각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이날 하오6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유창순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이 총사퇴키로 결정, 내각 일괄 사표를 유총리에 맡겼다.

민정당 총재인 전대통령은 이날 하오 창당 주역인 권정달사무총장을 퇴진시키는등 대폭 당직 개편을 단행, 사무총장 후임에 권익현의원, 정책위의장에 진위종의원, 총재비서실장에 남재두의원, 대변인에 김용재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전대통령은 경북도지부장에 이진우의원, 경남도지부장에 안병규의원을 임명했으며, 이종찬총무를 유임시켰다.

이날 발표된 중앙집행위의원 인사에서 권정달, 나석호, 정종택, 이한동, 김윤환, 김정래의원등 6명은 중앙집행위의원직이 면직되었고, 봉두완, 이상익의원은 무임소 중앙집행위의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봉두완대변인은 이날 당직개편을 발표하면서, "금년들어 여러가지 실망을 준 일련의 사고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통감, 총재각하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에 총재각하께서는 각 당직자들의 창당이래 노고를 십분 이해 하면서도 책임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더욱 굳건히하기 위해 '당직을 개편한다"고 말했다.

이규광씨 구속기소

장여인사건관련 1억원 뇌물혐의

(서울 19일=연합)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한국 대검중앙수사부는 장여인의 형부 이규광(57)씨를 18일 자정을 기해 체포 구속했다. 지난 12일 장여인의 외환관리법 위반사건에 관련, 광업진흥공사 사장직을 사임한 이씨는 지난3월 장영자·이철희 부부로부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공동투자은행을 설립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당국은 이씨가 받은 1억원중 3천만원은 이미 쓰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이다.

검찰당국에 의하면 이씨는 뇌물로 받은 1억원 외에도 지난2월 이씨의 두아들 결혼식때 장여인으로부터 또다른 1억원을 받았으며 작년 3월에는 싯가 3억2천만원 상당의 저택을 선물받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자의 선물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당국은 장여인과 거래가 있던 사채브로커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20일에는 수사가 완전 종결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19명의 혐의자가 장여인사건에 관련 체포됐다.

—알 림—

오는 24일(월)은 빅토리아·데이(Victoria Day)로 법정공휴일입니다. 이날은 1837년 대영제국의 왕위에 오른 빅토리아여왕의 탄신일로 이 여왕은 인도, 아프리카등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 영국을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읍니다.

이날 본사는 휴무합니다.

◇검찰에連行된李圭光씨 「張女人의 배후」로 온갖 풍설의 대상이었던 李圭光씨가 끝내 그 정체가 드러나 17일밤 검찰에 연행됐다。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李씨는 이날 애써 태연해 보이려고 애쓰는것 같았다。

"위니펙 봉제사 집단이민 문제있다"

저임금에 일자리도 없어, 글로브지 보도

위니펙의 봉제공장들에 한국과 필리핀에서 집단이민온 봉제사들은 월 $100도 안되는 봉급을 받거나 그나마 일자리도 없어 기회가 있으면 토론토나 뱅쿠버등 대도시로 떠나려고 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집단 이민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20일 글로브·앤드·메일지가 보도했다.

다음은 글로브·앤드·메일지의 보도내용을 간추려 옮긴 것이다.

이들은 고등하교 졸업학력과 3년 봉제경력 소유자로서 영주권과 월 $450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 선발됐다.

한국에서 봉제공집단 이민이 시작된 것은 80년10월부터이다.

위니펙 노동성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1978년 남·녀 봉제공들이 도착한 뒤부터 시작, 현재까지 2,260명이 이 케이스로 이민왔으나 불황으로 이들의 집단이민은 일시 중단됐다.

1980년 11월 한국 제2진으로 위니펙에 도착했다는 민복아(32)씨는 "위니펙에 도착한 뒤 곧 스털링·스름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하루 4시간 작업의 파타임으로 돌려졌다. 지난 1월 잠정해고 됐을 때 봉급은 주 $125에서 주 $60으로 떨어졌었다"고 말했다.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는 위니펙을 수차례 방문, 봉제공들이 이민을 주선해준 회사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도록 위니펙을 떠나지 말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토론토에서 개업하고 있는 이민변호사 바바라·잭맨씨는 "연방정부의 봉제사 집단이민은 특수하고 드문 프로그램이다. 봉제사들은 숙련공이지 전문직이 아닌데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 대거 이민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김창열 한인YMCA총무는 "위니펙 봉제공들이 토론토로와서 정착하려 할 때 영어교육및 주거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 [illegible] 이들의 문제를 [illegible] 책임감 있게 이해해서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들은 배우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노조도 없이 호황을 누렸던 위니펙 봉제업계는 불황으로 현재의 종업원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일보
533-2361

소득세 $162,000 탈세

문선명 유죄평결

(뉴욕)세계 120개국에 3백만 교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통일교 문선명(62)교주가 18일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지난 3년간 소득세 보고에서 $162000가량의 개인소득을 탈세목적으로 보고치않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6주 계속된 문씨의 탈세혐의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4일간의배심끝에 문씨와 수석보좌관 다께루·카미야마(40)씨에 유죄평결을 내렸다.

문씨는 73년부터 75년까지 개인이름으로 체이스·맨하탄은행에 예치해둔 $160만에 대한 이자소득 $112,000와 $50,000의 주식배당금을 소득으로 신고치 않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통일교측은 비록 문씨 개인이름으로 예치됐다 하더라도 그 돈은 교단을 위한 것이므로 세금보고를 할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찰스·스틸맨 통일교 변호사는 항소할 것 이라고 말했다.

통일교도들 〈무니〉라고 속칭되는 청년층 추종자를 많이 거느린 것으로 유명한데 거리에서 땅콩을 팔거나 전도를 하고 다니는 이들은 통일교측에 세뇌됐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다.

자녀가 12명인 문씨는 7월14일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14년형을 치러야 한다.

◆문선명 통일교주.

미국의 고이자율 비난

트루도, 워싱턴·포스트 회견

피에르·트루도수상은 캐나다 경제가 상당한 고전을 겪고 있음을 시인하고 레이건 미대통령에 "비 건설적"인 미국의 이자율을 조정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루도수상은 작년 경제정상회담에서 6개월내에 미국의 고 이자율이 떨어질것 이라는 보장을 받았으나 11개월이 지나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베르사이유에서 있을 금년 서방7국 경제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강경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빼스 요금 올라

항공요금은 싸지고

항공사들은 요금인하경쟁속에 빼스·철도회사들은 오히려 요금을 인상, 항공요금과 가격상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됐다.

국내선중 가장 여행객이 붐비는 토론토-몬트리얼 간을 예를 들면 비행기의 경우 소비자는 100달러(제일 싼요금)에 왕복표를 살 수 있으나 기차의 경우 $74, 빼스는 $63.90이다.

지난 3월 이 구간 요금을 21% 인상한 빼스에 이어 여행열차회사인 국영 비아(VIA)철도회사는 오는 6월18일부터 10% 요금인상을 발표했다.

반면 에어·캐나다는 50% 인하하는 특별요금을 지난 4월부터 적용시켰다.

한국일보
533-2361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1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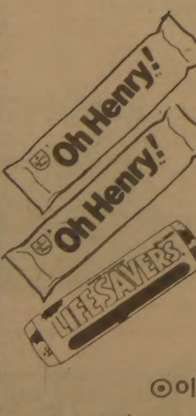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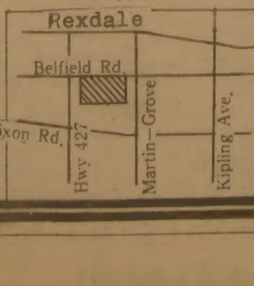
창사5주년 사상최초
대 재고정리 세일

30~50% OFF
다이아몬드
각종보석·
귀금속
·일본산 진주
비취
고급시계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중앙분수대옆
979-3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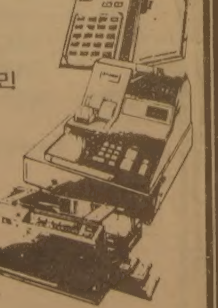
FALLIS U-SAVE CASH & CARRY
세일기간 : 5월19일~6월5일까지



⊙모든 LOWNEY'S 초코레트바 Reg.36's $9.45
⊙오·헨리 Reg 36's $9.19
⊙Cadbury Thick Bars 36's $13.07
⊙Rowntree Dairy Box 1Lb $9.73
⊙Black Magic 1Lb $10.61
⊙Life Savers $4.09
⊙Hershey's Reg.36's $8.99
⊙DELSEY Toilet Tissue 24/2's $17.99
⊙HEINZ TOMATO Juice 24/10oz. $7.99
⊙POP Wilson Product $5.59
⊙Coke.7-Up $5.99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Mon-Fri(8a.m.-4p.m.) Sat.(8a.m.-2p.m.)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아파트 임대주 횡포 심각

렌트 규제무시 년 평균15% 인상

아파트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어린자녀를 가졌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살 거처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것이 아파트 임대가능율 0.3%인 메트로·토론토의 실정이다.

아파트 임대주들이 입주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온타리오주의 렌트 평가제도를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입주자와 변호사들에 의해 지적돼왔다.

임대주들은,

○더 많은 렌트를 내는 새 입주자에게 방을 주기 위해 기존입주자를 거짓이유로내쫓거나,

○입주자 본인이나 입주자위원회(Resdential Tenancy Commission)에 통고없이 새 입주자에게 6%이상의 렌트를 부과하고,

○모기지를 매도하거나 새로운 모기지를 이유로 이에 대한 경비상쇄를 위해 입주자위원회가 허락한 렌트인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고있다.

이에대해 온타리오주 임대주협회는 몇몇임대주들의 비행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결과는 전적으로 임대주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제도화한 온타리오주정부에 있다고 비난한다.

75년에 통과될 주법에 의하면 '76년1월이전의 모든 아파트 전물에대해서 렌트평가를 받아야하며 1년에 렌트인상은 1번이상 할 수 없다.

또 임대주는 1년에 6%까지 렌트인상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원할때는 입주자위원회에 특별청원을 해야한다.

한편 입주자 그룹은 렌트평가제도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점점 잠식되고 있다고 말하며 많은 임대주들이 렌트평가를 교묘히 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전물을 팔고 새 전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렌트비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2천여명의 아파트 입주자를 소송 의뢰인으로 갖고 있는 토론토의 리챠드·핀크변호사는 주정부의 6$ 렌트 인상지침에도 불구, 대부분 그의 소송의뢰인은 지난해 20~30%의 렌트인상에 당면했다고 말한다.

일부 아파트 임대주들은 렌트평가 청문의 까다로움과 귀찮음을 아예 피하고 현재 세들이 있는 입주자를 내보내고 새 입주자를 받아 렌트를 엄청나게 올려버린다. 대부분의 새 입주자들은 전 입주자에게 알아보기전에는 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 길이 없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내보낼때 임대주는 자신이 입주자의 방(아파트)이 필요하다거나, 아파트 전물 수리의 이유를 든다. 위의 이유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이다. 쫓겨나게된 입주자는 법정에서 임대주의 이유가 사실인가를 밝힐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입주자는 거의 없다.

이같은 불법적인 렌트인상을 막기위해서는 모든 아파트와 렌트를 기입한 공공목록표와 같은 「렌트등록」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몇차례나 상정된 이같은 제안을 거부했었다.

입주자그룹은 또 임대주들이 그들의 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아파트 전물을 매매하는 교묘한 방법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한다.

현행 렌트평가법은 매매자가 일가친척이라도 아파트매매에 드는 경비상쇄조로 렌트인상을 허가하고 있다. 이런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 임대주들은 형식상으로 그들의 아내, 딸, 동업자및 변호사에게 매도하는 수단을쓰고 있다.

1981~82년 회계년도동안 입주자위원회가 허락한 평균렌트 인상율은 14.4%였으며 6%이상을 요청한 임대주 4명중 1명은 아파트전물 매도나 모기지 갱신으로 인하경비 증가를 렌트인상 이유로 들었다.

동 위원회는 아파트 전물가격의 85%에 달하는 모기지를 부담할 수 있게 렌트인상을 임대주에게 허락하고 있다. 또 임대주는 아파트 전물을 구입하여 3년동안 수지적자가 없는(break-even)선까지 렌트인상을 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렌트평가제의 허실을 이용, 큰 아파트임대주(회사)들은 아파트전물을 서로 사고 팔기에바쁘다. 자주 사고 팔수록 렌트인상이 수월하고 이익이많이 남기 때문이다.

780 에글링턴·아베뉴에 소재한 트라팔가·하우스는 6년동안 5명의 주인이 바뀌어 대부분이 노인인 이곳 입주자들의 렌트는 지난 2년동안 $150이올랐으며, 이번에 주인이 또 바뀌어 $50을 더 물게됐다.

핀크씨는 주인이 자주 바뀌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수지적자 상쇄기간을 10년으로 늘여 렌트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3년인 렌트 $300짜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면 당장 렌트 $650을 받을수 있을때 어느 임대주가 매매를 마다하겠는가?" 반문한다.

토론토시의원 패·쉐퍼드는 메트로·토론토의 아파트임대 유휴율 0.3%를 지적하며 이같이 아파트 얻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렌트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 실협뉴스 추가분〉

인터시티뉴스사 해명서

상담실은 통하여 들어오는 회원의 Complaint중 Metro News사 다음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 Intercity News잡지회사와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회집행부는 지난 5월10일 휴·커리 사장을 협회 사무실로 초치하고 진지한 대화를 교환했다. 쌍방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약속을 준수하기 위하여 차선겸 회장은 해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회원에 대한 Intercity회사의 해명서가 도착, 이를 요약 기재한다.

x x x

K.B.A 회원 귀하

이 기회에 지난날의 묵은 문제점들을 해명하고 아울러 새로운 상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 펜트하우스, 옴니, 휘럼의 캐쉬대 진열에 대한수당(F.I.A.)지연문제

리베이트 지불에 너무나 창시일이 요하는데 대한 차회장의 강경한 해명요청을 받고 그 절차를 설명하겠다.

여러분 가게에서의 잡지매상을 3개월마다 계산한다. 계산은 3개월째의 잡지가 나온후 60일이 지난 후 된다. 다시 말하면 1,2,3월분은 5월에 가서야 하게 된다. 펜트하우스사에서는 팔리지 않고 운전수가 잊어버린 잡지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므로 남은 잡지를 모조리 회수한 후 계산하려는 의도이다. 그다음 인터시티에서 매상을 종합, 협회로 보내는데 30일이 소요되고, 협회에서 이 숫자를 미국의 Curtis Circulation Co.에 보내고 거기서 다시 분류하여 Penthouse회사로 가는데 30일, 그리고 Penthouse회사에서 K.B.A에 수표를 보내는데 다시 30일이 걸리고 나서야 회원들에게 수표가 도착한다. 따라서 협회에서 매상숫자를 받은 후 90일후에 수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절차상 많은 회사들을 거쳐야 함으로 회원들의 이해를 바란다.

2. 잡지진열대(Magazine Rack)

Metro News회사에서는 진열대가 자기회사소유라고 하여 자기네 잡지이외의 것은 진열하지 못하도록 회원여러분을 피롭힌다고 들었다. 말도 안된다. 진열대가 일단 여러분 가게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다. 여러분이 가게를 사셨을 때는 잡지 진열대를 포함한 모든 비품을 구입했으므로 여러분이 Metro News 잡지만 진열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한 일이 없는한 법적으로 무엇이든지 진열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운전수가 진열대를 가져가려하면 이것은 위법이므로 경찰을 불러야하고, 여러분의 가게안에 놓여있기때문에 여러분의 소유이다. Metro News와 거래를 끊으면 여러분이 매입한 사업체에 속하는 이 rack는 엄연히 여러분의 것이다.

오직 Metro News와 합의했을 경우에 한해서 진열대를 가져갈수 있다.

3. Consignment와 C.O.D.문제

많은 회원들이 Consignment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같다. 아주 간단한 두가지뿐이다.

가) 부도수표나 연수표를 떼지 말고 제때에 대금결제를 할 것과,

나) 인보이스에 적힌 책은 모두 받아서 진열하시는 두가지 뿐이다.

(주: 이의 불이행으로 C.O.D.로 바뀐분들도 다시 두가지 요건만 지켜주면 Consignment로 복귀된다고 함.)

4. Playbirds, Whitehouse, Lovebirds등에 대한 20%와 40% discount문제

40% 감하는 회사의 잡지는 헌책이고 Intercity것은 새책이다. 저의 잡지는 새책을 싼것으로 손님들이 가게에서 읽지 않고 사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40% discount하는 헌 잡지와는 분명히 다르다.

5. 비데오 필림 소개

만화, rock음악, 성인비데오 테입중 가장 인기있는 품목을 Intercity News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3이면 예쁘게 진열한 한 box의 25개 부로셔를 갖다드린다. 구할수 있는 테입의 종류가 기재된 이 부로셔를 손님에게 전달, 테입을 주문하면 한 테입에 $20씩을 보증금으로 받아놓는다. 다음에 여러분이 Intercity News(전화: 252—6351)로 주문하면 다음 배달일에 전달된다. 가격은 소매 $99.50이고 원가가 $64 이므로 이익금은 $35이다. 성인용 테입에 8개종이 있고 만화와 rock음악에 20종이 구비되어 있다. 손님에게 VHS Machine이나 Beta Machine을 가지고 있는지 꼭 물어야 된다.

이상 해명과 함께 신상품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실업인협회와 계속 유대를 갖기를 희망한다.

Intercity News 사장 Hugh Curry

◆82년 미스코리아 5명의 얼굴. 가운데 진 박선희양, 오른쪽으로 선 최성윤양, 미스한국일보 정애희양, 왼쪽이 미 이현주양, 미스태평양화학 김미선양등이다. 원내는 매너상의 함승희양(미스·캐나다)

미스·코리아대회, 『진』 박선희

미스·캐나다 함승희양 『매너』상

82년 미스코리아 진의영광은 대구계명대응용미술과2년 박선희양(19.미스서울)에게 돌아갔다. 박양은 한국연극영화상 수상자들이 뽑는 스타상도 수상했다. 미스캐나다 진으로 선정되어 캐나다 전 교민의 기대를 모았던 함승희양은 아깝게도 5위이내에는 들지 못했으나 「매너」상을 탔다. 함양은 대회전 합숙훈련때 "교양미가 있고 행동이 세련됐다"는 평을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

15일하오5시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김광섭악단의 주악에 맞춰 야회복차림의 미녀49명이 「미스코리아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이날 대회는 4부로 나뉘어 제1부 야회복심사, 제2부 수영복심사, 제3부 1차통과자 15명발표, 제4부 최종발표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발된 진선미 3명에게는 부상·트로피이외에 1천만원·3백만원·2백50만원씩 국제대회 출전경비가 주어졌다.

공무원 박상현씨(51)의 2남2녀중 장녀인 진 박선희양은 왕관을 쓴뒤「미의 명예사절로서 손색없는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상 미녀는 다음과 같다.

◆진 박선희(19.서울)
◆선 최성윤(19.서울)
◆미 이현주(19.남 캘리포녀)
◆스타상=박선희(19.서울)
◆포토제닉상=최성윤(19.서울)
◆인기상=이유정(22.서울)
◆목련상(3)=주혜숙(19.강원 진) 김영아(18.뉴욕선) 최미경(18.경북 진)
◆매너상(3)=함승희(22.캐나다 진) 최지혜(18.호주진) 김선희(20.경남 진)
◆우정상(2)=한성경(22.인천 진) 민현숙(19.충북미)

미들랜드성지순례 한맘노년회 주최

토론토의 한맘노년회(회장 김성근)는 오는 29일(토) 1일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이날 상오 8시30분 한인가톨릭회관을 출발, 하오 8시 30분 돌아올 예정이다.

온타리오주의 가톨릭순교지인 미들랜드, 순례비는 1인당 10달러이다.

태권도의 정치적이용 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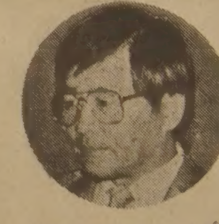
국제연맹측 통합협의차 서울로

〈LA지사발〉

◇… 최근 북한을 방문해 태권도를 북괴의 선전도구로 전락시킨 국제태권도 연…◇
◇…맹 총재 최홍희로부터 이탈한 동연맹 김종찬사무총장등 3명의 태권도사범…◇
◇…은 태권도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북한의 저의를 비난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교포체육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

뱅쿠버에 거주하는 국제태권도연맹 김종찬사무총장, 최창근심사위원장, 최선덕징계위원장등 3명의 태권도사범은 14일 LA올림피안호텔에서 세계태권도연맹(총재·김운용)과 국제태권도연맹의 통합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순수한 태권도보급으로 북한을 방문한 최홍희총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연방제지지」「김일성, 김정일 부자찬양」등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아 국제태권도연맹의 전체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비난했다.

두연맹의 통합을 위해 서울방문길에 LA에 들른 이들은 국제태권도연맹측은 통합작업으로 「지난 1일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세계연맹측과 여러차례 교섭을 통해 현재 통합이 95%선까지 무르익었다」고 밝히고 두연맹이 빠른 시일내에 완전통합을 이루어 88년 서울올림픽때는 하나의 태권도기구가 탄생, 올림픽종목에 채택여부가 정식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태권도연맹 김종찬사무총장.

한편 지난 80년 9월 최홍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최선덕사범은 『당시 순수한 입장으로 평양에 갔었으나 최홍희의 정치적인 개입에 실망했다』며 북한은 체계적인 태권도를 배운 요원들을 중요인사들의 경호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은 고유 무술인 격술을 배운 무술인은 4~6개월간 강훈시켜 작년에 1기생 40명을 배출시켜 동구전지역에 파견했으며 이중 일부는 세계기독자대회에 참석한 북한측 인사들의 경호원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82·83 온타리오 예산 해설 〈경제적측면〉

온타리오경제 구조적결함있어

김상융 경제학박사

◆김상용 박사.

★ 김상융박사 약력 ★

◆학력
69년 서울상대 경제학과 졸
72년 토론토 욕대학 경제학 석사
81년 해밀톤 맥마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논문 : 캐나다의류·섬유업계의 계량 경제학적 모델. An Econometric Model of the Canadian Clothing and Textile Indusry)

◆경력
80~현재 온타리오·하이드로 경제상담관
77~80년 오타와 Informetrica Ltd. 경제분석관
76~77년 뉴·부른스익 마운트·앨리슨대학 조교수
72년 몬트리얼 Alcan Shipping Servies 경제담당관
67~71년 한국 산업은행 경제연구원

■300달러 추가과세

이렇게 일자리없는 사람들에게 임시로 일자리를마련해주기 위해서 정부는온타리오주민 전체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씩 더져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첫째, 그간온타리오주 판매세 에서 면제되었던 물품들이 대부분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이에따라 개인위생용품(비누, Deodorants, Skin cream, Kleenex등)과 가정용 세탁청소품목들(Detergent,, Furniture wax, Laundry bleach등)자동차및 가정용 전기제품수리에 포함된 노임, 문방구, 화초, 애완용동물, 49센트 미만의 캔디, 소프트드링크, 커피, 음식점에서 먹는 6달러미만의 음식등 전부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다. 둘째, 담배(3.5센트인상), 술(25센트—30센트인상), 맥주(15센트인상)등에대한 세액을 인상하였다. 셋째, OHIP보험료를 매월 개인당 4달러, 가족당 8달러씩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서 매년 개인은 324달라, 가족은648달랄를 OHIP보험료로 지불하게 되었다.

한 예측에 의하면 위의 소비세 인상과 OHIP보험료 인상으로인해 소비자들은 가족당 연평균(가족모득 25,000달라기준)300 달라를 정부에 더 지불하여야 하는 결과를 예산안이 가져왔다.

■문제점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하여온타리오정부는 사실상 온타리오경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쓸수있는 여유가 별로없는 처지에서, 그나마 다소의 자극요인을 예산을 통하여 경제에 불어넣을수 있었음을 다행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노리고있는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산안의 소비세 인상 OHIP보험료 인상등은 첫째 개인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더큰 부담을 주는것이며 둘째, 전 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높임으로서 그만큼 실질임금의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이 임시고용증대정책에서 생기는 경제효과를 적지않게 상쇄할 것이다.

더욱기 이러한 소비자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이번 주정부예산은 1982년에 22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낼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이것은 온타리오주 총소득의 2%에 해당하는 것이다. (1981년에는 1%). 재정적자의 상대적인 증가가 물가상승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것도 예견할수 있다.

끝으로 이번예산안은 온타리오 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있는 문제에 대하여하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있지않다. 예산안은 금년과내년을 임시변통으로 잘 때워서 헤어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1,2년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오늘과같은 긴박한 경제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를 두고있다. 1,2년후에 정말 경기가정상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두고보아야 알 것이나 경기회복에 대한 민간경제 예측인들의 견해는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기회복의 여부를 뒤로하고 또 논해야 할것은 온타리오경제의 구조적 결함이며, 이 결함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다. 온타리오경제는 현재 기계, 금속, 화학, 자동차공업등 제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온타리오가 최근의 경기침체에 다른어느 주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있는 주원인이다. 왜 온타리오의 제조업이 이렇게 경기변동(Business Cycle)에 지나치게 민감한가, 온타리오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어떤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가, 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가등의 문제에 대하여 예산안은 이렇다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않고있다. 특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주요제조업들에대한 종합지원책 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1인당 $300씩 추가지불

재정적자 22억달러

제2회 한인친선낚시대회 개최공고

일 시 : 5월 24일〈빅토리아 데이〉 오전 9 : 00~오후 4 : 00
시 상 : (1)특등, (2)대어 1 등, (3)대어 2 등, (4)대어 3 등, (5) 4 등, (6) 5 등, (이상 모두 PIKE에 한함), (7)잉어대상, (8)희귀상, (9)노익장상, (10)부부상, (11)아동상〈12세 미만〉
장소 : BELL WOOD CONSERVATION PARK

※주의사항 : 1. 등록비 $5를 납부하고 등록번호를 받을것.
2. 82년도 회비 필한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수시로 등록비가 면제되며 선거 피선거권과 리셉션에 초대함.
3. 1인 낚시대 1개 바늘2개 이하사용
4. 본인이 잡지않은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서가 문란한 선수는 입상에에서 탈락될 수 있음.
5. 잉어상, 희귀상, 부부상, 아동상등에 해당자가 없을때에는 시상식후에 등록번호로 추천함.
6. 1인2회 입상불허 허함.
7. 낚시대, 바늘, 미노스, 떡밥, 지렁이등 각자지참.

※대회조직 : 대회장 : 정삼열 부회장 : 곽창수 총무 : 최남해
진행 : 이장관, 백운범 재무 : 김종근 심사위원장 : 강철용
심사위원 : 김재용, 이근호, 구진모
안내 : 755—9902 정, 298—7806 최.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한국일보
찬조 : 무역진흥공사, 동궁식당(곽창수), 한국식품, 불로아안경(구진모), 미도파선물(장추신)

--- 토론토한인낚시협회 ---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18일 개막한 낙스빌박람회『한국의날』. 한국무용단공연에는 사람이 너무 몰려 입장티켓을 따로 발행하는데 모두 매진되었다. 한국정부가 극성(?)을 면 탓으로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의 인기는 미국관과 함께 나연 으뜸에 속한다.

낙스빌 世界博覽會 「한국의날」行事 개막

"神秘의 나라" 만끽

과거·미래·현재의 韓國에 모두 심취
고유民俗公演갈채…「온돌방」에 관심

○…『에너지 엑스포』'82세계박람회의 총아인 코리아의 한국의날 행사 개회식…○
○…이 18일 낮12시(현지시간) 한국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한국의날 행사…○
○…는 17일부터 시작된 한국주간의 절정으로 이날 상오11시부터 1시간에 걸친…○
○…우리 고유의 민속무용공연이 펼쳐진데 이어 로버트박람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밤10시까지 각종행사로 이어졌다. …○

이 자리에는 워싱턴서 한미상공장관회담을 마치고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서석준상공장관과 이태섭국회상공위원장, 유재희, 김순규의원등과 미측에서 지역유지, 박람회당국의 고위인사와 각국관대표등이 한데 어울려 한국의 날을 기렸는데 하루종일 수만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어 신비한 동양의 나라의 행사에 한껏 취했다.

서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수교 1백주년의 해인 올해 열린 세계박람회에의 한국참가는 더 한층 뜻 깊다』고 말하고 『한미두나라는 1백년의 우의를 바탕삼아 보다 돈독한 미래의 장을 펴나가게 될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의날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박람회의 심볼로 에너지원을 상징하는 공모양의 「선스피어」탑(높이2백66피트)서쪽에 자리잡은 한국관은 과거·현재·미래의 한국으로 구분돼 우리의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위치 그리고 도약하는 앞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 가장 관람객의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과거의 한국」에 마련된 온돌방. 관람객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 취사와 난방을 함께 할수있도록 고안해낸 온돌방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했다.

한국관은 입구 오른쪽에 물레방아와 육각정을 왼쪽에는 세종대왕의 「혼천의」를 마련 고유의 건축미와 에너지세계를 표했고 입구 천정에는 5백여개의 청사초롱이 매달려 그 화사함을 한층 돋보여준다. 매일 평균 3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한국관은 총5백41평 대지 위에 19억2천여만원의 경비를 투입, 완공했으며 이곳 신문과 TV방송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보여 집중보도하고있다.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㊵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나는 무리노의 말을 어떻게 받아줘야 좋을지 묵묵히 있었다.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만을 기다리고 앉아주는데 만족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길거리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며칠전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되었읍니다. 그비유의 말씀대로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한산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읍니다. 저는 거기서 오늘의 교회상을보는듯 했읍니다. 교회는 미사중심의 여러가지 성사와 신심행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교회에 부르고 있지 않읍니까? 그러나 우선 저도 그러했읍니다마는, 요즘의 많은 신자들은 가난하다는 핑계로,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여러가지 구실로 교회에 나오는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마치 그 임금의 한산한 혼인잔치처럼말입니다. 그 임금이 나중에 가서는 자기종들을 보내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혼인잔치의 자리를"

어느날 저녁 나는 부리노 가정을 또 방문했다.

"무슈 아스랑, 당신네나 이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뻔한데 그게 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군요."

나는 그와 예의적인 몇마디 말을 교환한 다음 가난을 빙자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담당 구역신자들의 신앙문제를 말하다가 이렇게 그의 심중을 떠 보았다.

"사실은 얼마전부터 신부님에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었는데요, 아직 시기상조인것 같아 말씀드리지 못했읍니다. 그에 대한 좋은안이 하나있긴 합니다."

"그래요? 말씀해 보소, 무슈 아스랑,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서로 토의해 봅시다." 나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신부님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닌 어느 주일날이 길거리에서 미사를 한번 봉헌하자는 것입니다."

"뭐, 길거리에서 미사를 지내자고요?"

과연 내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가정미사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 무렵, 시내 한복판 길거리에서 미사를 지낸다는 것은 꿈엔들 생각해볼 수 없는 일이였다.

"교회법과 신학이 뭔지 잘 모르지만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되찾아 주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단체손님 환영, 염가로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포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예매처
김장권 533-2361
한국일보사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신앙의기본
기도란 무엇인가(3)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28:9)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신 참된 기도의 자태를 생각해봄과 아울러 그릇되이 드리는 기도가 많음과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은 물론 어떤 때에는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과 기도하는 사람측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과오를 범할수도 있음을 생각했다. 그리고 참된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구걸하는것이 아니고 그와의"신령한 교통"의 상태이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거두심과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장성해 간다는 사실도 생각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양태도 다양하여서 즉시 들어주시는 즉답, 끌고 가시다가 들어주시는 체답, 다른것으로 대신 주시는 변답, 사실의 아무런 변화없이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주시는 응답 방식이 있으시나 전혀 대답 않으시는 묵묵부답의 경우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기도 응답의 실례들을 성경 여러곳을 찾아가며 하나씩 고찰해가고 있는 중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내용을 끌고 가시다가 그 구하는 바 내용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후에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예를 "나사로 가족(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서 볼 수 있다. 성경 요한복음11장 전체를 보면 그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베뢰아지방에 계셨다.

예루살렘에서 2~3Km쯤 되는 곳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중 나사로가 병이 들자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 그 누이들이 사람을 요단강 건너편 예수님이 계신 베뢰아로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밤길을 걸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으나 나사로는 그들이 가는 도중에 죽고 말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전하는말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11절)"하시고 가셔서 마침내 그를 살리신(33-34절) 사실의 기록이 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 가족의기도를 즉시 들으시지 않고 그렇게 오래 끌고 가셨다는 사실은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놔 둠으로서 그들에게는 불행한 사실처럼 되고 말았으나 주님의 크신 뜻은그들에게 더 큰것, 즉예수님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있었고 이것이 바로 나사로 자매가 종국적으로 얻은 것이었다. 아직도 유대적인 메시야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혹고하고도 적당한 메시야관을 심어주신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 할것은 "묵묵부답"하시는 것과 "지체하시다가 들어 주는 것"을 구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대답이 없으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나 하나님 편에서도 아무런 변동과 사역이 없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만계속 중언 부언하는 것으로 한달, 두달, 일년이 가도 아무 진전이 없다. 이러한 상태는 "무의미한 기도",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않고 자기의 말만 계속하는기도"나 "외교방편"으로 이용하는 기도의 결과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하신 경우가 성경 여러곳에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공부해 보면 기도할때 우리가 갖어야 할 정당한 자세를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 어떤것을 구했을때 구한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주시는 예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행 16:6-9)"에서 볼 수 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시아도 북쪽지방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하며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쪽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도록 하셨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북쪽 즉 지금의 러시아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럽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인류 역사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러시아쪽으로 전하는것 보다는 우선 유럽에 먼저 전함으로서 기독교를 세계 역사의 주류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배려가 있으셨던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 다른 대답의 방식으로는 현실적인 변화가 없이 기도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응답하시는 예(고후12:1-10)이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만큼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주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 그것을 없이해 주시기를 세번이나 기도했다. 이에 대해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후12:9)"고 대답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크고 위대한 대답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것이 떠날것을 구하는대신 오히려 그것이 몸에 있는 것을 감사하였다.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일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다. 자기에게는 괴로움이 될찌라도 주께서 그것을 쓰셔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그것이 더욱 은혜로운일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대하여 생각하였으나 아마도 제일 많은 경우는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기도"즉 "듣지 않으시는 기도"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들으시는가? 그것은 많은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대로 정당한 위치에서 기도를하지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혹은 남들이 하는 모양과말을 본따서 하는 까닭에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기도"또는 "무의미한 기도"를 드리게되고 이러한 일이 계속될때 그 기도가 "종교의 한 행동"은 될찌언정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은 되지않기 때문이다.

성경말씀은 "아니 들으시는 기도"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다. 이 가르침들은 기도하는자들에게 중요한 경고와 교훈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기도의 참 자태나 원칙들을 터득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첫 예로서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언28:9)"하는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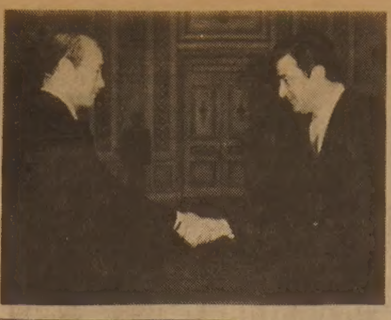
이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는 경건한 마음을 갖고 간곡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은 그가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돌이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성경말씀이 그에게 없다는 말도 아니고 설교할때 안듣고 닫아나 버렸다는 말도 아니다. 그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며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가에 대하여 귀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상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즉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이신 바 기도의 본의나 뜻에 대하여는 들으려거나 찾아 보려고도 않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순종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무시한채 자기자신의 말만 계속하는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는 자기의 전통과 아집에 사로 잡혀서 참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마음문을 닫고 여러가지 부차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혹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만 한다. 이런 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듣지 않으심은 물론 오히려 "가증히"여기신다는것이다.

~다음호에 계속~5.29.

"기도란 무엇인가"4회를 끝으로 본 교회에서는 신문광고 형식의 글을 마치고 그대신 월간지 "개혁자"를 발행할 계획인바 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매월 무료로 우송해 드리겠읍니다.

T.Y. LEE Agincourt, Ont. 492-9889 661-4581
14 Lambeth Sq., M1W 3B4 498-0241 222-7331

개혁장로교회(1355 WARDEN + ELSMERE 남쪽 : 예배 - 주일오후2시 : 문의 - 492-9889. 592-6142):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4개國大使 信任狀
全대통령、제정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베드레틴·투나바시 駐韓터키(사진)、카를·로피시·다비드 駐韓칠레, 압둘라예·지파노駐韓가봉, 에사·압둘라·알노와이저 駐韓 사우디아라비아대사등 4명의 신임대사로 부터 차례로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이 배석했다

〃宜寧이은 巨額不渡사건 心機一轉 本分에충실을〃
劉총리 공직자指示

劉彰順국무총리는 18일하오 국무회의에서『宜寧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전에 巨額어음不渡사건등이 이어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인 충격과 어려움이 겹치고 국민의 정부에대한 신뢰가 크게손상되고있어 참으로 가슴아픈일』이라고 밝히고『이같은 국가적 어려움을맞아 모든公職者는 心機一轉,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모든일에 신중히 대처함으로써 본연의직책에 조금도 소홀함이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取得·등록세 30%輕減
政府、景氣활성화대책 발표

地方사업 2千億 勞賃살포
中小業 前渡금융 市銀서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촌의 구매력확산을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위해 중소기업에대해 2천2백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起債를 통해 오는7월부터 9백㎞, 2천억원규모의 지방도로포장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1년이내 구입한 신축주택을 팔때 현재 15~35%로 되어있는 양도소득세율을 일률5%로 인하하고 25.7坪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부담을 30%경감키로했다。 金埈成부총리

◇金埈成부총리

그는 지난해의 풍작에도불구하고 여전히 회복기미를보이지않는 농가구매력을 자극하기위해 지방정부가 2천억원의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대규모 지방도로 포장사업을벌여지방영세민에게 노임을살포하고 농촌과인근도시간의 수송망확충으로 농가취업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도로포장사업은 앞으로 내무부와 건설부가 지역주민의 숙원이나 혜택、유통효과등을 종합감안 선정、늦어도 7월부터는 착공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부터 앞으로 세법개정후 1년까지 매입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5%로 일률인하하고 취득세 2%, 등록세 3%로 되어있는 주택거래관련세율을 서민주택에한해 30%경감,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토록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50% 감면대상으로 되어있는 서민주택신축을위한 택지의 양도세를 전액면제하고 아파트、연립주택등건설업자에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범위를확대、서민주택(專用25·7평이하)은 모두면제키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지원을위해 수출금융달러當 융자액을 현행5백80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고 기업투자촉진을위해 세제를 개선、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의 紙上배당과세를 차등우대하고 공개·비공개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단일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오는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당좌대월및 어음할인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중소기업납부代錢어음의 한은 再割비율은 현행70%에서 80%로

김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경쟁력있는 중소部品국산화업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기술지원 2백억원, 국민은행의중소기업자금 1천억원 추가설정, 1천억원규모의 前渡금융(注文을받아 생산을하고 납품을해서 어음을받을때까지 소요되는금융)취급을 市銀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자금유통경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했다고 말했다。

높이며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융자기간을 8년에서10년、기계생산업체에는 거치기간을 현행3년에서 5년으로연장토록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기피를 막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적극개입할수있도록 해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원용소형주택건설을 금융·세제면에서 적극지원토록했다。

鐵道요금·연탄값引上
철도 5%、연탄 3·3%씩
6월부터 市內버스 학생回數券 85원으로
7월 1일

정부는 물가억제를위해 그동안인상시기를 미루어온 철도요금을 오는 7월1일부터 5%, 연탄값은 3·3% 각각인상키로했다고 발표했다。

또 시내버스요금은 오는6월1부터 학생회수권요금만 현행60원에서85원으로 인상하는대신 금년중 일반성인요금은 현행1백10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근로청소년에게도 학생과같은 회수권요금을 적용토록했다。

이번 인상된 철도요금은㎞당 새마을호29·14원으로 서울—釜山요금이 현행 1만3천원에서 1만3천6백원으로 인상되고 특급이 5천5백원에서 5천7백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철도청은 현재 호남선에서 시행중인 탄력할인요금은 그대로 적용하기로했다。

이에따라 3.6㎏연탄서울가정渡가격은 개당 1백53원에서 1백58원으로오르며 석탄값은 6급1호탄기준 톤당 2만9천8백80원에서 2.2%오른 3만5백40원으로 조정된다。

金埈成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공공요금이 다른물가나 경제각부문에 파급효과가 크다는점을 감안, 정부는 그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련公기업의 경영개선을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토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電源개발자금조달과 세계은행의 적정투자보수율 유지를위해 당초7월1일부터 10%인상키로했던 전기요금은 올해중인상않기로 결정했으며 LPG가격이내려 일부요금인하 요인이 있는 택시요금도 당분간조정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대신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간의 빈번한 入金是非와 과속에따른 교통사고방지를위해택시운전기사에게월25만원선의고정월급제를실시토록하고 88올림픽에 대비한 택시中型化를 추진키로했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철도, 전기요금등 公共料金인상폭의 최소화에따른 韓電, 철도청등의 자금부족은 기존 투자사업의조정, 자체경비절감등으로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公共요금인상은 앞으로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시행된다。

한편 金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 검토되어온 통학생 정기승차권제도는 특정노선의 특정회사간에만 계약이 가능하는등 문제점이있어 당분간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고밝혔다。

◇인상된 철도요금 ( )은탄력요금

	새마을	우등	특급	보통
서 울~부 산	13,600	8,000	5,700	2,860
서 울~大 田	5,100	3,000	2,100	1,070
서 울~光 州	11,300 (9,000)	6,600	4,800	2,380
서울~東大邱	10,000	5,900	4,200	2,100
서 울~全 州	8,600 (6,900)	5,000	3,600	1,800
서 울~木 浦	13,100 (10,500)	7,600	5,500	2,750

李圭光씨 어제收監
李哲熙씨에 〃中東合作銀〃 협조條…1億받아

대검중앙수사부는 18일 하오 李哲熙씨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연행한 張玲子여인의 형부이며 前광업진흥공사사장 李圭光씨(5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圭光씨는 지난3월하순께 漢南洞 자신의집에서 중동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은행설립(서울)을 추진중이던 李哲熙씨로부터 『관계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 잘이야기해달라』는 부탁과함께 1억원을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또 張여인이 이미 구속된 사채업자 田永采씨(36)가 살고있던 서울江南區淸潭洞山85의38 집을구입、82년 2월에 李씨에게 증여한 사실도 확인、이부분에대한 증여세 탈세혐의도 수사하고있다。

張여인은 田씨로부터 집을 구입하면서 田씨가 보관하고있다가 검찰에압수된 액면90억원짜리 共榮토건발행 약속어음을 보관시키고、이 어음을 할인해서 집대금을 계산하고 나머지 액수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李圭光씨는 또 지난2월하순께 자신의 집을 방문한 張여인이 『81년도에 결혼한 아들2명의 결혼식때 축의금을 못내 미안하니 아들들에게 집을사주라』며 전네준 1억원도 받았다는것。

검찰은 현재 드러난 혐의사실중 합작은행설립과 관련, 받은돈 1억원만 범죄사실을 구성할뿐 清潭洞집의 등기권리증을 받은것과 축의금조로 1억여원을 받은것은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씨는 「합작은행」과관련된 1억원가운데3천만원은 쓰고 7천만원은 예금중이었으며 아들의 결혼축의금조로받은 1억원중5천만원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李哲熙씨로부터 돈을받은 李씨가 관계기관에압력이나 청탁을 했을것으로보고 수사중인데 李씨는 압력설을 부인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李圭光씨가 지난해12월 2억5천만원을주고 사들인 方背洞집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李씨가 故朴正熙대통령으로부터 받은돈으로 샀던 平倉洞의 2백50평짜리 집을판돈 7천8백만원과 그리고 집을 저당으로 빈 5천만원、사우디에 근무하는 큰아들이 송금해온 돈을 모은 5천만원、李씨의 부인이 빌어온 7천만원등을합쳐 산것이라고 밝혔다。

대한 老人會長 李圭東씨 辭表
〃李圭光씨물의에 道義責任느껴〃

李圭東대한노인회장(72)이 18일 회장직 사의를 표명한것으로 밝혀졌다。

李회장은 동생인 李圭光씨가 張玲子여인어음사기사건과 관련、물의를빚자 이에대한 도의적책임을느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곧 대의원총회를 소집、李회장의 사퇴문제를 처리할방침이다。

國會소집 對策논의
民正、政治資金說도

民正黨은 18일하오 당사에서 李載瀅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총무단·국회상임위원장 연석간담회를열고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에대한 당의 입장과 수습방안을 협의하는한편 야당측이 요구하고있는 임시국회소집대책등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李鍾贊원내총무는『李·張부부사건과 당과의 정치자금관련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의원들은 소문에 현혹되지말고 확고한 자세로 임해줄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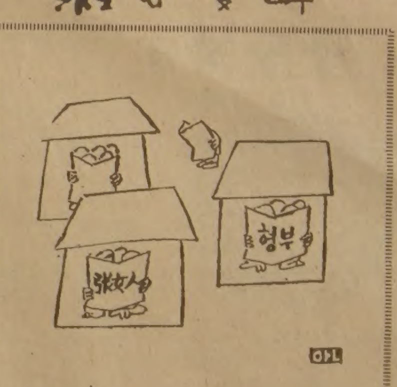
李총무는 또 그동안 民韓·국민당 총무들과의 접촉과정 및 임시국회 소집여부에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中東系 은행은 合作先 안나와
해설

정부는 지난해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유도를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중은행민영화와함께 외국인과의 합작은행 설립을 허가키로 했었다。 이에따라 韓美은행 新韓은행(在日동포은행)및 中東系은행설립이 추진되었으나 中東系은행만이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韓美은행은 大宇그룹을 대표주주로 美國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와 구체적인 합작이 추진중이며 新韓은행은 오는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하게되지만 中東系은행은 중동건설업체인 現代건설 東亞건설 大林産業과 섬유재벌인 鮮京그룹등이 합작파트너를 물색중이라는 얘기만 떠돌뿐 1년이 지나도록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社会漫評



4천만이 요즘「新聞읽는」재미로…

政局往來

◆또박의民韓·국민聯合戰線에緊張

각당의 대책회의때문에 두차례나 연기된끝에 17일하오4시에야 열린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회담은 두野黨이「단독국회소집요구」라는 최후통첩으로 긴장。 [illegible]

◆盜壘아닌 홈런같은 대책마련할것

民正黨은 일요일인16일 고위간부들이 중앙당사에 나와 張여인사건에 대한 院內전략을 협의한데 이어 17일에는 18일의 정례 당직자회의를 앞당겨 열고 논의를 거듭하는 등 부산한 분위기。 [illegible]

◆현재더중요한것은引責보다收拾

張여인의 私債사건대책을 두고 정부는 중앙청에서 지난주에 이어 17일상오 3번째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는등 경제적인측면에서의 대책마련에 腐心。

이날 회의는 지난15일의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다듬어진 경제대책을 16일 관계部處차관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實務者들이 밤새워 작성한 案을 놓고 보강하는 회의로 한 참석자가 傳言。 경제기획원에서 열예정이었으나 事案이 중대한만큼 格上시켜 여는게 좋겠다는 金埈成부총리의 건의를 劉총리가 받아들여 중앙청으로 옮긴 것。

회의내용에 대해 한 참석자는 『[illegible] 정리한 정도였다』고 말하고 『검찰발표가 [illegible]』이라고 설명。 『더 급한 것은 수습과 대책이 아니겠느냐』고。

◆財務委員들 교체하라는 주장일어 『국회소집-國政調査權발동』방 [illegible]

民韓、총리비롯 관계장관 引責문제를 黨論으로

[illegible]

地平線

우리나라가 1백년전 세계각국에 문호를열어 修好通商조약을 맺었을때 그 조약문을 자세히 살펴 보면 문자 하나하나에도 깊은 배려를 했음을 알수있다고 湖岩文一平은 말한일이 있다。▼즉韓日修好條規에는 第一款에朝鮮國 自主之邦 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이라고 自主라는것을 못박았는데韓美修好通商條約第一款은 판이하게「…若他國有何不公輕藐(侮)之事一經照知 必須相助 從中善爲調處 以示友誼關切」이라고 相助를 조건으로 붙인점이다。

이글귀만 봐도 미국은 공평한나라요, 어려운때엔 相助를 생각했던게 분명하고、일본에는 自主를 내세워야했던 역사적배경을 짐작할수있다。 그후 1백년동안의 역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도 한국민은 일본에 대해서는 自主、미국에 대해서는 相助의 관념을 뿌리깊이 간직하고 있음을 볼수있다。▼相助의나라 미국에서 韓美修交1백주년紀念 미국 대통령사절단이 오늘 한국에 온다。 한국에서 유엔軍司令官을 지낸 라이먼·렘니처將軍이 이끄는 35명의 이 使節團에는 스틸웰 前駐韓美軍司令官、스나이더 前大使등 낯익은 얼굴이보이는가하면 4명의 美下院議員도 포함되어있다。 이들은 仁川에서 있을韓美修交 1백주년 紀念館 起工式에 참석한다。 이들보다 하루 앞서 美참전용사등 1백47명이 鄕軍의초청으로 역시 修交백년을기리고자 어제 한국에 왔다。 제임즈·필립 비역 육군준장이 이끄는 이 일행은 미군참전 기념비、제3땅굴등을 견학、6·25이후 변모된 한국의현실을 돌아볼 예정이다。▼미국은 1950년 6월25일 한국동란이 북괴의 남침으로 발발하자 유엔군의주력으로 즉각참전、자유와민주수호를 위해 30만명이나 파병했었다。 전사자만3만3천6백29명이란 아까운 희생까지 냈다。 이번에 온 렘니처장군이나 필립장군등 이 피로 지킨 友邦韓國의 놀라운 발전을보면 감회가 더한층 깊을것이다。 또 相助의 나라 미국에서온 友邦사절을 따뜻하게 맞는 한국민의 기쁨 역시 크다。 1백년전에 相助의 관계로 미국에 문을연 조상들의 慧眼에 새삼 머리가 숙여진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전교포 화목의밤
댄스파티

일자 : 1982년 5월22일 (토요일 저녁)
시간 : 7 : 30~9 : 00—저녁식사
9 : 00~1 : 00—댄스
장소 : CONSTELLATION HOTEL(BALL ROOM)
900 DIXON RD. (AIR PORT 지역)
입장권및 정식 : 1인당 $25.00(표를 구입 못한분은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음) 시간엄수요망
표판매처 : 각 한인식품점
복장규정 : 남—정장(신사복과 넥타이)
여—양장 혹은 우아한 한복
시 상 : 우수한 댄서 3쌍 선정 시상과 약간명의 행운상이 있음.
연 락 처 : MR. 박 ☎ : 661—1523 (5시 이후)
※경쾌한 라틴음악(우리 노래도 포함)과 쌓였던 잡념을 씻고 하루저녁을 마음껏 즐겨 보십시요!
박희원과 그의악단
(6인조 라틴 캄보밴드)

마야 미용실
개업인사 및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가 불로아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봉사로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오니 한번 꼭 찾아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개업일 : 1982년5월1일 세일기간 : 5월초~6월말까지(2개월간)

HAIR 부문
*캇트, 파마및 스타일 $25 & up
*캇트 및 스타일 $9
*샴푸 및 스타일 $8
*머리염색 $12 & up

MAKE UP 부문
*신부화장
*파티화장
*스테이지화장
*심는 속눈섭·전문
*신부드레스 대여

※머리가 상하신분 또는 헤어스타일에 항상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은 한번나와 주세요.

미용경력 : 14년

헤어스타일이스트 김 영 주

63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서울여행사2층)
588—1480(B) 243—8026(R)

화장스페샬이스트 클라라 홍

本社 李梓昇 특파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第5信

不安·기대 뒤범벅 「걸치레協商」

뚜렷한 和解點못찾는 英-아르헨紛爭

국제焦點

【부에노스아이레스18日＝李梓昇특파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대처 수상의 훈령을 받고 뉴욕으로 돌아온 영국대표단이 무슨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불안과 기대가 뒤범벅이된 분위기에서 유엔을 무대로 다시 벌어질 외교교섭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초가을 궂은 비가 뿌리는 이곳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은 지난 15일 영국특공대가 「그렌말비나스」(西포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보르본공항을 기습, 활주로에 있던 11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탄약고 1개소를 폭파했다는 영국국방성의 발표였다.

아르헨티나는 외교·군사적으로 할 일은 다 했으므로 『기다려 보자』는 자세다.

외교적으로 양보할수있는 마지막선까지 다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지난 주 『피한들』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나온 영국의 템즈TV취재팀,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 국영TV및 페루 국영방송과의 3일동안에 걸친 연쇄적인 인터뷰에서 ▲말비나스에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은 양보할수없다 ▲영국에대해서『받아들일수있는 명예로운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의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영국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긍지를위해 필요하다면 5~6개월 또는 5~6년, 4천명이아니라 4만명의 목숨이라도 내걸용의가있다』고 천명했다.

갈티에리 대통령의 회견에서 보듯 아르헨티나의 기본입장은 본질적으로 크게 변한것이 없다.

당초의 입장은 철군에앞서 포클랜드에대한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인정해야·내용으로하는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안을 수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先주권인정 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즉 아르헨티나 외무성의 제3인자 구스타보·푸에기로 와는 『아르헨티나는 先주권 인정의 전제조건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결국 우리 한편 영국정부도▲아르헨티나軍의 무조건 철수▲포클랜드島주민의자유의사에의한 英國통치권의회복▲포클랜드島주권결정등 당초의 초강경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겉으로는 상당히 접근한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인 문제인 포클랜드군도의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간격을 좁히지못하고 보고있을 뿐이다.

「主權문제」계속불씨로남아

英의 「잽」구사…단계적 擴戰

兩國 「명예로운 퇴진」없을땐 全面戰불가피

아르헨, 休戰-단계적撤軍-신탁統治-主權인정등…英, 포島철군-통치권회복-국민의사로 主權결정

◇再開된 「포群島사태」 회담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左)이 17일 유엔본부에서 본국으로부터 급거 귀임한 앤터니·파슨즈 駐유엔 영국대사를 맞고 있다. 이자리에서 포클랜드사태를 둘러싼 회담이 재개되었다. 【뉴욕17日AP聯合】

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권협상 기간은 『납득할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권을 인정하도록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명백히 했다.

아르헨티나는 이것으로 대처영국수상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클랜드島주민의 자결권주장을 철회하는 동시에 협상기간동안의 유엔신탁통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아르헨티나군의 先철수와 後주권협상의 기본원칙에는 후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軍의 철군과관련, 재점령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협상의 결과가 아르헨티나의 주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고 영국은 이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엔교섭기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아르헨티나는『영국의 대규모공격이 임박했다』고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국은 『잽』만을 가하는 교란작전에 그치고 있다.

주말에는 한층강화되는 이교란작전이 지난15일에는 특공대를 지상투입, 아르헨티나군을 『히트·앤드·런』의 게릴라전법으로 한단계 더 강해졌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계적인 확전에대해 우려를 하고있으나 이정도의 군사적압력으로는 삼켜버린 포클랜드를 토해내놓지는 않을것이 확실하다.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직접지원하지 않는한 영국군을 단독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확신을갖고 있는것 같다.

또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직접개입이 없는한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것이 기본입장이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소련의 지원제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스, 노』를 분명히 하지않은채 의례적인 『감사하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그쳤다.

이 따르다는것을 알고있는 아르헨티나는 관민이 모두 유보적인 자세다.

현단계로서는 영국, 아르헨티나 양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려는 입장이므로 미소등 최강대국이 개입되는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조짐은 없다.

아르헨티나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라틴아메리카와 EEC국가에대한 외교공세의 강화로 영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것을 피하고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외교교섭의 상태가 가를날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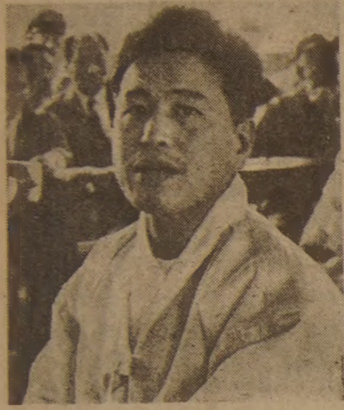
포클랜드에 대한 외교적 타결은 65년 韓日회담 교착때 돌파구를 마련해 준 『金·오오히라메모』와 같은 양해사항이 없는한 극적인 타결이 어려울것으로 보고있다.

이곳에서는 영국이 和戰양면에서 키를 쥐고있다고 보고있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 손」李圭光씨

"그는 처제 張여인의 후견인이었다"

베일벗는 「庇護위장」



◇5·16직후 반혁명사건과 관련, 수의를입고 재판정에 나섰던 李圭光씨.

金融·財界거물들과 密着

75년 國有地불하미끼 巨額챙겨 夫婦立件도

李哲熙와 結婚반대했다 式場선 친척代表로

玲子씨가 처음 찾은 절도 다니던 곳이다. 그 이전부터 언니 張씨(50)도 張玲子가 처럼 상당한 미모. 실제 7~8세 점 생활 도 된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한다.

李圭光씨는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張星姬씨 부부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

【社會部】

중공紙에 詐欺광고

★돈떼인 被害者 속출 자본주의자들의 사기행위라 해서 상업광고가 보통금지되어 오던 중공에서 최근 신문·방송에 등장한 한 사기광고로 인해 돈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중공노조기관지 공인일보에 따르면 시안시안 이라는 소도시에 있는 자력치료제 3호공장명의로 신경쇠약·불면증·류머티즘에 효험이있다는 자력벨개 전기담요등 ...

효기구의 광고가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개당10원(한화약 4천원)에 이것들을 주문했으나 전혀 효력이없는 불량품이라는 밝은 경우는 다행이고 물건자체도 받지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것.

원래 중공에서는 몇년전부터 상품소개정도의 광고는 허용되어왔는데 공인일보는 이 번사건과 관련, 논설에서『사회주의광고는 인민에 봉사하는 것』이어야하며 『광고의진실과 사회주의적 성향은 커져야한다』고 일침. 【北京＝AP】

海外토픽

失手로 가로수損傷

★百12만弗補償要求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드군에서 타이어판매상을 하고있는 데이브·코프먼이라는 상인은 최근 실수로 그의 가게앞에있는 6m높이의 검은 올리브나무가로수를 쓰러뜨리 사고를 내 당국으로부터 1천6백달러 (한화약 1백12만원)에 달하는 올리브나무 원상복구비청구서를 받았고 폐나 당황해있다고.

시당국은 이나무를 복원하기위해 4명의 인부를 동원, 식수작업·부근나무와의 경관조화작업등을 벌였다면서 그에게 이를 인부의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는것.

이에대해 코프먼씨는『수긍은 가지만 좀 지나친 조처로 생각된다』고 푸념. 【마이애미(플로리다州)＝UPI】

"포클랜드仲裁 비관적"

유엔總長피력 英대처,"금주내 和·戰결판"

【유엔本部17日＝聯合】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17일 포클랜드 분쟁해결을 위한 그의 노력에 있어『시간은 평화의 편에 서있지않다』고 신이 더욱 굳어졌다』고 비관론을 던졌다.

페레스·데·케야르총장은 이날 앤터니·파슨즈 駐유엔 英國대사및 엔리크·로즈 아르헨티나 외무차관과 회담을 마친뒤 따라서 앞으로 2~3일이 결정적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파슨즈 英대사가 가져온 영국측 최신제안을 아르헨티나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런던17日AP聯合】마거릿·대처영국수상은 17일 포클랜드군도분쟁을 둘러싼 아르헨티나와의 和戰여부가 이번주내로 결판이 날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처수상은 이날 한 방송회견에서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포클랜드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경우 『몰아가도록 만들것』이라면서『이번주내로 전쟁이나, 평화냐의 결정이 내려질것』이라고 강조했다.

中共 核물리학자 美亡命

訪美中…永住위해臺北着

【臺北17日AP·UPI＝聯合】美·중공 과학문화교류계획에 따라 미국에 파견됐던 중공물리학자 수·치아·후안(59)이 미국에서 자유세계로 망명, 16일 대만영주를위해 한 공편으로 이곳에 도착했다.

미국에가기전 安徽省의 과학기술대학에서 물리학교수로 재직한바 있는 수는 16일 정기 싱가포르항공편으로 臺北에 도착한후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文革후 중공에서 核물리학을 연구하다가 臺灣으로 가기위한 방편으로 미국파견연구팀에 합류했다면서 30년간에걸친 공산당의 중국대륙통치로 중공은 상당한 후퇴만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라이베리아 通禁令해제

【먼로비아17日AP·UPI＝聯合】새뮤얼·도 원수의 라이베리아 군사정부는 17일 지난 80년4월 쿠데타로 집권한이래 실시해온 통금령을해제했다.

이 조치는 사무엘도 원수가 이집트와 중공·한국순방을 마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 남은 여행일정을 중단하고 외무성은 말했다.

非共産黨員 要職에기용

中共聯政구성目標

【東京17日聯合】중공은 민주연합정부구성을 목표로 당과 정부및 全人代요직에 비공산당원을 기용할지도 모른다고 중공의 한 고위관리가 16일 말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이 관리는 이날 익명으로 기자회견에서 요직에 중공당국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비공산당원을 선발, 훈련중이며 全人代대표 총 3천4백50명중 5분의 2를 비공산당원으로 충당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중공의 최고실권자인 당부주석 鄧小平이 최근 多黨정치의 장점을에대해 언급한바 있다면서 중공당은 현행 헌법테두리내에서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기구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아리

美人의 條件

현대의 미인이라고 하면 늘씬한 8등신을 연상한다. 이런 미인의 조건을 충족시키자면 무엇이 아무래도 좀 자아야 된다.

우리나라 고대의 미인상 즉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조각을 보면 한결같이 6등신이다. 머리가 크고 다리가 좀 짧은 미인들로서 그시대로서는 8등신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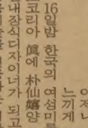
조선시대만 해도 미인도를 통해서 볼수있는 한 8등신은 아니고 더더욱 육체파와는 거리가 있다.

말기조선 지 채용신이 그린 운낭자상은 삼이 두실루실 ...

하게 젠데다 바른 가르마를타고 역시영양상태가 좋아보인는 어린이를 안고 있다. 이것을 미인도로 보아야 한다면 당시로선 유일한예외인 육체파 미인이라고나 할까.

미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다른것은 우리라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이나 멀리 구라파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이웃 또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정신적인 아름다움 가운데 어느쪽에 더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진다.

그런데도 동서고금을 가릴나위없이 여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 기본은 태



고적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는듯 하다.

일부 문화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 내었던 예술작품은 아프리카 북부에서 발견된 흙으로 빚은 여성의 나체 조각이라고 한다.

높이 30cm정도의 이 토우는 젖통이 머리통 크기이고 허리는 개미허리인데 엉덩이는 풍만하게 발달되어서 두드러 졌다.

이 토우는 그때 아득한 옛날옛적의 여인상을 사실적으로 옮겨놓았다기 보다는 바람직한 여인상을 중점적으로 표현했을 것으로, 여인에 대한 심미안의 바탕이 그제나 이제나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한다.

16일밤 한국의 여성미를 대표하는 82년도 미스코리아 眞에 朴仙嬉양(19)이 뽑혔다. 장차 실내장식디자이너가 되고싶다는 이미스코리아는 응용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선과 미 그리고 미스한국일보, 미스태평양도 함께 선출되었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49명의 후보중 29명이 학생이었다고 한다. 학력이 곧 교양과 직결되는것은 아니나 현대의 미인될 조건에는 교양도 깊이 상관한다는 추세에 있는가 싶다.

外信안테나

◆南阿共, 앙골라空襲＝남아공화국은 지난주말 앙골라내륙의 한 발전소와 여러군사목표들에 대한 공습을 감행, 7명의 민간인과 6명의 앙골라 군인을사망케하고 14명을 부상케 했다고 앙골라관영 안고프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리스본＝聯合】

◆브, 레이건軍縮제안에應答＝소련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18일의 공산청년동맹대회 개회식에서 레이건美대통령의 핵무기감축제의에대한 소련의 입장을 밝힐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聯合】

◆趙中共수상 月末께 日방문＝중공수상 趙紫陽은 日本경부 초청으로 오는31일부터 6일동안 일본을방문한다고 일본외무성이 14일 발표했다.

趙紫陽의 방일은 인·중공외교관계수립 10주년과 때를 같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외무성은 말했다. 【東京＝AP】

◆미테랑, 訪獨서 英비난＝서독을 방문중인 프랑스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영국이 EEC(歐共市)협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간접 비난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이날 서독정계및 업계지도자들에게 일부 EEC국가들이 편협한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EEC결정에대한 거부권행사는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문제토의는 과거시제에 머물고 말것이라고 경고했다. 【함부르크＝聯合】

교민친선축구대회

금번 축구협회에서는 하기와 같이 교민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가하시어 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10일 오전9시
장 소 : Centenial Park
참가비 : 청소년($50) OB 30세이상($70)
신청마감 : 1982년7월3일
연락처 : 총무 권성용 752-6023
경기 박원모 424-2439
922-2127
시 상 : 청소년1, 2, 3 참가상
OB팀 1, 2, 3 참가상

※본 협회는 5월29일부터 매무 토요일 하오4시 토론토 서니부룩·팍 구장에서 축구규칙, 기술등을 무료로 지도함.
팀 또는 개인, 남녀노소 불문. (연락처 신강용 251-6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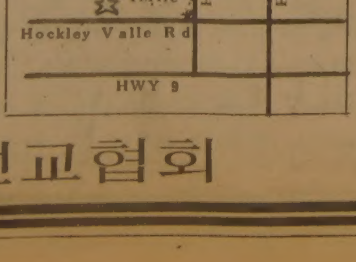
후원 : 한인회 체육회
캐나다축구협회

하기수양회

하나님의 축복이 각교회 성도님에게 임하시기 축원합니다. 금번 한국에서 16년간 반석기도원을 운영하시며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김영자원장님을강사로 모시게 되었음으로 시내 각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이 수양회에 참석하여 은혜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준비물 : 성경, 담요, 세면도구 (식사는무료제공)
일 시 : 6월4일(금)7시~ 6월6일(일)아침
장 소 : 협신기도원 6 HOCKIEY VALLEY RD.
연락처 : 245-1687
강 사 : 김영자원장 (반석기도원 원장 16년간 역임 현, 영광장로교회 전도사)

〈예비집회〉 일 시
(1) 5 월28일 금요일 7 시30분 한인펜티코스탈교회(300 Queen Dr.)
(2) 5 월30일 일요일 7 시30분 토론토기도원(100 Lawlor Av. Tor.)



주최 : 협신선교협회

노회가입 예배에의 초대

한인교회(Han-In United Church)는 조직교회 인준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바쁘신중이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5 월27일(목) 오후 7 시30분
장 소 : 한인교회(Han-In United Church)
주 소 : 69 William St. (Hwy 401 & Jane)
설 교 : 이 상 철 목사

한인교회
(HAN- IN UNITED CHURCH)
교인일동 드림

"쓰러지면 안된다" 링게르 注射도

張여인건강 세심한 神經

○…대검수사관들은 접근금지를 시킨채 서울구치소 여자독방에 수감,심문중인 張여인의 건강상태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있는데。

張씨는 연행초기에는 계속된 철야조사와 호사스런 생활뒤에온 충격이 몰고온 허탈증으로 식사를 거의하지 못하고 불면에 이사건의 핵심인물인 張씨가 쓰러지지 않도록 링게르주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張씨는 곧 대담한 성격을 되찾아 경제사범으로 드물게 끼니때마다 영치금 20만원으로 8백원짜리 백반을 주문해 남김없이 먹고있다고 교도관들이 혀를 내두르기도。

남편 李씨는 구속당시 갖고있던28만원을 영치해놓고 사식을 시켜먹고 있는데 張씨보다는 식사를못해 남기는일이 많다는것。

서울구치소측은 이번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독방에 수용해놓고 교도관들에게 이들의 힘에 빠지지않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기도했다。

搜査 낙수

걸핏하면 눈물 씁쓸

張여인은 조사과정에서는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기도해 씁쓸한 감을 더하게했다。

張씨는 대검의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중 틀린사실이 밝혀질때마다 울음을 터뜨려 수사관들 사이에는 『張씨가 대질과정에서 울면 믿을만한 진술로 봐야한다』는 말이 전해 진다는것。

張씨가 진술한 어음의 할인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나 15일밤 구속된 사채업자 田永采씨(35·三扶토건자금부장)와 대질시켰는데 수사관이 田씨의 기록장부를 토대로 하나하나 따져가자 張씨는 결국 『田부장, 그럴수있느냐』며 울음을 터뜨리며 田씨의 주장을 시인했다。

張女人 사진났다에 흐느껴

○…張여인을 직접 심문한 한수사관에 의하면 16일 구치소를 떠나기전『보도진에게 사진을 찍히게 될것』을 사전에 통고했다。수사관은 이들고와 함께 『어차피 공판정에나가도 사진찍히게된다』고 말하고『고개를 세우는것이 좋을것』이라고했는데 17일 석간신문에난 張씨의 사진을본 이수사관은『너무 뻔뻔하게 얼굴을들어 볼상사납게 됐다』 고개를 쳐들고 사진찍히게된 경위를 공게。

이수사관에 의하면 張여인은「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났더라」는 통고를 받자 흑흑하며 큰소리로 흐느껴울었다。

百만원권 百50장건네

○…검찰의 수사기록을보면 張여인이 얼마나 손크고 간큰 여자임이 드러난다。

씨는 이미 이번 사건이 곪아터지기 7개월전인 지난해 11월 林在珠조흥은행장에게 빳빳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50장인 1억5천만원을 건네줄만큼 가짜였습니다。이만한 거액을 건네면서 아무런조건도없었다는 것인데 1억5천만원의 현찰을 받은 林행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진술했다。

또 은행장은 재계의 거물이 찾아가도 만나기 힘든상대인데도 이번 사건을 훑어보면 은행장 자신이 張씨를 만나기위해 직접 張씨의 사무실이있는 롯데호텔지하 음식점으로 간것도 이례적인일。말하자면은행장이張씨에게끌려간셈이다。

○…張여인과 林행장이 사업상 처음 만난것도 林씨가 직접 제발로 찾아간것에서 비롯됐다。

大和상업이 들어있는 롯데호텔 건물에는 조흥은행 반도지점이 있는것으로 張씨는 이 반도지점의 지점장을통해 林씨와의 접선공작을 폈다。

張씨는 우선 당시지점장 李의津씨(구속)를 불러 1억원짜리 적금을 들면서 『조흥은행을 돕고싶다』고 말하고 은근한 말로『은행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것。얼마뒤 은행장林씨는 張씨를만났고 이뒤부터 張씨는『나 張玲子다』는 말한마디로 어음용지를 무제한 共榮토건에 교부해준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3월 共榮토건이 부도위기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 은행장 林씨를비롯 최고급간부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林씨는『계속 도와주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군집」사람으로호칭

○…張여인은 15일아침 수사관들이코피를 권하자 『金守哲씨에게도 한잔 대접해달라』고 부탁해 수사관들을 어리둥절하게했다。

張여인은 최근까지 이혼한 첫남편인 金씨와 계속 만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남매도 자주 만나는등 다정하게지냈다는것이 밝혀지자 수사관들은『그렇게 좋은 사이에 뭘하러 이혼했나?』며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張씨는 수사도중 현재의 남편 李哲熙를 시종일관『李장군』으로 불렀고 李씨는 張씨를『집사람』으로 지칭했다。

林행장 나들이 잠적추정

○…두 은행장에대한 환문조사는 이들이 국회재무위에 출석한 전날인 지난 13일 밤부터 시작됐다。

검찰은 이미 은행관계자 조사과정에서 두행장의 배임혐의를 밝혀내고 구속하기로 결정, 재무위가 끝난 다음으로 하느냐, 먼저 하느냐를 놓고 고심。

그러나 신병확보를 위해 수사관들이 두행장집을 덮쳤을때 林행장은 집에 있었으나 林행장은 부인과함께 이날아침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 잠적한 것으로 보고 한때「잠적주나」하고 생각했다。

다행히 수사팀은 이날밤 세브란스병원에 피신, 입원중인 林행장을 찾아내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이때의 1차조사에서『국회에 나가 뭐라 답변하겠느냐』는등 관심밖의 심문으로 이들을 안심시키고 본론을 터뜨렸다。

對質서 거짓自白드러나 울음
전화상 鄭씨 협박전화에 불안
수사관 커피권하자 "前남편에게도 한잔

보안위해 특수대서 수사

○…李·張부부를 구속한 검찰은 처음 며칠간은 보안유지를 내세워 이들을 치안본부 특수대로 불러내 조사했다。

그러다가 검찰내의 의견이 가뜩이나 국민들의 의혹이많은데 하필이면 경찰 관서로데려가 조사할게뭐냐는쪽으로 기울자 심문장소를『주간에는 교도소、야간에는 검찰청』으로 정했고 특히 검찰청에 이들을 데려올때는 매일밤 9시~9시30분사이에 대법원옆에있는 법원후문을통해 법원구치감으로데려가 지하를 이용、15층 조사실까지 이송해왔다。

이때부터 수사관 2명씩을 따라붙여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구렁이」알같은財産날려

○…이번사건의 뒤안길에는 몇몇명의「구렁이알」같은 전재산을 날린 기막힌 사연들도 있다。

식모살이로 반평생을 모은돈, 中東서 피땀흘려 번 송금, 퇴직금을 몽땅 날린 사람도 많았던것。

서울堂山洞 信宇아파트 李숙順씨(62)는 6·25때 남편을 잃고 30여년을 식모살이를 해 모은돈 8백여만원을 날렸다。

李씨는 그동안 남매를 키우고, 5년전에 타계한 시부모를 봉양하고도 푼푼이 계적금을 들어 8백만원을 모았는데 3월초 자신이 일하는 집주인(45)의 권유로 지난 8월6일「共구」(원리 2·2%)을 샀다가 변을당했다。李씨는『돈을 조금더 늘려 조그만 아파트한채를사 아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겠다고별러왔었는데…』하며 허탈해했다。

또 서울永登浦區延南洞 朴永子씨(38)는 남편이 中東에서 송금해온돈등 1천5백여만원을 날렸다。

맞벌이 하던 朴씨는 자신의 퇴직금 7백만원에다 친구돈 까지 합쳐 3천만원으로 共榮을 샀던것。

서울龍山區 龍山洞1街152 李周福씨(41)도 15년간 직장생활로 모은돈과 퇴직금등 1천5백만원을 날렸다。

노총각인 李씨는 처음에 증권투자를 위해 물색을 하다 자신이 없어 망설이던중 한 브로커의 소개로 共榮토건어음과 바꾸었다는것。

李씨는『張여인부부·은행·회사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한다지만 나같은 사람의 재산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민 계모임에도 영향

○…일선 경찰서의 경제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계직원들까지도 이 사건이 워낙 방대해서 도미노이론처럼 점점 아래로 번져 자신들도 바쁘게 될날이 멀지 않아 올것으로 예측하고있다。돈이란 것은 결국 서민들의 곗돈으로 만들어진것이 대부분으로 기업의 부도는 결국 주머니돈들의 계의 파탄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게 이들의 분석이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증권가격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큰불만을 표시하고있다。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국회답변에만 신경을 쓴다는게 이들의 불만이었는데 한 부자가는『전쟁중인데 야전최고사령관이 전투지휘는 하지않고 국회에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해명만 하고있는꼴』이라고 말하기도。

첫남편 金씨벼락부자

○…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씨(53)는 최대의 금융파동을 연출한 주인공張씨의 조역을 맡아왔던것으로 드러났다。

지난77년5월 張씨와 합의이혼한후 일정한 수입조차없이 어려운생활을하던金씨가 『쥐구멍에 햇볕들듯』 처지가 하루아침에 바뀐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것。

이때부터 어음할인등에 관계하여 약간의 돈을 모은 張씨가 金씨의 뒤를 돌봐주었다。검찰의 조사에도 金씨는 張씨로부터 79년5월에 현금 1억5천만원, 81년1월1일 1억원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큰덩어리말고도 수시로 오간 1백만원、1천만원대의 돈까지 합하면 그액수가 상당할것으로 말하고있다。

金씨와 張여인의 접촉은 張여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더욱 잦아졌는데 張여인이 李哲熙씨와 3번째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張여인의 실질적인 중개인역할을 도맡았다는것。

金씨는 張여인의 개인적인 일에 깊이 간여하면서 정확한 판단력과 숱한 정보등으로 張여인에게 많은 보탬을 가져다주었고 자신은 중간에서 얻어지는 커미션등으로 재산을 늘려왔다는것。

정체불명의 괴한들 협박

○…지난13일 사채업자 文준식씨(49)의 전화기 안에서 발견된 20억원짜리약속어음과 주식거래내역메모가張여인의 재산은닉과 어떤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밝혀지지않고있으나 어음을경찰에 신고했던 수리상 鄭모씨(40)가 정체불명의 괴한들로부터 협박전화를계속 받고있어 이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것이라는 심증을 굳혀주고있다。

鄭씨가 어음과 메모발견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대검중앙수사부에서 文씨와 가택수색한 다음날 문제의 文씨와는 사람이라고 밝힌 정체불명의 괴한이 어떤 사람인을 알고 멋대로 경찰에 알렸느냐。계속 입을 열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는것。

그런데 지난16일 어음발견사실이 한국일보에 특종기사로 보도되자 3차례

張女人 사건 수사 落穗

수장품 千여점 쌓여

○…李哲熙·張玲子부부가 그동안 사모은 고서화와 골동품은 모두1천여점。싯가1억2천만원을 호가한다는 以堂의 미인도, 5천만원짜리 고려청자、敎齋 雲南의 산수화、淸潭등 고승들의 글씨가 서울江南區淸潭洞58의2 이들의 집지하실과 창고에서 쏟아져나와 검찰의 재산감정 압수집행광경은 마치문화재발굴현장같았다。

그러나 서울지검 朴柱宣검사지휘로 한국고미술협회전문 감정사 20여명이 동원돼 감정한 결과 도자기 불상7백여점、서화3백여점등 80%가 가짜로밝혀져 張여인이 허영심에서 정확한 감정도없이 마구 사들였음이 드러났다。

張여인은 이들중 7백여점을 狎鷗亭洞 현대아파트 전H은행장 韓모씨(61) 집에 맡겨두었음이 밝혀져 모두 淸潭洞張여인 집으로 옮겨 감정했는데 관심이 컸던以堂의 미인도는 1억2천만원짜리가 아닌 단돈 20만원짜리 가짜였다。

田永采씨는 벼락富者돼

○…張여인사건으로 구속된 三扶토건자금부장 田永采씨(36)는 건설회사의 말단 경리사원으로 출발해서 불과 몇년 사이에 싯가 5억의 호화주택에 1백억대의 부동산과 현금을 장악한 사채시장의 큰별로 군림하게되었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충남 論山이 고향인 田씨는 15년전 三扶토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때만해도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빈손이었다。그의 터무니없는 축재는『돈줄』을 잡음으로써 가능했다。그는 입사 5년후에 재벌급인 S건설회장의 조카와 결혼,『일단 명목상으로나마 재벌의 일족에 끼게되었다。그는 78년께부터 부동산에 손을 대기시작, 80년까지 3년동안 江南區일대에서만 6번 이사를 했다。현재 張여인의 淸潭洞집은 田씨가 판것으로 기록에 남아있다。田씨는 부동산투기에서 모은 돈으로 사채시장으로 뛰어들면서 李哲熙·張玲子부부의 1급참모가 되었다。

張여인은 田씨에게 거액어음을 할인할때마다 3할이라는 높은 할인율을 떼어주었다。실제로 田씨가 張여인에게 할인해준 어음액면은 2천85억8천만원가량이며, 사채시장의 관례대로 따져도 田씨가 받은 수수료는 줄잡아 30억원이 넘을것으로 보인다。田씨는 李·張부부를 만난후로는 자신의 막강한배후를 회사내에서 과시하는 한편 淸潭洞 호화저택으로 사람을 자주 초청, 자신의 급성장을 은연중에 자랑하기도 했다。

田씨는 또 지난 2월말께는 회사부실금고에 보관중이던 1백돈쭝짜리 금괴 7개、미화 3만달러、돌반지 1백26개등을 도난당해 세상을 놀라게 했었다。이때 경찰은 田씨를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도했는데 이美貨는 張여인의 부탁으로 보관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張여인 古書畵·골동품 80%가 가짜

移民用으로 만든이름 金守哲
事件나자 李圭光씨는 兄에게 꾸중들어

나이보다 젊게보여 綻露

○…張玲子여인의 첫남편 金守哲씨는 본명이 『최우선』이며 나이도 호적상의 나이53세보다 어린 42세로 밝혀졌다。

金씨는 지난67년 매형金모씨가 사는 미국에 이민을가려고 매형의 친동생인것처럼 호적을 만들어 金守哲로 여권을 신청한뒤부터 『金守哲』로 행세해왔다는것。

이런 사실은 金씨가 검찰에 출두한뒤 수사관이『53세의 나이로 보기에 너무 젊다』고 묻자 무심코 본나이는 40대라고 대답했다가 사실이 드러난것이다。

審問엔 순순히 응해

○…李圭光씨를 심문한 검찰의 한 수사관은 李씨가 형인 李東씨(대한노인회장)로부터 평소 잘못을 일으키고 다닌다고 꾸중을 들었다고 전했다。

李씨는 이사건이 터지자 형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며 사람이 좋다보니 여러사람을 만나게되고 잘못을일으켜 꾸중을들었다고 말했다는것。

李씨는 비교적 순순히 심문에 응했으나 결정적인 부분에서는『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곤 했는데 같은 검찰청15층에서 조사중인 張玲子여인을 데려다 대질하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는것。

혼자 기다리다 連行당해

○…李圭光씨는 17일상오부터 서울 龍山區漢南洞726의111 힐사이드빌리지 B동3호 자택에서 대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받다 밤에 검찰청으로 연행됐다。

李씨집은 이날 낮부터 굳게 잠긴채 초인종을눌러도 응답이없었는데 하오9시께 검찰의 연행승용차가 은밀히 외등이켜지고 10분쯤뒤 서울1라5363호 마크Ⅳ승용차가 도착、2명의 수사관이 집관리인으로부터 신분확인을받은뒤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들어간뒤 낮부터 집안에서 조사해온듯한 젊은 수사관2명이 나와 대기하던 기자들을 막았고 곧 李씨가 따라나와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플래시를 피하며 수사관들의 승용차에 타고 검찰청으로 떠났다。

李씨의 부인 張星姬씨(50)는 검찰의 발표가있은뒤『절에나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가 李씨가 연행될때 가족은 없었다。

◇李圭光씨가 살았던 서울江南區方背洞 저택。빈집으로 남아 정적에 싸여있다。

張여인 오빠집도 텅텅

○…張여인 어음사기사건과 관련된 張여인의 오빠 張相偉씨(47)등 일가족 6명이 한달 이상 집을 비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張씨가 살고있던 서울鍾路區 平倉洞35의11 대지 1백50여평 건평 70여평이 넘는2층 양옥집은 지난 4월10일이후 빈집인채로 있는데 이웃들에 따르면 張씨일가족이 승용차에 자그마한 귀중품만 싣고 나간뒤 30대 남자관리인만이 가끔 들락거리고 있다는것。

한편 관할 平倉洞사무소에 의하면 張씨는 지난 80년 9월12일 서울 西大門區 忠正路2街 69의45 당시의 처가에서 전입해 왔으나 그후 무단전출한것으로 확인돼 현재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 최고중인데 5월말까지 퇴거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자동말소된다는것。

검은세단車 자주들락

○…李圭光씨는 78년9월부터 汝矣島한양아파트D동803호에서 6개월간 살다가 다시 삼부아파트11동81호로 들어가 20여일간 거처했고 79년3월 다시 한양아파트 D동1003호로 전세들어 80년10월25일까지 살았다。

李씨가 살던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에 의하면 李씨는 아침6시면 근처 골프장에서 연습한후 다시 골프장에 나갈만큼 운동에 열중했고 술을 마시지않아 밤늦게들어오는일도 없었다。

그러다 80년중순께부터는 검은 세단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것이다。

鑛振公은 겉으론 조용

○…李圭光씨가 2년동안 사장으로 재직했던 서울銅雀區新大方洞679의1 대한광업진흥공사본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표정。

2백50여명의 사원들은 18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부에서 수위에 이르기까지 李씨에 관한 이야기에는 함구하고 있다。

한 간부는『이 사건과 관련된 李씨의 행위는 우리회사와는 전혀 관련이없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印尼油田에도 관여

○…李圭光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22일간 광업진흥공사 시찰명목으로 인도네시아·영국·서독 3개국을 여행했다。

李사장은 인도네시아에들렀을때 서마두라해역 油田개발을 전담하기위해 설립된 코데코에너지 崔桂月사장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당시 이회사는 경영진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때여서 두사람 사이에는 깊은얘기가 오간것으로 알려지고있다。

離油國의 꿈을 안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있던 油田개발사업이 경영진간의 내분이 심화되자 급기야 지난5월7일 기존 경영진이 모두 퇴진하고 말았다。

경영진간의 분쟁은 이회사의 내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이 많아 경영진 퇴진이란 결정을 내리기까지 애를 먹었다。

이사는 자주 하는편

○…李圭光씨가 지난75년께부터 2년간 살았던 서울西大門區延禧2洞95의8에 있는 집은 대지와 건평이 각각 1백평이 넘는 2층양옥으로 값비싼 정원수가 가득차 있는 고급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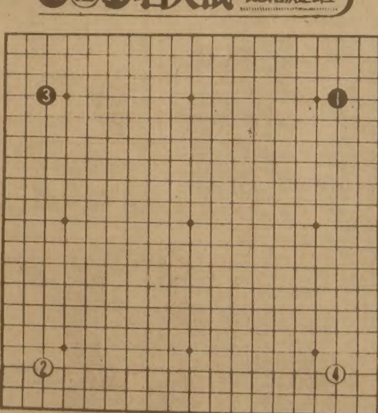
당시 李씨는 직업도 없이 불우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출퇴근을 거의 않고 이웃과도 내왕이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李씨는 77년10월26일 서울西大門區忠正路2街69의45에있는 단층양옥으로 이사했다가 보름후 汝矣島 화랑APT로 다시 옮겼었다。

제⑬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 第1譜 1～4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 (4勝1敗)
黑(4段) 姜勳 (4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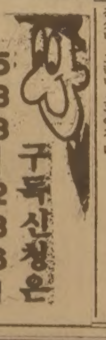


挑戰權 決定局

이번期 名人戰에서 기필코 도전권을 따내려는 姜4단의 결의는 자못 비장한 바가 있었다。근년에 와서 棋力이 충실해진 그는 뭇선배·동료를 앞질러 최정상(曹·徐)의 뒤를 바짝쫓으며 그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또 실제로도 覇王戰에서는 거푸 두차례나 曹薰鉉에 도전했다。비록 두번다 일방적으로 밀려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강인한투지와 승부사의 기백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움을 키우는가 싶어보였다。

『세번째는 꼭』 남몰래 결의에 찬 온힘을 기울인 보람으로 무선 본선리그에서 승승장구하여 4승무패。이미 1패를기록한 徐7단과의 최종결승을 유리한고지에서 맞이할 사정이 좋은 위치에 와있었다。즉 姜4단은 다음 5승0패、이에대한 徐7단은 4승1패인 까닭에 설령 한판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재결승을치를 여유가있었던것이다。

그런데 姜4단은 張6단과의 대국에 통지서를 받지못하고 날짜를 대지못했기때문에 본의아니게 부전패한 끝에 徐7단과 똑같은 성적으로 이번 마지막판에 임하게되었다。통지서를 못받은 까닭도 姜4단이 이번 대국을 중요시하고 혼자어느시골 한적한곳에서 휴양과 연구를 하려는 단단한 결의때문이었지만 연락처를 밝혀두지않은것이 중대한실책이었다。 【一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114>

明暗 ㊽

『번연 안해도 돼요。미스 최、난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사나를 보여줘도 상관없을만큼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었어요。그게 너무 일방적이었나 보죠?』

인재가 담담하게 그러나 섭섭한 마음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면서 말했다。

『아녜요。아녜요』

오목이가 무작정 도리질을 했다。

『뭐가 아녜요?』

『저도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저도 인재씨는 어떻게 사나 많이 궁금했어요』

오목이가 말을 마치고 발끝으로 방바닥을 직직 긋는 발장난을 했다。인재는 물끄러미 이 순진한 여자를 바라다봤다。술기운과 늘쩍지근한 욕망이 손끝만 까딱해도 굴러떨어질듯한 욕망을 차마 놓치고 싶지않게 했다。

『그럼 됐네 뭐。우리집에 먼저 초대할게요』

『언제 그래주시겠어요?』

오목이가 반색을 했다。

『언제라니 지금 당장이지』

『안돼요。이대로 어떻게…』

『내참 오늘 저녁엔 되는 노릇이라곤 없군』

인재가 벌컥 화를 냈다。

『화내지 말아요。이 꼴로 집안 어른들을 뵙순 없잖아요?』

오목이가 자기 옷차림을 살피면서 애걸하듯이 말했다。

『집안 어른? 아 내가 그 얘길 안했던가? 나 하숙하고 있어요。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잠깐 들러서 차나 한잔 하고가요』

인재는 그녀가 따라와도 안따라와도 그만이라는듯이 뒤도 안돌아보고 휘하니 앞장섰다。그러나 오목이가 타박타박 따라오는 소리를 들으며 팔팔 더운 침을 삼키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주인여자가 등뒤에 서있는 낯선 여자를 보자 뭐라고 한마디하려고 입을 빌쭉댔다。인재는 한눈을 꿈쩍하고 집게손가락으로 쉬이 자기 입을 막아보였다。주인여자는 재빨리 모든 것을 넘겨짚고 수다를 꾹 참고 더만 주저대며 비켜섰다。오목이가 주인여자에게 필요이상으로 깊이 허리를 구부려 인사하고 인재를 따라들어왔다。

인재는 방에 들어온 후 오목이를 데리고온 것을 전혀 개의치않고 마치 혼자인 것처럼 행동했다。옷을 바지까지 벗어젖고 후줄근한 파자마로 갈아입더니 담배를 한대 피어물었다。

오목이는 앉도 서도못하고 웃목 담벼락에 착싹 붙어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저녁은 어떡할까?』

그 시간에 저녁밥을 준적이 없는 주인여자가 이러면서 방문밖에서 엄씬거렸다。

『먹고 들어왔어요』

『그럼 차라도?』

『상관마세요』

오목이가 퍼뜩 놀라서 어쩔줄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들고있던 과일봉지에서 사과가 하나 데굴데굴 굴러떨어졌다。새빨간 홍옥이었다。인재는 그걸 집어서 무릎에 쓱쓱 문질러 윤을 내고는 버썩 한입 베어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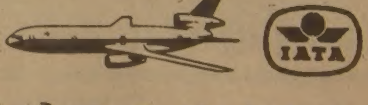
사과를 하나 다 먹는동안도 그는 그의 속에서 그를 터트릴듯이 아우성치는 걸 참아낼수가 없었다。그게 욕망인지 분노인지 그 자신도 분별할수 없는채 그는 거기 자신을 맡기기로 했다。

세상만사 될대로 바에 머 될까? 그는 덜 먹은 사과를 내던지고 웃목에선 오목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불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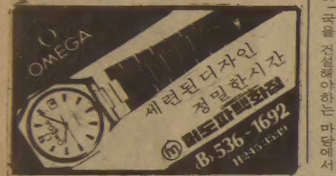
Rolls & Darlington
419 Coxwell Ave.
Toronto, Ont M4L 3B9
Tel.(416) 461－3555

5월24일은 빅토리아 날입니다.
저희는 5월23일(일요일) 그리고 24일(월요일) 오전9시에서 오후4시까지 문을여니 오서서 주문을 픽업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배달을 원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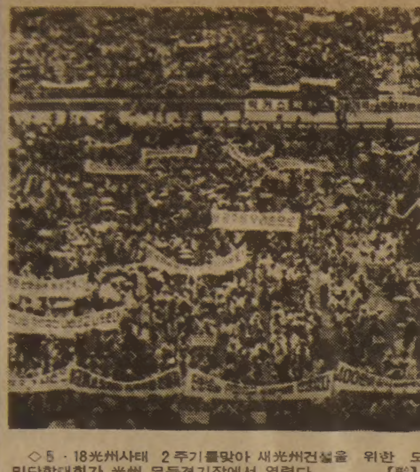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 6004
R) 293－ 9970



悲劇의 날을 跳躍의 날로

새光州건설 道民단합대회 20만참가


◇5·18光州사태 2주기를맞아 새光州건설을 위한 도민단합대회가 光州 무등경기장에서 열렸다. 【聯合】

"光州사태 政治的 이용말라"

【光州】4백만 光州시민과 全南도민은 5·18光州사태 두돌을 맞아 18일상오10시30분 光州무등경기장에서 「새 光州건설을 위한 도민단합대회」를 열고 이 비극의 날을 새光州도약의 날로 승화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20만 여명의 光州시민과 全南도민은『일부 불순종교세력들이 光州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기도 않은 光州사태를 여 光州인들로 하여금 두번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규탄하고『앞으로 光州는 光州인들의 손으로 키워 새시대에는 光州가 선두 주자로서 새시대 민족화합의 핵이되고 새 민족사 창조의 견인차가 될것』을 굳게 결의했다。

申泰浩 새光州건설추진도민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우리 4백만 光州인과 全南인들은 우리光州를 우리 스스로가 수호할 결의를 굳게 해 다시 혼란의 光州를 만들려는 무리들의 기도를 단호히 추방하자』고 촉구하고『오늘의 모임이 새시대 光州인과 全南인의 단합을 더욱 굳게 하고 새光州건설과 새光州수호의 결의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게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단체대표인 金重采 반공연맹 全南지부장은 궐기사인「우리의 다짐」을 통해『슬픈 과거를 씻고 밝은 미래를 향해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있는 우리에게 다시 옛상처를 건드리며 괴롭히는 무리들의 심사는 도대체 무엇때문이냐』고 반문했다。

또 시민대표인 李苑玉여학사회장은『일부 종교인들은 光州사태희생자 추모라는 미명아래 불화를 조장하고 나라의 안정을 저해하는 음흉한 작태를 이곳 光州에와서 서슴없이 벌여놓으려하고 있다』며『추모는 光州인이 하는것이므로 분쟁의 사도들은 잠들어가는 光州사태의 영혼들을 두번 일깨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학생대표 朴鍾訓군(全南大경영대학원)은『사회정의가 확립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새나라 새조국을 건설해야하는 마당에서 학생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음모도우리는 배격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대회는「전국민에게보내는 메시지」와「새時代先頭走者로서 光州의 발전、全南의 도약、조국의 번영을이 바지할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8개항의 결의문을채택했다。이어李宗哲군(朝鮮大)과 盧香德(松源전문대)이「우리도민은 안전과 평화를 갈구한다。새光州 건설하여 남북통일로 이어가자」는등 9개항의 구호를 제창한뒤 朝大부고악대의 주악에맞춰 송원여고합창단 5백여명과 도민들이「도민의 노래」를 제창한다음 만세삼창을 끝으로 폐회됐다。

「새 光州번영 基金」창설

【光州】전남도는 18일 새 光州건설과 관련、光州市를 포함한 도 전체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光州사태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새光州 번영기금」을 창설키로 했다。【聯合】

法律적용싸고 한때苦心

李圭光씨 檢察廳 12층서 하룻밤

檢察수뇌·搜查陣 전전긍긍

上部결의·「熱火여론」에 비지땀

검찰은 17일밤 李圭光씨를연행、18일하오알선수재혐의로 그를 구속하기까지 하룻사이에 상부의단호한 결의와 열화같은 여론에 쫓겨가며 비지땀을 흘렸다。17일밤 9시35분께 李씨를 연행한 직후부터 철야심문을 벌인 검찰은 18일상오까지만해도「딱떨어지는」혐의사실을 밝혀내지못하고 수뇌진이나 수사실무진이 모두 전전긍긍했다。당초 張여인으로부터 수억원짜리 저택을 증여받은 것을 법법으로 보았으나 법률상난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特加法위반… 알선受財 혐의

수사진전을 기자들이 알게된것은 18일하오3시30분께。총장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마주친 李種南 대검중앙수사부장은 기자들질문에 대꾸조차 않던 상오보다는 한결 밝은표정으로『영장은 하오6시께 접수될것같다』며 운을 뗐다。

李부장검사는 이어 혐의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특가법이다』고 대답했고『알선혐의냐』는 물음에는 빙그레웃으며 자신있는 표정으로『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대답했다。그는 張여인이 李씨에게 사준집이 方背洞집이라는 보도를 의식했음인지『淸潭洞에있는것』이라고 정정하면서 매입경위를 자세히부연설명하는 여유도 보였다。

한편 검찰이 상오중에긴장된 분위기였던것은 수사가지지부진해서라기 보다는 사실관계는 구속요건에 충분할만큼 밝혀냈으나「법률적용」문제를 놓고 고심했기때문이라는 관측도 없지는않다。

이에앞서 李씨를 철야심문한 辛建대검중앙수사부4과장은 상오9시30분께 鄭致根검찰총장에게 밤사이의 수사결과를 약5분가량 보고하고 나왔는데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으로 일관하며 총총히 12층 심문장소로 향했다。

또 검찰총장실에서 徐東權대검차장검사、李種南대검중앙수사부장등이 상오8시30분께부터 모여 숙의를 거듭했는데 흘러나오는소리가 없어 밤사이 수사결과를 알고싶어하는 기자들을 애태우게했다。

회의를 끝낸 鄭총장은 상오10시20분께 법무부로직행、李鐘元장관과 다시 1시간동안 숙의를거듭한후 집무실로 돌아와 辛建、鄭相明검사등을 불러 李씨의 구속영장신청에 따른 수사기록을 정리토록지시했다。

"왜왔는지 나도몰라"

李圭光씨 檢察에 소환되던날

辭表낸뒤 집에 蟄居 "張여인비호관계 말할수없다"

연행직전까지 檢察연막작전 부장檢事가 직접심문

17일밤 연행된 李圭光씨는 지금까지 구속된사람들이 모두 검찰청사맨위층인 15층에서 심문을 받은것과는 대조적으로 12층중앙수사부 4과장실에서 4과장 辛建부장검사가 직접심문했다。

한편 鄭致根검찰총장과 徐東權대검차장은 이날밤 11시40분과 45분 각각 청사를 나섰는데 이사건수사가 시작된이후 거의 매일 자정이 훨씬 넘어 귀가했던데 비해 이날은 퇴청시간이 너무 빠른감이 있어『귀가가아니고 고위층에 李씨에대한 수사보고를 하러가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했다。

이에앞서 두사람은 정오와 하오4시께 법무부를 다녀왔는데 이때 李鐘元장관에게구속된 두은행장이나 기업관계자수사에서 드러난 李씨의혐의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오3시께는 수사관계간부들이 모여있는 총장실로 인지보고서와 영장용지가 들어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보도진들은또다른사채업자가 구속되는것으로짐작했었다。

또 이날밤11시이후에 검찰에 국회의원K씨가 출두한다는 설이 나돌아 검찰구내로 승용차가 들어올때마다 카메라플래시를 터뜨리는 촌극을 빚었다。

李圭光씨는 이날 하오9시34분께 검찰수사관에게 팔을 잡힌채 서울1라5363호 마크Ⅳ승용차를타고 대검에 도착、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대검중앙수사부로 올라갔다。

검은색 양복에 갈색넥타이를 맨 李씨는『전에 조사받은 일은 없다』면서『왜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수사관이 漢南洞집으로찾아와함께 왔을뿐』이라고말했다。

李씨는 보도진들이몰려 플래시를터뜨렸으나 초초해하는 기색없이 태연한 모습이었고 간간이 웃음을 띠는 여유도 보였다。

수사관의 안내를받아 엘리베이터에탄 李씨는 함께탄본사기자의 질문에 차분하게대답했다。

—자진출두했는가。

▲수사관 1명이 漢南洞집으로 찾아와 검찰승용차편으로 왔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가。

▲광업진흥공사에 사표를 낸뒤부터 계속 집에있었다。

—張여인의 배후 비호세력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받기전이라 무어라고 말할수 없다。

—張여인의 비행을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이미알고 신고를 했다는데…。

▲조사를 받기전이라 아직 말할수 없다。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알고있는가。

▲李씨는 이 질문에대해선 아무런 대답을않고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자 동행한 수사관을 뒤따라 내렸다。

李씨가 들어간뒤 중앙수사부의 문은 굳게 잠겼고 검찰청 수위실에서도 출입을막았다。

空軍지휘관 會議

공군지휘관회의가 18일 상오 공군본부회의실에서 전부지휘관및 본부참모들이참석한 가운데 李喜根참모총장주재로 열렸다。

이날 지휘관회의에서는 북괴가 공격용비행기로 방공망을 피하여 해상이나 산간등에 게릴라를 투입할가능성을 감안、이에대한 방어대책이 논의됐다。

板門店 군사停戰委 어제屍體1具인도

高城침투 射殺 북괴武裝공비

18일 하오5시 板門店에서 열린 군사정전위 4백65차비서장회의에서 유엔군측은 북괴군시체 1구를 공산측에인계했다。

이시체는 지난 15일 새벽 동해안 高城지역에 침투했다가 사살된 무장공비로 공산측이 유엔측으로부터 북괴군의 시체를 인도받기는 휴전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反政府 교내示威 高大生 5명拘束

서울城北경찰서는 18일 高麗大 朴潤吉(22·국문과4년) 金慧榮(22·신방과4년) 李禧京(22·사학과4년) 宋在石(22·수학과3년) 哲俊군(21·불문과2년)등 5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14일 낮12시55분께 高大학생회관4층 난간에서 유인물 2백여장을뿌린뒤 학생들을선동、30분동안반정부교내시위를주동한 혐의。

무허 幼兒教育기관 陽性化하기로

【大邱·光州】정부의 유아교육확대조치에 따라 慶北및 全南道교위는 무허가유아교육기관을 양성화해주기로 했다。

18일 慶北道교위에 따르면 각종유아교육기관이무자격교사를 임용했을경우 이달말까지 유자격교사를 임용한다는 조건으로 인가해주고 시설완화기준에도 미달되는 유아교육기관도 시설보완조건으로 각각 인가해준다는것。

한편 全南道교위도 음악·미술·태권도등 예체능계 학원 유치부와 종교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 각종선교원 골목유치원등 유치원과 유사한형태로 운영하고있는 무인가유아교육기관을 시설보완과 유자격교사를 임용하는 조건으로 오는31일까지 인가해주기로했다。【聯合】

올해管井60개 개발 2천만원 투입

【蔚珍】蔚珍郡은 한해상습지구를 없애기위해 올해 관정60개소를 개발했다。

18일 蔚珍군에 따르면 蔚珍읍花城리등 한해상습지구 60개소에 1천9백45만원을 들여 관정60공을 팠다는것。

지난2월20일 착공、이번에 준공을 본 관정들은 2인치 파이프에 경운기 동력이나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루 1개소에서 50톤의 지하수를 퍼올릴수있게돼 30ha의 수리불안전답을몽리케됐다。【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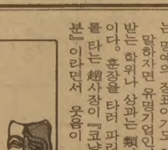
動章중의 훈장

佛「레지옹돈뇌르」받는 趙重勳사장

한국인榮譽·KAL慶事"코냑 취한기분"

趙重勳대한항공사장 (62·사진)이 프랑스 정부로부터「레지옹 돈뇌르」훈장을 받는다。영국의 빅토리아 훈장과 더불어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성의 훈장으로 프랑스의 국가적 영웅이나 노벨수상자、장관、또는 강대국의 대사등이나 넘보는 영예의 상징이다。콧대높은 프랑스인도「수훈자」라는 사실만 알면 한번 더 쳐다본다는 명예의 징표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유명기업인이 해외에서 받는 학위나 상과는 類가 다른 것이다。훈장을 타러 파리행 비행기를 타는 趙사장이『코냑에 취한 기분』이라면서 웃음이 헤펐던것이 요즘 KAL의 화제。



趙사장은 파리를 노상 드나들며 알게 모르게 민간외교를 많이 했다。미테랑 정부가 趙사장 덕분으로 프랑스도 유익했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크게는 한국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것으로 볼수도 있어 개인적인 경사만도 아닌듯 하다。프랑스語를 모르지만 趙사장은 파리에서 연 1백일을 지내면서 활동에 불편한점이 없다고 한다。「파리의 분위기」를 즐기는것 같다는것이 측근의 귀띔。그래서 서울에 있는 프랑스대사는 자주 趙사장의 특별 초대손님이 된다。

그런저런「인연」이 모여 趙사장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이나 TGV(고속전철) 개통식 같은 국가적행사에 특별손님으로 참석하는 한국측 VIP가 돼왔다。

趙사장은 타고난 운수업자다。1m62㎝의 단신에 네모진 얼굴에서 언제나 땀내를 느끼게한다。격납고나 비행기 배밑을 멋장이 간부들과 점검할때는 사장같지가 않고 실무책임자인상이다。

韓進운수그룹의 회장이면서「KAL사장」이라 불리는것을 더욱좋아한다。다른기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주지만 KAL업무만은 기내식반찬까지 귀찮을 정도로 간섭한다。

보잘것없는 국영항공을 인수한지 15년만에 趙사장은「무식하리만치」KAL을 성장시켜 놓았다。

몇년전 점보기가 불타고 적자폭이 4백억이 넘었을때 풀죽은 간부앞에서『걱정마라。점보하나 팔면 해결된다』고 나름대로 땅딸한 포도 됐졌다。

모든 운수업자가 그렇듯이 그도 점보기앞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비행기와 승객의 안전」을 빈다。「노가다」대장의「훈장」에는「큰나라」와「전통으로 사는 나라」와의 앙상블이 있다。

【金首宗기자】

20만원券 위조通常換 대량發見 피해잇달아

20만원권 위조통상환증서가 시중에서 잇따라 발견돼 피해자가 늘고있다。

18일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4일 서울中區山林洞 대원상사가 물건을 팔고 받은 20만원권정액통상환증서가 서울중앙우체국에 지급을 청구한결과 가짜로 관명된것을비롯 이날까지 모두 13장이 발견됐다는것。

이위조장상환증서는 체신부가 발행하지도않는 정액20만원권으로 테두리가 체신부발행증서와 다르고 모조지에 황색무늬색을 인쇄、특수전산지에 미색으로 인쇄한 체신부발행증서와는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수 있다。

◇朴尙恩양 살해사건 범행에 사용됐다는 서울2마4649호 승용차。현장검증에나온 鄭載巴군이 차속을 들여다보며 설명하고있다。

家族계획 무료施術 30代주부 70%차지

【江陵】대한가족계획협회江原도지부는 17일 江陵市보건소에서 가족계획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무료복강경수술과 정관수술을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가족계획사업에서는 예년의 50명보다 60%가 많은 80명이 몰려 수술을 받았는데 이중30대주부들이 70%나 차지、조기가족계획을 희망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30대주부 孫모씨 (35·江陵市洪濟洞)는『봉사의료반이 자주 순회진료및 수술을 실시하면 더 많은 주부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텐데 1년에 1회정도밖에 실시하지않아 미처 이사실을 모르는 주부들은 혜택을 받지못하고있다』고 밝혔다。【聯合】

朴尙恩양 被殺 어제 現場검증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在巴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梁基俊부장판사)의 현장검증이 18일하오 2시부터 4시간에걸쳐 서울江南區驛三洞635의5 鄭피고인 집과 삼정장여관부근 피살현장동지에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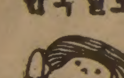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날현장검증에서 재판부는 鄭피고인이사용한 서울2마4649호 포니승용차를동원、鄭피고인이尙恩양을 때렸을경우 시트커버에 생길수있는 혈흔과 鄭피고인이 운전석에앉은채 尙恩양의 안면을 때리고 안전벨트로 목을감은뒤 손으로눌러 숨지게했을 가능성에대해 조사를했다。

高麗 銅鏡발견 光州원효寺 工事場

【光州】고려시대에 만들어진것으로 보이는 동경(銅鏡) 2점과 신라말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와당편(瓦當片)·고려청자·이조백자편등이18일 光州市北區金谷洞 무등산중턱의 원효사 복원공사장에서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동경은 지름23·7㎝의 쌍용문경(雙龍紋鏡)과 지름17·8㎝의 소문경이며 와당편에는 신라시대부터 전승돼온 양식인 연화·운와당편및 蕃자가 새겨져있다。

이들은 지난80년부터 대웅전등의 복원공사를 해온 원효사관음전 기초작업장에서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원효사의 시대적 배경과 규모등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있다。【聯合】

한국일보

533·2361

깜빡 죽여주는 해장국이 드디어 나타났읍니다.

◐개시일 : 4월29일(목)부터
◐가격 : 5불 50

정말 맛있는것 같애요…

맛으로 해결해 드리는 —<순대도 있읍니다>

한국관 대표:나옥녀
•영업시간• 오전9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시오。옛날식으로 햄버거를 만들지 않은게 틀림없오"

"옛날처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햄버거맛은 엉터리란 말이요!"

"그게 바로 옛날식으로 만들었기때문이죠"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棋界의 맞수」 다시 激突

名人戰 오늘 第1局…戰況예진

바둑소식

한국일보社 주최 한국기원주관의 제13기 名人戰도전5번기 제1국이 19일운당여관에서 曺薰鉉名人(29)과 徐奉洙7단(29) 간에벌어진다.

이 대국은 최근들어 9단으로 승단한데다 國棋戰타이틀을 쟁취, 6관왕이된 曺名人과 「名人戰의 사나이」로 통하는 徐7단의대국이란 점뿐아니라 曺9단의 독주가 가능한가를점칠수있는 대국으로서 기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曺9단은 최근들어 승승장구하는것 같지만 금년들어 徐7단과의 전적은 7전3승4패로 뒤져있는 상태。더우기 天下再統一의 마지막 관문인 王位戰의도전7번기에서 4월29일 제1국을 집흑으로 불계패한데다 11일 제2국도 집백으로 4호반을져 2連敗를 기록하고있다.

曺名人은 지난 80년 7월 제11기 名人戰에서 徐奉洙7단에게 타이틀을 빼앗음으로써 全冠王이 됐으나 그해 12월 王位戰타이틀을 뺏긴것을 신호로 最高位·國棋位등을 잇달아 내줬다。曺名人은 徐7단에게 다시 반격을 개시, 最高位·國棋位를 빼앗고 王位戰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가 19일 名人戰에서 적돌을 하게 된것。

기사들은 名人戰에서 두 기사가 일진일퇴의 명승부를 펼칠것으로 전망하고있다。제비같이 날렵한 曺名人의 기풍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들은 간발의 차이로 曺名人이 名人位를지킬것으로 내다본데 비해 순국산 徐奉洙王位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徐도전자가 「名人戰의 사나이」답게 잃었던 名人城을 되찾을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국내최초의 入神(9단)이 되어 도처에서 축하받기바쁜 曺名人이 풀려진 마음을 조이지않을경우 王位戰1、2국처럼 名人戰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을것 같다.

이런 것을 의식했음인지 曺名人은 이번 대국에 극히 신중히 임하고있다.

그는 지난13일부터 16일까지 金寅8단、白成豪5단등과 智異山을 다녀옴으로써 최근 승단에따라 이완된 마음을바로잡고있다。『승단 그자체가 우선정신적인 평정을 깼으며 그로 인한 각종의 축하도 바둑에 영향을 주었다。이제평정한 마음으로 최선을다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이겨 페이스를 되찾을경우 그결과는 名人戰에 그치지 않을것이다。현재 2국이끝난 王位戰은 국내의 기전으로는드물게 7번기여서 2연패정도는 얼마든지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曺薰鉉 名人

◇徐奉洙 7단

曺薰鉉名人、國棋位 되찾은 여세 入神의 貫祿으로 앞서

王位戰 連勝 기세冲天 徐奉洙도전자 올들어 勝率 높아

趙治勳、日 名人戰서도 難敵 고바야시의 挑戰받을듯

○…지난3일 名人戰본선에서 徐奉洙王位와 도전권을 다투다패한 姜勳4단이 14일의 제22기 最高位戰3국에서는 徐奉洙7단을 물리쳐 설욕을했다。이날 姜4단은 집백으로 256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으며 徐7단은 最高位戰의 규정에따라 패자전에서 재기를 노리게됐다.

이날 대국을 지켜본 주위사람들은 『姜勳4단이 張秀英6단에게 불계패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한판을더 둘수 있었기 때문에 名人戰의 도전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다。이판을 이긴 것이 그증거다』면서불계패를 당한 姜4단의불운을 아쉬워했다.

○…趙治勳4관왕에게가장 거북한 상대인 고바야시(小林光一)9단은 本因坊戰의 도전권을 따냈을뿐아니라 名人戰에서도도전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고바야시9단은 제7기名人戰본선 리그전에는林海峰9단등에게 뒤졌으나 후반들어 만회, 현재 4승1패로 林9단과 오오다께(大竹英雄)9단의 3승1패를 앞지르고 있다。고바야시9단은 원래 3승1패로 동률이었으나 최근시마무라(島村)9단이 병으로 기권한바람에 부전승을 거두었다.

趙名人과 고바야시9단은 또 오오다께9단이 타이틀을 가지고있는 제7기 十段戰의 도전자리를두고 맞붙을 가능성이많다。고바야시9단은 지난 6일가또(加藤正夫)9단과의 준결승에서 백으로 불계승을거두고 결승에 올랐으며 趙9단은 다께미야(武宮正樹)9단과의 준결승을 남기고있어 두라이벌이 결승에서 맞붙을확률은 50%이상이라고 일본 바둑계는 전망。【梁平기자】

나의 이력서

金蘇東 ㊻

映畵제작 직접참여

各種機材 마련위해 곤욕

科學徒들모아 部品 組立

김구、김규식、이범석、김홍일등 해외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싸웠던 애국지사들이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왔다。김홍일장군을 맞아 몇몇동료들과 충무로2가에 있는 새로생긴 요정에서 환영의 밤을마련했다。고국을 등지고 중국대륙으로 떠나던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나는듯 그는 조용히 지나간날의 유행가 한귀절을 생각나는대로 불렀다。「기차는 떠나간다 보슬비를 헤치고、정든땅 뒤에두고 떠나는님이여、간다면 아주가나 아주간들 잊으랴、밤마다 꿈속에서 울면서 살아요」고국을 떠날때의 서글픈 기억이 어제 같다고했다。해방후 가장 인상깊고 추억에 남는 시간이다.

더구나 1946년이 밝았다。모든구속과 압제에서 풀려난 심정은 자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혼돈같은 것을 느꼈다。그러나 나는 자유스럽게 내가 가야할 영화의 길로 매진할 것을 결심했다。문앞에 「코리아·시네 클럽」이란 간판을 내걸었다。동호인을 모아서 영화창작을 마음놓고 해볼 계획이었다。이웃에 살던 언론인(鄭寅翼씨 자유신문 주필·납북)가 「시네」라는 게뭐냐고 물었다。「활동사진」이라고 했더니 문화면에 꼭 소개하겠다고 했다.

대한통참 전충식과 상공부 통역관으로 있는 박용기를 만났다。이들은 내 소망을 자세히 듣고 며칠후에 적산건물하나를 나에게 알선해줬다。을지로2가에 있는 소화생명보험회사의 3층건물이 곧 그것이다。내 영화생활이 비로소 출범한 것이다.

이제 마음놓고 우리영화를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또 우리영화가 무성영화일수도 없다。일본에는 토키초기에 PCL(사진化學연구소)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일본의 발성영화를 개척했다。나는 MSL(映畵科學研究所)을 설립하고 간판을 걸었다。日人들이 쓰고 남은 기재는 낡고、녹쓴 고물들이다。생필름은 물론없고 모든 기자재는 그나마 완전한것이 거의 없는 상태다。조선총독부 영화과에 남은 것들과 광희동에있는 경성녹음현상소의 기재들이 유일한 제작시설이다.

당시 한국의 영화는 마치 쓰레기통속에 버려진 한송이 장미꽃과도 같았다。어린 묘목을 다시심고、물과 비료를 주어서 가꾸고、키워서 꽃을 피게해야 한다。우선 토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름난·기재난도 극복해야 했지만 녹음기술이 선결문제였다。영화과학연구소는 이런 녹음기술연구에 그 목적을 둔것이다.

학구적인 태도로 녹음기술을 연구하는 기사 조종국(趙琮國)을 중심으로해서 몇몇 과학도들이 모였다。두들기고、잘라내고、갈고、붙이고 또 광학기구와 앰프리파이어를 분해하고、조립하는등 녹음기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갔다。필름은 비용이 필요했다。광양、진남포、서선조합협정에 전재산을 털어넣고 남북이 가로막히니 자금조달은 사실상 내 혼자만이 겪어야하는 고민이다。당시 군정청문교부장관은 유억겸선생이었으나 실권행사는 루카드고문이었다。이 루카드고문은 당시 나와는 상당히 친교가 있던 사람이다。어느날 그는 유장관을 내사무실에 보냈다。「선생님이 왜 몸소오십니까。군정이라곤 하지만 장관의 체모가 이게 뭡니까」했더니、이사람아 가서 직접 상의하라기에 왔지、어떠허냐 하며 힘없이 대답했다.

용건이란 16밀리로 교육영화를 만드는 일과 슬라이드 환등필름을 만드는 일、아울러 환등기를 전국 국민학교에 배급할 계획이니 그것을 제작해 달라는 것이다。그 막대한 연구비를 [illegible] 후 이러한 일들은 계속 되었고 기도했다.

아동들을 위한 도서출판을 의뢰받았다。이숍이야기 동화책도 발간했다。상공부에서 출판을 위한 다량의 모조지와 아트지도 배급받았다。그래서 시청각교육을 위주로한 사업으로 「교육연구사」라는 간판도 내걸었다。이렇게해서 얻은 자금은 모두 녹음기연구와 생필름구입에 지출됐다。그런대로 영화과학연구소는 유지됐고 외부로부터의 현상의뢰도 폐담이 들어왔다。촬영기사 金正煥(납북)、녹음기사 조종국、현상담당 金學成(감독·작고)、오철(전 육군사진과장)이민、미술 [illegible]、조종민동제씨들이 당시 한국영화재건을위해 공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연구는 커다란 암초에 부딪쳤다。녹음기의 심장부인 광도 같은 가르바노메타를 구할 길이 없었다。궁리끝에 착상한 것이 현미경에 사용되는 카버글라스다。얇고 가볍고 또 표면이 완전한 만큼 편리한 이 카버글라스에 수은을 입혀서 미러를 만들었다。훌륭한 대용으로 쓴 이 가르바노메타가 탄생된 셈이다。해방후 처음으로 녹음할수있는 길을 우리손으로 개척했다는 점에 용기가 생겼고 또 자부심도 생겼다。이 녹음기를 처음 쓰고 연출한 것이 내가 각본을 쓰고 연출한 「모란등기」다。MSL제1회작품 「모란등기」는 이런 경위에서 내 자신이 직접 제작했고 또 기도했다.

◇映畵과학연구소 운영시절의 필자(右)와 조감독으로 일했던 아우 漢日(左)。

◇都心빌딩위에 스키場

東京의 새명물 인공스키·슬로프。최근 東京호텔 4층 테라스에 인공슬로프를 설치、한여름에도 스키를 즐길수있게 되었다。【星條紙】

記者의 눈

禁煙과 手當

직장에서 바쁜일손을 잠깐 놓고 담배한모금을 즐기는 것은 애연가들의 작은 즐거움중의 하나다.

그러나 날로 확대되어가고있는 금연주의자들의 세력은 드디어 직장에서의 이러한 자유마저 위태롭게 하고있다.

금연권을 주장하는 금연주의자들의 「극성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이미 공공장소나 항공、철도、버스등에 금연석이설치되고 일부개인기업에서는 사무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과하거나 아예 재떨이 자체를 없애버리는등 묘안이 속출하고있다。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나아가 담배를 피우지않는 사람들에게 금연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나타났다.

금연수당의 지급근거를 보면 담배한개비 피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5분으로 잡고 하루 8개비를 기준、한달을 25일로계산하면 한달에 1천分이되는데 이시간동안 금연자들은 일을했으므로 1천分에 해당하는 수당을 준다는것。이 계산에 따라 고오베市의 요시오까흥업에서는 남자는 2만8천엔(약7만원) 여자는 2만엔가량의 금연수당을받는다는것。그러나 만약 금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적발될때는 수당의 2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금연수당의 아이디어를 창안한 요시오까社長은 禁煙이 건강에 좋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연수당을 지급한 뒤에는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사원 50여명중 단5명에 불과하다고자랑했다。담배가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것은 분명한사실로밝혀지고있다。그래서 요즘 담배를끊는 사람이 늘고있고 금연에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있다。그러나 금연과 수당을직접 연결시킨 것은 「經濟의 나라」일본에서의 일이라 하더라도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긴다。금연자들의 금연權이 중요하다면 경제적 손실까지도 감수하며 담배를 계속 피우는 5명의 골초들의흡연權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것인지 【朴永喆기자】

水準낮은 東南亞에 1陣보내야만 하나

킹스컵蹴球결승 한국、泰A에 勝負킥敗 씁쓸

세 「代表선수」失蹴 비난 못면해

거친매너등 배울것도 없어 차라리 西歐·中南美와 자주

한국대표축구팀은 17일밤 열린 제15회킹스컵쟁탈국제축구대회 결승전서 泰國A팀에게 승부킥 4—3으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攻守의 교량역할을해온 趙廣來가 前게임서 경고를받아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2차례나 3—0으로 한국에 무릎을 꿇었던 泰國A팀에게 킹스컵을 내준것은 석연치 않으며 국내축구팬들에게 큰실망을주었다。특히 승패가결정되는 중요한 승부킥고비에서 한국대표팀의 에이스 崔淳鎬 李康助 丁海遠이 어이없게실축, 우승을 놓친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일부러 골문밖으로 볼을 차지야않았겠지만 대표선수들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

重要한 게임 첩첩 長·短期채비 절실

무더위와 부상、連戰의 피로때문에 기량을 충분히발휘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정도의차가 있을뿐 피로한것은 다른팀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불리한여건을패인으로내세울수는없다.

한국축구가 킹스컵 단골우승국으로 지칭되던것도옛말。지난해 남북대결서의 실패를설욕하기위해 올해에는 대표팀이 출전했으나 우승을못해결과적으로 3流대회서 망신만 당한 셈이되었다.

泰國은 킹스컵대회서 우승하기위해 국제대회로는유례를찾기어려운 변칙적인 대회운영(예선、2차리그、준결승1、2차전、결승)을 시도했고, 17일결승전서 崔淳鎬의 후반득점을 오프사이드라고 하여 노골로 선언 하는등 노골적으로 텃세판정을 서슴지 않았다.

외교적인 명분론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대표팀이 킹스컵 대회에 출전하여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게 국내 축구계의 지배적 의견이다。한국 대표팀의 전력 향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앞으로 수준 낮은 동남아 지역 대회에는 대표 1陣을 내보내지 말아야 하며、승패를 초월하여 유럽 중남미의 강팀들과 자주 부딪치게 해야 하겠다。큰 이득도 없는 대회에 대표선수들을 내보내 그들의 권태감과 부상만 가중 시켜준다면 문제가 아닐수없다.

한국대표팀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오는11월 아시안게임서 우승을 차지하는것이며 장기적으로는 LA 올림픽예선과 86년 월드컵 예선전을 통과하고 88서울올림픽서 훌륭한 성적을 올리는일이다。지금과 같은 안이한 대표팀관리로는 목표달성이 아득해 보인다。金正男 金鎬坤 코칭스태프도 심기일전、매너리즘에 빠진 선수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오는 6월5일 개막되는 대통령컵 국제대회 때에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하겠다.

윈드서퍼 權熙凡씨 도버해협 도전실패

佛서선박고장 撤收

【파리=金聖佑특파원】 한국인으로는 처음 도버해협에 도전했던 윈드서퍼 權熙凡씨(29)가 1차 횡단도전에실패、11일 출발예정지인 프랑스의 칼레에서 철수했다。權씨는 지난3일 횡단에나설 예정이었으나 악천후로 7일로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에스코트에 사용될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횡단을일단포기、오는 7월에 재도전키로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流星의 賊 <386>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男名天下에 떨치다 ④

『무슨 좋은 수가 있단 말요』
영산(影山)이 물었다.
입화 대답하길—
『나는 출전하지 못하지만 부하들을 시켜 관교산을 봉쇄하리다。그렇게 해 놓으면 홍계남이 안성과 연락을 못하게 될 것이 아니오。귀하는 걱정 없이 안성을 공략하여 계남의 아버지를 사로잡게될것이오』
영산은 입화의 책략이 매우 좋다고 하고 작전을 시작할 일시를 정하고 상호간의 암호도 교환했다.
관교산을 봉쇄하는 작전이 성공했을경우의 암호는 「고기가 그물에 들었다」로 하고, 안성 공략을 시작했다는 암호는 「기러기가 날았다」로, 홍계남의 부친을사로잡았을 경우는 「호랑이 잡았다」로 각각 정했다.
『그러나 아무조록 사로 잡도록 하시오。죽여버려선 책략을 쓸 수 없을테니 말요。』
하고 입화가 말을 보탰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간 말뒤끝은—
『아무래도 이번 전쟁은 잘못 시작한것 같구려』
『입화공、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명나라 병사가 들어왔다고도 하고 들어온다고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늪(沼)에 빠지는 꼴로밖에 아니겠소』
『그래서 소서행장은 열심히 화의(和議)를 추진중인 것 같은데 조선이 불응하고 있다는 거요』
『도대체 조선은 뭣을 믿고 버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버텨만 하지。우리가 현재 이기고 있다고 하나 실속이 뭐 있거나 하오? 나는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드오。수군은 절단이 났지、각지에서 의병이일어나지。두고 보시오。앞으로 점점 어려워질꺼야』
『겁나는 건 의병이오。관군은 형편이 없는데 의병들은 만만치 않거던。현재 우리가 홍계남에게 절절 매고 있지않소。그런 장수가 열명쯤만 있으면 우리 큰일 날뻔 하잖았소』
『남쪽에 곽재우(郭再祐)란 의병장이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도 가히 명장이라고 할만 하다던데요』
『이나라에 와보고 느낀 것은 배신들은 대체로 훌륭한 것 같은데 조정이 너무 썩어 있다는 사실이오』
『문약(文弱)한 인간들이 조정을 차지하고 서로 당파 싸움만 한다면요』
『들려오는 소릴 들으니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서는 매일 싸움질만 한다는 것이고, 관군과 의병 사이에도 뜻이 맞지 않아 서로 [illegible]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도 백성이 의병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로 놀랄만한 민족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구료』
『우리 나라의 농부들 같으면 꿈쩍없이 승리군(勝利軍)앞에 순종하고 말텐데』
『여자들도 그래요。객고도 풀 겸 기생 몇을 잡아 오라고 했더니 하나는 약을 먹고 죽었고、하나는 목을 매어 죽었소』
입화가 이렇게 말하자 영삼은 빙그레 웃었다.
『입화공은 왜 하필 그런 여자만을 골랐소。나도 재고를 쓴적이 있소만 좋기만 합디다』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May 3 - May 29

Y & S Twizzler Red	70x5 ¢	$ 1.75
Maynard Wine Gums		4.29
Tootsie Roll	36x40	8.69
Planters Peanuts	27x40	6.35
Neilson Family Bar	24x99	14.59
Neilson Jerry Milk thick Bar	36x55	13.25
Allens Billy (Red&Black)	48x10	3.16
Allens Lacs	60x 5	1.99
Allens Ribbons	48x10	3.15
Allens Koo Koo	48x10	3.15
Lotsa Fizz	36x25	5.89
Wilson pop		5.39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Wor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y16(일) 8:00a.m.-2p.m. May22(토) 8:00a.m.-1p.m.
May23(일) 8:00a.m.-2p.m. May(Victoria day) 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DUFFERIN / CALEDONIA / KEELE / LAWRENCE

토론토 한인합창단

자선 음악회

본 토론토한인합창단은 세계각처(특히 아프리카)에서 굶어죽어가는 기아민을 돕기위한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면서 교포여러분의왕림을 바랍니다.

※입장은 무료이나 8세이하의 어린이들은 사절합니다.

연주자 : 이주연(소프라노)
송영철(바이올린)
한인합창단(합창)
박재훈(지휘)
고희경(피아노반주)

일시 : 1982년6월5일(토요일) 저녁8시
장소 : 한인연합교회(300Bloor St. W.)

후원 : 캐나다선명회

주최 : 한인합창단이사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李圭光씨 拘束

張女人사건 背後관계 드러나

邊康雨(共榮) 朱昌均(日新)회장 收監

李哲熙·張玲子씨부부 거액 어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17일밤 이번 사건의 배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 張여인의 형부인 李圭光전광업진흥공사사장을 소환조사 한끝에 사건의 배후관련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관계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과 16일 은행관계자 기업체간부·사채업자등 15명을 구속,「금융부조리및 어음 사기부분에대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짓고「자금도피와 은닉」,「배후세력」조사에 총력을 돌리고 있는데 우선 李씨가 張여인 사기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있는지, 李씨부부의 재산관리와 연관이 있는지, 李씨 자신도 사채업계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단한다는 고위층방침에 따라 李圭光씨가 이번사건에 직접 관련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수사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張여인의 형부인 李씨가 지난2월중순 朝興은행장 林在璓씨를 두번 만난 사실을 밝혀내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와 張여인이 마련한 파티에 李씨가 자주 참석했다는 점등으로 張여인이 李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자신의 어음거래등에 李씨의 힘을 빌었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기업체의 간부들이 政界와의 관계를 과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항간에 떠도는 특수자금유출설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

자금 海外도피·은닉財産 계속추적
貸出할때 經濟공무원 관련도 수사
두銀行長 收賄額 2억원臺로 늘어

檢察

검찰은 15일하오 林在璓전조흥은행장 孔德鍾전상업은행장등 은행관계자 6명과 사채업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16일하오에는 日新제강 朱昌均전회장(61)을 배임증뢰혐의로, 裵吉勳사장(35)을 부정수표단속법, 共榮토건의 邊康雨전회장(47) 邊泰洙상무(48) 金東羲감사(47)등 3명을 업무상횡령및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張씨의 첫남편 金守哲씨(53·서울汝矣島洞화랑아파트1동601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탈세)혐의로 구속했다.

15일구속된 사채업자는 張여인의 증권하수인 金鍾茂씨(45·대동신용금고감사)외에 田永采씨(36·三扶토건자금부장) 郭慶培씨(35·도진실업대표)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번사건과 관련 구속된 사람은 李·張씨부부외에 은행관계자6명, 사채업자3명, 관련기업체 경영진5명, 張씨의 첫남편등 모두 17명이됐다.

日新제강회장 朱昌均씨는 79년5월이후 상업은행이 日新제강을 부실업체로평가, 자금의 대출을 거부하자 회유하기위해 상업은행장 孔씨를 찾아가 5차례에걸쳐 모두5천만원을 주었고 82년4월중순께부터 수표결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액면가 8억6천1백만원의 당좌수표6장을 발행, 부도를낸 혐의이다.

邊康雨·邊泰洙·金東羲씨등은 지난해 2월26일~9월23일사이에 李씨부부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모두 2백억원을차용했고모두4백억원어치(邊康雨씨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지난 3월3일에는 邊康雨씨등이 李씨부부에게 8백95억원어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며 3월9일에는 共榮토건명의로 모두 3백20억원짜리 은행도 약속어음10장을발행, 張여인에게 전달했다는 것.

전朝興은행장 林씨는 日新제강과 共榮토건이 자금사정이나빠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張여인으로부터 1억5천만원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1백50장)의 뇌물을받고 두회사에 7백33억원을 부당대출, 은행에 손해를 끼쳤으며 전상업은행장 孔씨는 日新제강에 회사채발행 지급보증및 보증사채의 승낙으로2백7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이다.

이밖에 日新제강裵씨는 수표결제능력이 없음에도 4월말 浦項제철에 물품대금으로 액면2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등 모두 8억6천1백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를 낸 혐의이다.

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씨는 75년4월께 張여인과 이혼한 이래 대아금속을 경영하다가 78년2월께 張여인집에서 현금1억5천만원, 79년5월 같은장소서 현금1억5천만원, 지난해 3월께 현금1억원을 받고도 세무관서에 신고치않아 증여세 2억6천1백29만여원을 포탈한 혐의이다.

囚衣에 쇠고랑찬「큰손」

◇「호텔에 머물면서 수사를 받는다」는 뜬소문이 났던 李哲熙·張玲子부부가 서울구치소에서나와 검찰청으로 소환되고있다. 강력범에게나 하는 수갑위에 포승결박이 눈에띄고두 사람모두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수인복을입고 고무신을신었다.

◇拘束된 피의자 17명

이 름	직책·신분	혐의 내용
李 哲熙(59)	前중앙정보부차장 大和산업회장	외환관리법위반 사기
張 玲子(38)	大和산업명예회장	〃
林 在璓(51)	前朝興은행장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孔 德鍾(59)	前商業은행장	〃
邊 康雨(47)	共榮土建사장	업무상배임
金 東羲(47)	〃 감사	업무상배임 및 횡령
邊 泰洙(48)	〃 상무	〃
朱 昌均(61)	日新제강회장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裵 吉勳(35)	〃 대표이사	〃
金 守哲(53)	전대아금속사장 張여인전남편	특가법위반(탈세) 단기금융업법위반
李 斗淳(50)	朝興銀行본점영업부장 전半島지점장	업무상배임
徐 斗寅(47)	조흥은행반포지점장	〃
金 重壽(51)	〃 남대문지점장 (전덕수지점장)	〃
金 沭鎬(42)	조흥은행덕수지점장	〃
田 永采(36)	삼부토건자금부장 사채업자	단기금융업법위반
郭 慶培(35)	도진실업대표 사채업자	〃
金 鍾茂(45)	해동신용금고감사 사채업자	〃

「연쇄不渡」등 방지 資金 支援을 확대

政府 通貨指標관계없이「副作用」수습

정부는 17일상오 劉彰順국무총리주재로 관계 경제장관회의를 소집, 張여인사건으로 파급되고있는 경제의 부작용을 수습하기위한 긴급대책을 마련, 실시토록했다.

이날회의는 신용질서파괴와 금융경색에 따른 건전기업의 연쇄부도사태, 수출과 해외건설등 對外신뢰관계, 고용·임금등 勞使문제, 국민과 기업의 경제불안심리등을 당면수습과제로 판단, 건전기업에대한 은행대출을 대폭확대할수있도록 통화공급을 신축성있게 운용토록했다.

특히 자금난타격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수입부품國産化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현행70%의 중소기업관련상업어음에 대한 韓銀재할인 비율도 인상하는 한편 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연간으로 뿐만아니라 월간, 분기별로도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키로했다.

短資시장의 자금지원을 위해 5월중 國庫여유자금 3백억원을 예탁하고 투자신탁여유자금 2백억원으로 이들의 담보어음을 매입토록 하는한편 자기어음발행금리를 높여 수신을 늘리고 건전기업 신종어음(CP)발행에대한 금액한도나 금리에대한 규제를 완화키로했다.

證市회복을위해 投信의 수익증권신규설정, 國庫여유자금지원등으로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을 확대하고 회사채에대한 은행支保도 적극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했다.

사업관련문제기업의 公共發注공사 미지급금을 우선지급하고 不渡업체근로자의 고용승계원칙과 滯賃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하여 고용불안이나 근로자의 동요를 방지토록했다.

"金融업무위축으로 企業활동지장없게"

어제 임시銀行長회의

河永基 한은총재는 17일하오 임시은행장회의를 긴급소집, 張여인사건에 따른 金融업무의 위축으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河총재는 社債시장의 기능이 마비됨에따라 자금수요가 은행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빚어지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관련, 각主去來銀行들은 거래기업의 자금사정을 수시로파악, 일시적인자금경색으로 부도위기등 어려움을 겪는일이 없도록 각별히배려하라고당부했다.

朝銀行長 李憲升씨 商銀行長 朱仁基씨

政府서內定

◇李憲升씨

◇朱仁基씨

정부는 공석중인 朝興銀行長에 李憲升 서울신탁은행전무를, 그리고 商業銀行長에는 朱仁基 외환은행 전무를 기용키로 각각 내정했다. 두 행장은 오는 6월16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후 이사회서 호선에의해 행장으로 정식선임된다.

한편 금융계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계기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예상되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地平線

총과 대포로 싸웠던 2차대전만해도 숱한 드라마를 남겼지만, 컴퓨터와 미사일로 싸우는 포클랜드전쟁은 순간에 죽음과 삶이 결판나는 전쟁이다. 드라마가 없을뿐 아니라 돈도 엄청나게 든다. 예를 들어 전투기조종사가 적기를 만나 기관총을 쏘면 기껏해서 3백50달러 (25만6천원)가 날아간다. 그러나 피닉스 미사일 한방이면 75만달러 (5억4천8백만원)가 날아간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공업국들이 만든 이런 값비싼 무기에 군침을 흘려왔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77년에서 81년까지 주요무기의 3분의 1을 서독에서 사들였다. 잠수함·구축함·장갑차등이다. 미국은 40대의 스카이호크전투기를 팔아 2위를 차지했다. 이 스카이호크야 말로 영국기동함대의 수직이착륙기 해리어에대해 중대한 위협적존재가되고있다. ▼프랑스는 미국에이어 3위를 차지하고있다. 지난번 영국의 셰필드구축함을 격침시킨 에탕다르전폭기 14대를 계약했는데 이중에서 8대가 인도됐다. 프랑스와 함께 이스라엘도 3위를 차지하고있다. 「대거」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만든 미라지전투기를 42대나 팔았다. 5위가 바로 영국이다. 아르헨티나해군이 자랑하는 가장최교한 구축함 2척이 영국제다. ▼영국은 2척의 42형 구축함외에도 시·다트·미사일 44기, 對潛헬리콥터 6대, 그리고 전자장비와 레이다등을공급했다.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의 통신체제도 영국제다. 말하자면 영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믿었던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있는 셈이다. 무기가 정교한만큼 어쨌든 양쪽은 모두 엄청나게 비싼 전쟁을 치르고있다. 전쟁이 오래 끌지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의 하나다. ▼영국은 한달동안에 18억3천만달러를 썼을것으로 금융계에서 짐작했었다. 게다가 추가병력을 보내고, 전투에서 상실한 구축함과 해리어기등의 값을 치면 40억달러는 될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전쟁은 아르헨티나에 더 큰 짐이 되고있다.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장리쌀보다 갑절이나 되는 2백%로 뛰고, 달러암시세는 20%나 뛰었다. ▼아르헨티나는 3백45억달러나 되는 빚을 갚기위해 채권으로 대신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개발을 담보로 하루50만달러의 전쟁비용을 대자는 것이다. 올해 인플레를 1백%로 줄이고, 40%에 그치고 있는 공업가동률을 올리려던 계획은 도로아미타불이될 위기다. 외환거래금지령이 내리기까지엔 은행예금을 찾자는 줄이 서기도했다. 너무나도 「값비싼 애국심 잔치」가 안될지 걱정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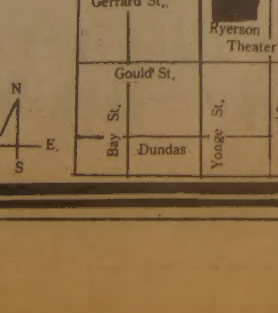
★초호화판 RYERSON 극장 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2년의 노력끝에 보여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 일 시 :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 장소 : Ryerson Theater 43 Gerrard St. E (Yonge & Gerrard)

★입장료 : A석 $8.00 B석 $6.00



출 연 :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냐,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경, 이숙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매소진, 김용순

찬조출연 : 오재윤, 김정숙

도움주신분 :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100불 최우더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타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대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 100불 이기훈(무나미트로피) 100불 이창복(펜·아시아) 100불 서형석 50불 유재영 100불

도움주신단체 : 실업인협회 2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판 매 처 : ⊙킴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총 감 독 : 장기철

주 최 :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 : (416)534－1085

후 원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조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숭공문화협회

검찰公信力 걸린「糾明」

張여인사건 搜査22일…苦悶하는 檢察

李哲熙·張玲子씨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에대한 검찰수사는 17일로 22일째를 맞았다.

지난달 26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검찰은 李씨부부를 비롯, 林在琇전朝興은행장과 孔德鍾전商業은행장등 은행간부 6명, 朱昌均 日新제강회장등 기업관계자5명, 사채업자3명, 張씨의 전남편 金守哲씨등 모두 17명을 구속했다.

현재 검찰수사팀은 탈진상태에서도「마지막고비」를 맞으며 숨가쁘게 돌아가고있는 분위기다.

수사는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늦어도 4~5일 빠르면 2~3일안으로 최종수사결과발표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무리수사라고는 하지만 국민들로서는 가장큰 관심사인 배후세력개입여부가 아직 밝혀지지않고있는만큼 검찰수사는 오히려 최대의 관문을 남기고있는셈이다.

우선 張여인과 관련된 은행및 기업관계자들과 사채업자들이 구속됨으로써 이사건의 중요부분을 이루었던 금융과 기업비리는 어느정도 베일을벗은셈이다.

또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배후관계를 규명하는데도 검찰로서는 유리한입장에 서게됐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배후비호세력으로 작용한 인물이 누구인지, 또는 지목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인물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수사여하에 따라 검찰의 신뢰및 명예회복문제도 따를것이다.

검찰관계자들은 지금까지『배후관계를 계속수사, 관련자는 예외없이 엄단하겠다는것이 정부방침이자 검찰의 수사방향』이라고 되풀이하고있지만「수사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하느냐, 책임소재를 어느선에 긋느냐는 지대한 주목거리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거론된 배후인물로 꼽을수있는 인물은 우선 張씨의 형부이자 영부인의 숙부가되는 전 광업진흥공사사장李圭光씨인데 李씨가 어떤작용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이미 구속된 관계자들의 진술로는 밝혀지지않고있는것같다.

검찰도「官治金融」이란 우리나라의 특수성아래서 은행장들이 아무리 거액이라지만 뇌물만을받고 1천억원에가까운 돈을 부당대출했겠느냐는데 의문을 가지고있음이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張여인의 배경을 은행장들이 단순히 오신(誤信)한 차원이상의 그무엇, 다시 말해 이를에대한 청탁이나 압력이있었을것으로 본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검찰수사역시 李씨등 배후비호세력의 범법사실을확실히 잡아내는데 집중되어야할것이다.

검찰의 명예를 건 수사에서도 명쾌한 해답이 주어지지않는다면 검찰의 공신력은 또한번 큰상처를입게될것이고 바로 이점에검찰수뇌의 고통이 있는것같다.

두은행장의 구속은 업무상배임혐의외에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때문에 당연한것으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설령 뇌물을 받은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부당대출에 따른 책임을 물어 배임혐의로 구속될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은행이 관련된 경제사건수사에서 은행장이란「자리」는 언제나「속죄양」의 제물이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은행부정대출사건, 朴永復사건, 栗山파동등이 터질때마다 관련은행장이 모두구속됐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죄질과 규모에서 은행장의 구속이 단순한 속죄양의수준을 넘은것이다.

다만 은행장과 공모했다는 이유를들어 같은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된 지점장 4명에 대해서는 일부동정적인 반응도 없지않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수도 없지만 만의하나라도 확정적으로 법률상위법행위가 드러나지않은 상태에서 우선 구속한것이라면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팽팽한 대립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당한 지시인줄 알면서도 따른데대한 책임은 면키어렵다는 의견이우세한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共榮토건과 日新제강의 경영간부들이 처음엔 張여인의 사기수법에 속아 어음거래를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그수법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했으나 이같은 사실조차 아직 밝혀내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중간발표나 기업간부들의 변명대로 張여인의 부도위협때문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모했을가능성도 있다고 본것이다.

아뭏든 검찰이 기업간부들을 우선 구속한것은 張여인의 사기수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법인의 경영책임자들로서 절제능력도 없이 회사어음을 대량발행하는등 자금관리를 방만히함으로써 부도상태를 초래, 주주나 법인에 피해를 준것은 명백한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고 봤기때문이다.

검찰은 관련기업경영주의 행위는 은행관계자들보다 더욱 명백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있다.

사채업자들의 구속은 법률기술상 탈세피죄용이 어려워 단기금융업법위반혐의만을 적용한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은 이들이 張여인과 거액의 어음거래를 했다는점에서 張여인의 자금출처및 소비처를 캐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수있는 사람들이기때문에 일단신병을 확보해놓았다는 의미도 있다.

또 이들이 어음거래에서 1백억원이상씩의 이자소득을 올렸다는 점으로보아 탈세에대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세금추징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씨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할때부터 張여인과의 어음사기공모나張여인의재산은닉혐의등에 수사의 촛점이 모아졌으나 밝혀진게없어, 우선 張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4억원에 대한 세금포탈과 허가없이 영위한 어음거래행위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탈세)과 단기금융업법 위반으로만 구속했다.

그러나 金씨가 張여인을 共榮토건회장 邊康雨씨에게 소개시켜줬고 그후에도 사기행각을 벌인 張여인과 접촉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사에서 여죄이외에도 張여인과 共榮토건과의 공모여부에대한 신빙성있는 진술을 받을수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의 마무리 수사에서 張여인의 모든범죄사실이 누구나가 납득이 가도록 낱낱이 밝혀진다해도 이번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감은 좀처럼 가시지않을것이란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이런점에서 볼때 검찰이 처음 李씨부부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만 구속했던것이나 수사확대가 늦었던점등은 검찰수사의 큰미스로 지적되어야할것같다.

가뜩이나 사건규모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국민의시선이 따가운데도 검찰의「갈팡질팡」이 더욱 의혹을부채질해준꼴이 되버린것이다.

지난11일의 중간 발표후 수사자체가 미진한듯도 있었지만 더욱 시중의 의혹이 가중되고 루머가 만발했던것이 이점을 잘말해주고있다.

그러나 중간수사발표후 언론에 질타당하고 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일단 금융및 기업비리부분을 밝혀낸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이 될수도 있는것이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가 張여인의 범행전모를 밝혀내는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수사는 되풀이 말해 배후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성공해야만 검찰의 신뢰회복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전체를 뒤흔든 파문을 가라앉히는 지름길이 된다는것을 검찰스스로가 잘알고 있을것이다.

張여인의 자금의 구체적 소비처나 은닉재산을 밝혀내는일은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崔奎植기자】

탈진상태서「마지막 고비」

현재 밝혀진건 금융·기업非理

全貌발표 數日內 나올듯

林在琇 전朝興銀行長 / 孔德鍾 전商業銀行長 / 邊康雨 共榮土建회장 / 朱昌均 日新제강회장 / 裵吉勳 日新제강사장 / 邊泰洙 共榮土建상무 / 金鍾茂 신용금고監事 / 田永宋 三扶土建부장 / 金東義 共榮土建감사 / 郭慶培 도진實業대표 / 李두정 朝銀영업부장 / 金重壽 朝銀지점장 / 徐斗寅 朝銀지점장 / 金洸鎬 朝銀지점장 / 金守哲씨

「큰손」을가진女子

張여인 스토리

이제는 후선으로 물러앉아 경영상담이나 해주고있는 某회사 L부회장은 지금도 그일을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른다.

그때 임원들이 한사코 반대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1백억원어치의 휴지조각을 들고 앉아있어야할판이다. 그 당시는 자신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우기려고 들면 우길수도 있었다. 임원들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이 이제와 보니 백번 천번 다행한 일이다. 사장 뜻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려준 임원들이 그렇게 고마울수가 없다.

지난해 가을 유력한 친구 소개로 알게된 李哲熙씨의 내방을 받고 한참얘기를 듣던 L부회장(당시사장)은 귀가 솔깃해졌다.

李哲熙씨는 이때 L부회장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면서『유수한 상장기업 20개社의 주식을 싯가보다 1%싸게 사주겠다』면서 1백억원어치를 사라고 말했다. 마음이 동한 L부회장이 현물인도와 대금지불방법에 대해 묻자 李哲熙씨는『주식은 우선 명세표부터주고 현물은 1주일후에 건네주겠다』고 말하고『대금은 미리 달라』고 했다. L부회장이 맞바꾸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자『믿지 못하겠다면 유수기업의 어음 1백억원어치를 현물인도할 때까지 담보로 맡기겠다』고했다.

소개해준 친구한테 들어서 李哲熙씨에대해 알만큼 알고있는 L부회장은 담보로 어음까지 맡기겠다는데야 못믿을 이유가 없다면서 내심 흥정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일단李哲熙씨를 돌려 보냈다. 곧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L부회장은 주식투자를 하자고 강경히 주장했으나 꼼꼼한 은행원 출신인 임원들은『미심쩍은데가 많다』며 반대했다. 이튿날 다시이사회를 열었지만 임원들은 계속 반대했다. 그사이張여인도 나타나 사장과 임원들을 만나고 자금실력과 배경을 은근히 과시하며『거래를 해보자』고 했으

◇私債市場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던 張玲子여인—。한때는 승려들의 공경을 받으며 佛事를주재하기도 했다。(사진은 81년 3월1일 全南長城 白羊寺범종타종식때 테이프를끊고 있는모습)

私債 숫법

金融界헛점 교묘히 이용

「證市 쓸던 한탕솜씨」私債시장으로 옮겨

企業、회유·협박·「共謀的同參」못이겨 덫에

나 임원들의 반대로 이흥정은 끝내 이루어지지않았다。

큰 무역회사와 석유생산업체의 소유주이면서 明洞일대에 막강한 현찰실력을 가진것으로 알려져있는 K사장도 지난연말께 張여인으로부터『50억원씩 돈을 내서 주식투자를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둘이합해 1백억원을 동원하면증권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을것이라면서 여러번 권유를했으나 K사장은 망설이기만하고 선뜻 응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유명기업인 H社의 P사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온 李哲熙·張玲子부부에게 말려들어 지금도 거액이 물린 어음을 갖고있다。관련업계에서는 P사장이 아직 나이도 많지않고 경험이 적어 말려들게됐을것이라고 말하고있다。

고、은행이나 단자、신용금고、사채시장을 돌아다니며 보면 李·張부부가 흘리고 다닌 얘기거리들을 많이 주워 모을수 있다。누구누구가 張여인과 자주 어울렸고 누구누구가 李哲熙씨와 친했다는 얘기, 어떤회사는 정체불명의 자금으로 영업실적을 자주올려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李·張자금이었다는 얘기, 모모기업들이 李·張부부에게 덜미잡혀 있었다는 얘기 등등 화제가 무성하다。

숫법에대한 얘기도 가지각색이다。어떻게 그 많은 돈을『해 먹었을까』하는데 대한 추리도 은행과 단자회사와 사채전문가들의 생각이 다르다。

은행간부들의 얘기는『기업쪽에 허점이 있었다』는데로 초점이 모아지고있고 단자회사직원들은『기업의 약점과 어음거래등 금융관행및 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데로 의견이 쏠린다。사채전문가들은 대체로『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 났다』며『몇몇 기업과 李·張부부가 짜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

사채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은『실채무액 이상으로 어음을 초과 발행한데서 문제가 발단됐다』는것。이점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단자회사 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다。일반적으로 실채무액 이상의 어음을 끊어 준다는것、그것도 자기회사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많이 끊어준다는것은 어음을 준사람에게 자기회사를 넘겨준다는것을 의미한다。

A가 B회사어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 B社가 A에게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금방나게 마련이고 으레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 금융계나 사채시장의 상식이다。실채무의 9배가 넘는 어음을 끊어준 것、채무도 없는데 거액의 自社어음을 끊어 준 것은 자기회사를 통째로 맡기는거나 같다는 얘기다。사채업자들이 共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것은 어음의 초과발행이라는『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음만 손에 넣으면 그회사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수있다고 금융관계자들은 말한다。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자금실력이 없을때『어음을 돌리겠다』고 위협하면 부도가 나거나 위협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두가지중 하나밖에 선택할수 없게된다는것이다。

위협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어음만 일단 손에 넣으면 그다음에는『어음을 더 갖고 오라』는 것을 포함해서 무슨일이든지 다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따라서 업계에서는 共榮과 기타 관련업체로부터 張여인이『위협용 초과어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아냈는가만 밝혀내면 나머지의문은 절로 풀리게 된다고 보고있다。초과어음을 수중에 넣는『최초의 과정』에 L부회장이나 K사장같은『미끼던지기』숫법이 사용됐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그리고 일부기업의「共謀的同參」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끼어든 기업도 있을 것이고 영문도 모르고 걸려든 기업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銀行渡 어음은 약정기일이 만료되면 거래은행창구에서 자동결제되는 일종의 유가증권。결제가 안되면 부도가 나니까 어지간한기업어음이면 현찰과 크게다를게 없다。사채시장과 증권시장에 능통한 전문가가 어음을 일단 수중에 넣으면 이것을 백방으로 써먹을수 있다。할인해서 현금으로 쓸수도있고 담보로넣어 대출도 받을수 있고 다른 기업어음과 맞바꾸어 써먹을수도 있다。은행이나 단자、신용금고、보험회사、종합금융등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사채시장의 錢主들도 무차별적으로 털어 먹을수 있다。

張여인 사채파동의 특징은 평소 사채와 별로 인연이 없던 일반 투자가들이 대량으로 걸려들어 피해를 보게됐다는 것이다。증권시장에서 특정 주식을 조작하듯이 共榮어음과 라이프어음은 조작의 마수를타고 사채시장의 울타리를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팔렸다。고급아파트촌의 복부인들과 여기에 함께 휩쓸린 가정주부들、숙정으로 퇴직한 수많은 前職들、이자생활을 하던 소규모 예금자들、좀 여유가 있어 재산을 늘려보던 봉급생활자들、장사하던 사람들등 광범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少額私債붐에 이끌려 들어 피해를 보게되고 말았다。

私債붐은 張여인과 그수하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사채시장 관계자들은 보고있다。증권시장에서 한탕하던 솜씨와 숫법이 사채시장으로 무대를 옮겨 그대로 발휘됐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무제한하게 어음만 공급받을수 있다면 張여인 아닌 딴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채시장을 수중에 넣고 주무르듯 할수 있었다고 사채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張여인은 수천억원 규모의 이른바 초과 발행어음을 共榮등으로부터 공급받을수 있었던데다 증권시장에서 익힌 교묘한 시장조작숫법을 터득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지금이라도 풀어주면 다 해결할수 있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라는 얘기다。더 많은 어음만 공급받는다면 이번에 저지른『작은 문제』는 간단히 해결하고 더 크게『해먹을수도 있을것』이라는게 사채시장 주변의 얘기다。

【經濟部】

平生모은돈이 休紙로

나는 이렇게 당했다

私債파동…피해자들 이야기

"信用·利率 좋다"소문

퇴직금·집판돈도 詐欺에 걸리고

不渡공시 늑장에 證券피해 加重

회사更生돼도 辨濟받을길 막연

○…서울 강남구 도곡동개나리 아파트에 사는 趙×玉(38세) 여인의 부친 趙노인은 치미는 울화를 삭이지 못해 몸져 누웠다。병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趙여인은 13일 부친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시켰다。이러다가정말 무슨일이나 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 趙여인은 걱정이 태산이다。뭐라고 답변해 줄 말이 없는 신문기자를 붙들고 어떻게 돼가는거냐、무슨 수가 없겠느냐고 연방 물어대는 趙여인의 표정은 아주 절박하다。趙노인이 날린 돈은 2억1천만원。식당업을 해서 평생 벌어모은 돈이라고 한다。지난 연말 5남매를 다 출가시킨뒤 은퇴를 결심하고 예금이나 해서 조용한 노후생활을 보내겠다고 식당을 처분했는데 이 돈이 결국 張여인의 마수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유리한 예금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우연히알게된 金모씨(사채브로커로 추정됨)가 최소한 월3부는 보장되고 잘하면 원전을 2、3년새에 2배로 불릴수 있다며 하도 꾀는 바람에 共榮土建어음 3천만원짜리 7장을 덜컥 사고 말았다는것。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李英順(가명·53세) 여인도 5천만원을 날렸다。자식들 신세안지고 산다며 5천만원을 단자와 은행에 분산 예금해놓고 그 이자로 생활을 해 왔었는데 지난 3월 이웃 친구가 월 3%나 되는『확실한』어음이 있다해서 1천만원짜리 다섯장을 샀던 것인데 그만 물리고 말았다。

제법 큰회사 사장의 부인인 閔×子(44세·강남구반포동 구반포아파트) 여인도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조그만 빌딩을 팔아 1억8천만원어치 共榮어음을 샀다가 망했다。

공무원인 金重培씨(43·가명·잠실아파트)는 부인의퇴직금과 집을팔아 전세들고남은돈 2천6백만원을 단자회사에 넣고 있었다。

우연히 알게된 사채브로커가 共榮토건 어음 3천만원짜리를 사라고 권유、이율도 높고해서 4백만원을 차용、지난 3월8일에 매입했다가 물려버렸다。

Y약품 영업부장은 회사 시재금(수금한돈)을 놀려두는것보다 어음이라도 사서 얼마라도 이자를 붙이는게 회사이득이 된다해서 共君을 샀다가 이제 목이 달아나게 됐다。

○…이상하게도지난2월과 3월께부터 강남일대 고급아파트 주변에서는 福부인들사이에 사채놀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사채시장에서 붙은 共군이라는 별명이 그대로 통용、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용좋고 결제잘되고 이율높고 게다가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까지해 처음 사채에 손을 대는 주부들도 증권투자 이상으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재미를 붙이게 됐다는 것이다。共榮어음은 2·4%내외에서 시작해 최고3·6~4·0%까지 오르기도 했고 거래가 활발할 뿐 아니라 결제도 잘되고 이상한 소문까지 붙어다녀서 사채에 처음 손대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 잡았다고 한다。

야릇한 분위기에 휘말려들어 私債波動의 희생자가된사람들은 주부들 뿐만이 아니다。퇴직후 마땅한 일거리와 생계수단을 못찾아 고민하던 수많은 前職들、재산을 좀 늘려보려던 얼마간 여유있는월급장이들、소규모로 사업을 하던 사람들、장사하는 사람들、증권하던 사람들、횡재를 꿈꾸고 은행돈까지 빌어다가 투자했던 사람들등 광범한 계층의 사람들이 희생자가됐다。

이중에는 지난 정계와 재계에서 부정한방법으로 거액을 거머쥐고 은둔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휘말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채시장에서 뿐만아니라 증권투자로 피해를입은 사람들도 헤아릴수가 없을정도이다。

지난 4월중순께부터 共榮土建、日新製鋼등 10여개 업체들의 부도설이 나돌면서 株價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李·張부부가 구속된 29일이후에도 부도설은 부인되고 거래소는 이를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30일엔 공영측이 증권방송망을통해 부도가 나지않았다고직접 공시했다。

이에따라 金紛禮씨(35·성동구신당동)는 이방송을 듣고 6백34만원에 공영주식 1만주를 샀다。

姜相運씨(53·마포구동교동)는법정관리신청이 이루어진 10일 바닥시세라는 증권회사직원의 권유로 3백94원에 2만주를 매입했다。

공영과 일신은 법정관리와 부도처리가 나기직전인 8일과 10일엔 평소거래량의 20여배인 1백30여만주와 15만주씩 거래됐었다。

○…共榮土建은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져 私債의원리금 상환이 동결됐다。

앞으로도 更生을전제로 私債의원리금 지급기준이 마련될것으로보이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없다。

會社가 更生된다 하더라도 은행부채가 2천6백여원등 총4천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부채상환우선순위로 보아어음을산 개인들이 변제받을길은 막연한 실정이다。

日新製鋼어음도 회사가 공매되어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인수자가 사채를 인정할것인지는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영과 일신주식은 오는22일과 24일 각각 거래소에서 거래가 재개되나 사려는사람이 없을것이고보면 換金이되지않아 休紙나 다름없게 되었다。

정부관계당국은 이번 피해자들을 돈깨나있는 사람들로 간주해버리고 구제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음을샀던 사람들이나 증권투자를했던 사람들 모두가 돈많은 사람들만은아니다。

박봉에 생활에 도움이될까하고 투자했던사람들이 헤아릴수없이 많은 실정이다。

어음이나 주식자체에 하자가 있었던것이 아니었다。

더우기 관계당국은 부도설이 파다하게 나돌고있는데도 이를 제때에 파악、公示하지 않았기때문에 피해자가 더욱 늘어난점을 간과하려 하고있다。

【經濟部】

호 소 문

친애하는 교민 여러분!

이민생활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캐나다 한인이민역사가 어언15년을 헤아리고 있고 여러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착실하게 성장해 가는 한인사회를 볼 때 기쁘기 한이 없읍니다. 생소한 이역 땅에서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오늘이 있기까지에 노고를 그 누가 알겠읍니까.

이제 그 고생의 댓가들이 서서히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된 생활, 건강한 자녀, 좋은 주위 환경 속에서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 하루를 즐기는 여유도 갖게 되었읍니다. 우리들만이 모인 한인회, 실업인 협회, 체육회 또한 40여의 교회, 불루어선상의 70여 한인업소들이 발전해 가는 코리아 타운의 모습등이 우리들의 어려웠던 지난날을 잊어 버리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랬었기에 크게 적게 어려운 주위를 서슴치 않고 도와 온 우리들인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 낯설은 이국땅에 새로운 이민 생활을 시작한 우리 동포 이민자(항공기 정비사) 40여 세대가 최근 이민을 왔읍니다.

캐나다에 오면 직업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왔지만 이곳 경제사정이 악화상태에 있어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분들은 언어문제, 주택문제, 생활문제등에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겪었던 이민초기에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이민 후배 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합시다. 여러분 주위에 일자리가 있으면 알선해 줍시다. 이들은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능력과 각오가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가정에 쓰다 남은 가재도구, 침구등이 있으면 주저말고 이들에게 보내줍시다. 방이 여유가 있는 분은 이들에게 방을 빌려 줍시다. 또한 현금으로 돕고자하는 분도 환영하오며 세금 공제의 혜택을드리겠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 한인회로 연락해 주시면 즉각 이들에게 알선해 주겠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가득 호소합니다.

※연락처 : 한인회(오정숙 간사) ☎ : 755－9288

총 무(신영식) ☎ : 491－9701(B) 292－8838(R)

1982년 5월 17일

토론토한인회 회장 박 인 순

협조기관 : 실업인협회, 코리아타운 번영회, 벡커스 프렌차이스협회, 맥스프렌차이스협회,

한국일보사, 코리안저널, 민중신문

뉴스診斷

經濟部 朴武 기자

냉정되찾아 탈진經濟 살려야

張여인亂氣流 빨리 벗어나는 길은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수가없다. 모이기만하면 수군거린다. 다방이건 술집이건 사무실이건 장소를가리지않고 화제는 온통 그 얘기뿐이다. 길에서 눈만 마주쳐도 張여인 얘기를 하고있는것 같다.

말도 탈도없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유언비어로 난무하고있다. 입가진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말을옮기고 있는것같다.

개탄하는 사람, 분개하는 사람, 실망하는사람, 비웃는사람 등등 모두들 흥분한사람들뿐이어서 제정신갖고 조리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

언제까지 이래야되는건지 알수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뒤숭숭해서 일이 손에잡히지 않는다며 수심이가득한 표정들이다. 만사의 의욕을잃고 탈진한 모습들이다. 할일은 태산처럼쌓아놓고 엉뚱한데 정신이팔려 세월을허송하고 있는 것같다며 안타까와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비분강개한 어조로 한바탕 질의를 벌였다. 그러나 국민들사이에 팽배한 의혹을 말끔히 가셔주지는 못했다. 사태의 추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도 별로 덜어주지못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대책회의를 연달아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수습방안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수사당국도 하루속히 전모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조급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있다. 정치인들도 흙탕물이 튀어오는것에만 신경을곤두세우고 있는것 같다.

누구하나 썩 나서는 사람이 없다.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조목조목 사리에 닿는 합당한 수습방안을 강구하려고 애쓰고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것같다. 흥분하고 개탄하는 애국자만 많고 궂은 뒷처리를 맡아 나서는 애국자는 적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괴로운 것은 일반 국민들 뿐이다. 경제활동은 점점 더 위축되고 살기는 갈수록 어려워 진다. 3년 불황에 시달려온 뒤끝이라 그렇지않아도 살림살이가 각박하고 인심이 피폐해있다. 여기서 또 더 물러나 경제적 생활이 한층 더 어려워진다는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조속한 수습을바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것은 이런사정 때문일 것이다. 떠들고 흥분하는것은 그쯤 해둬도 충분할 것 같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냉정한 이성을 되찾아야 할때다.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에 대해 항간의 여론은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장에 따라 이번 사건을 보는시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니만큼 사태수습방안도 각양각색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처방만 추려모아본다면 대체로 다섯가지로 요약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해서 법에 의해 단죄하는 일, 둘째는 간접적인배후 관련자들을 밝혀내 문책하고 이 사건에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을 인사조치하는 일, 세째는 이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선량한 시민들을 찾아내 보상을 해 주는일, 네째는 금융시장의 혼란과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풀어주는 과도기적 단기 처방을 하는 일, 다섯째는 다시는 금융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구조와 관행 및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수습책을 강구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의 전모를 자세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요청인것 같다.

과감한 過渡정책·루머解消 시급

金融구조·관행·제도개선등 이번기회에 根本대책을

선량한 피해자엔 出資전환등 구제방법 강구토록

정계 일각에서 나온 건설적인 제안중의 하나로 국회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가 일차적으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검찰에서 다루지 않은 배후인물이나 의혹을 받고있는 인사들을 출두시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해명할것은 해명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직접 의문점을 물어 보는것이 항간의 의혹을 씻어버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본인들로서도 직접 국민들앞에 나서서 밝힐것은 밝히고 부인할것은 부인하는것이 떳떳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검찰수사 결과에 미흡한것이 있다면 이 점도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더 자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의혹을 최대한으로 밝힐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것같다.

직접적인 사건관련자들을 의법처단하는것은 검찰에 맡기고 간접적인 배후관련자들은 국회 특별조사 위원회가 밝혀내 정치·도의적 측면에서의 문책 또는 인책범위의 한계를 긋고 그다음 고차원적인 정치적 결단을 얻어 조치하면 될것이라는 견해다.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할수있는 최선』이상의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여론으로 간주돼도 좋을 것이라는게 이 제안을하는 사람들의 견해인것 같다.

이번사건의 특징은 평소에 사채시장과 별로 인연이없던 선량한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물려들어 재산상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점이다.

숙청때 물러난 많은 前職인사들과 정년으로 퇴직한 사람들, 가정주부들, 재산을 좀 늘려보려던 월급생활자들, 장사하던 사람들, 소규모 기업체 경영주 등등 광범한 계층의 사람들이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악질적인 사채업자』로 몰아붙일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일부 피해당사자들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은 채권을 출자전환해서 주식으로 지급해주면 좋지않겠느냐는 것. 共榮의경우 법정관리로 회사가 되살아나게 되면 그 회사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물건 어음 대신 주식이라도 갖게 되면 그런대로 보상이될수 있다는 의견인것 같다. 李·張부부의 압류재산과 수사로 밝혀질 빼돌린 돈의 일부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그것을 회사재산으로 하면 보상의 재원도 어느정도 마련될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융계에서는 사채시장의 마비로 기업들의 急錢조달 창구가 막혀 심각한 자금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과 단자회사등 금융기관들이 이 점을 우려해서 신축성 있는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독려하고 있지만 사채시장이 동원할 수 있었던 자금을 전부 대신 지원해 줄 수는 없는일이다. 자금경색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통화의 일시적인 확대공급이 불가피하다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된 후에 다시 긴축의 고삐를 바짝 쥘 생각을 하고 우선은 돈을 좀 풀어 내놔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상업어음 할인 비율과 이에 대한 韓銀재할인 비율의 인상, 지준율의 일시적인하향조정, 시중은행에 대한 한은차입의 확대등의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고질적 금융부조리의 病根은 朴永復사건, 韓獨맥주사건, 栗山波動등 세상을 떠들썩하게하고 은행장의 구속사태까지 몰고온 일련의 금융파동이 있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도 뿌리가 빠지지 않고있는 고질적 病根이다. 사채의 위장거래, 편파대출, 수출금융 유용등 이른바 3대금융부조리는『손 댈 수 없는 고질』로 인정을 받아 번번이 수술대에 올라갔다가도 도로 내려가고 말았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같은 고질적 금융부조리를 완전히 뿌리뽑아버려야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私債凍結은 이미 시기를 놓치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은행예금으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있다. 돈이 지하로 흘러다녀야할 이유는 없다. 떳떳치 못한 돈을 그대로 방치해둘 이유도 없고 脫稅를 묵인해줘야 할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것도 아니다.

정부가 구상하다가 실현하지못한「어음去來所」등의 방안으로 공개적인 어음시장을 만들어 私債를 양성화하고 이 시장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자금은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예금으로 흡수토록 해야한다는 견해다.

금융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관련해서 또하나 재기되고 있는 의견은 5개시중은행을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영화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와 능률위주의 민영은행이라면 돈떼일 일을 할리도 없고 부실대출이 생길수도 없다. 그런 일이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주와 경영주간의 일이되며 문책해임이나 배임죄 고발로 처리될 뿐이지 정치의 흥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시중은행이 전부 민영화된다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주택은행 수출입은행등에서 나누어 전담처리하도록하면 될것이라는게 이들의 의견이다.

斷罪와 문책, 피해보상과 후유증의 재빠른 수습,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대책의 강구등으로요약되는 張여인사건 수습대책은 각계 여론이 내놓고있는 소박한 의견이다. 정부나 관계당국에서는 좀더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수습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박하고 미숙하나마 일반 여론이 사태수습방안을 무성하게 내놓고있는것은 분개와 개탄과 흥분은 이제 좀 그만하고 하루속히 사후수습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정부에대한 국민들의 채찍질로 이해돼야 할것같다.

◇정부는 연일 대책회의를 거듭하고있지만 아직도 이렇다할 시원스러운 수습방안이 나오고있지않다。 일반 여론은 진상규명못지않게 능률적인 사후대책을 강구하고있다。【사진은 金埈成부총리주재로 열리고있는 경제장관회의】

童話

千字春秋

崔貞熙 〈作家〉

어머니는 날더러 똑 제애빌 닮아가지고 사람속을 썩인다고 말씀했다. 나는 내가 닮았다는 아버지를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서 돈을 타와야했다. 떡장사, 엿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벌이로선 살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집은 陸路로 百里길. 나는 윤선을 타고 다녔다. 어머니가 닭이 울때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나는 잠을 자야 했다. 첫닭이 꼬끼소리 치면 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우리는 時計가 없었다) 나는 첫마디에 뛰기듯 일어났다. ─야 어째 이리 헷뜨느냐? 어머니는 허둥거리는 나를 가라앉히면서 차려놓은 밥을 먹으라고 했으나 밥이 넘어갈것 같지않아서 그만 두었다. ─빨리 떠나야지비. 죽기만큼 싫지만 아무래도 떠나야 할 길이므로 내쪽에서 서둘렀던 것이다. 邑에서 10里길이었다. 汝海津에 내려가서 타게돼있었다. 여해진까지 어머니가 데려다주다가, 남동생이 차차 크면서 남동생이 같이 가 주었다.

밤길 10里는 좀처럼 끝나주지않았다. 달이 밝아도 무섭고 캄캄해도 무서웠다. 공동묘지의 말뚝들이 온통 도깨비가되어 다가오고, 양쪽으로 이어진 수수밭, 조밭들에선 귀신들이 푸득푸득 웃고 지절대는것같아 몇번씩 자지러지곤했다. 여해진에 이르러도 밤이 채 밝지않는때가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치마폭에 폭 싸안으며 한참 자라고했다. 바로 발앞에 펼쳐진 바다에서 파도가 들이덮칠것 같았지만 어머니 치마폭 속에서 곤히 잠들수있었다. 그러다가 윤선이 파이왕 울고 들어오는 소리에 나는 또 뛰기듯 일어났다. ─야, 어째 이리 헷뜨느냐? 어머니는 집에서 하던 소리를 또한번 하는것이었다.

윤선을 탈 사람들이 종선(木船)을 타고 들어갔다. 내가 윤선에 탄뒤에도 어머니는 그자리에 서있었다. ─어마야, 빨리 갑새. 내가 이런 소리를 질렀으나 내소리는 파도소리에 부서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버지집에 도착하면 그 집에선 싸움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나를 때리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않았다. 아버지는 정자에랑 다니며 詩를 짓고, 또 내가 4·5세될무렵부터 독훈장을 앉히고 글을 배우게 해주던 아버지였다. 탈이라면 남이 하는 소리를 곧이곧대로 듣는 그것일 것이다. 그집에선 파도소리가 마구 들렸다. 나는 잠이 오지않아서 살짝 밖으로 나갔다. 달이 밝았다. 달에게 나는 스무번도 더되게 ─빨리 커서 불쌍한 우리어머니를 돕게해달라고 빌었다. 그러기는 커녕, 그러기는 커녕…。

그저께는 「어버이날」 행사를 TV로 중계를해주었다. 나는 TV수상기 앞에서 울어도 울어도 끝나지 않는 울음을 자꾸 울고있었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題字 金蘇東) ㊺

解放을 맞기까지

西鮮造林번창 돈벌무렵

終戰기미느껴 咸昌으로

소화전공과 조선전공을 상대로한 나의 사업은 순조로왔다.

그동안 회사의 자산도 크게늘었으나 거의 대부분을 평양, 진남포등지에 투자했다. 서선조림 현장전역에는 2만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다. 이들은 모두 서선조림종업원의 가족들이다.

1945년 7월, 나는 70만원의 현금을 마련해서 평양지점으로 떠났다. 아우 金漢日과 진남포 사업소의 韓霽宇군을 대동하고 작업현장을 순회했다. 사인장 봉하 자섬 어중리동지의 체불노임을 말끔히 청산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당시 10만원이면 천석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무렵 어중리 현장에는 당구장 상수도시설까지 완비해놓은 일본산금회사의 훌륭한 사택들이 많았다. 그것들을 다 매입했다.

전쟁이 날로 치열해져 피난지로 택한것이다. 일본각지에는 폭격기가 내습했고, 태평양 넘은 해역에서는 일본해군이 전멸상태로 지리멸렬했다. 해상보급로는 단절되었고, 동양각지의 일본점령지는 거의 고립상태에 놓였다. 가미가제(神風) 특공대들은 각지에서 자폭했고 일본주력함대는 행방이 묘연했다. B29폭격기들은 일본전토를 맹타했다. 학병으로 끌려간 한국학생들은 만주, 중국대륙및 태평양군도에서 고귀한 생명을 값없이 잃어갔다. 사할린, 북해도, 남양군도로 끌려간 징용노무자들 또한 중전동화와도같이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했다.

일본군부의 비인도적 노동사역에 시달리던 때다. 나는 북쪽으로 가는것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소개를갔다. 피난보따리를 트럭에 싣고 충주, 수안보를 거쳐 박달고개 문경새재를 넘었다. 조령마루터에서는 부모님들이 사는 咸昌땅이 멀리 내려다보인다. 차를 세우고 부싯돌을 쳐서 담배에 불을붙였다.

지나간 몇해동안의 일들이 꿈같이 아롱거린다.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리라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던때부터 내가가진 지론이다.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 넓은 세계무대에서 독일과 이태리를 제외한 세계각국을 상대로 싸울수 있을 것인가. 어림없는 수작이다. 전환의 추세로봐서 일본이 얼마 안가서 패망하리라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이다. 트럭의 고장으로 얼마동안 고생은했으나 그날 해질무렵 점촌을 거쳐 우 한창땅에도착했다. 부모형제, 가족들이 얼싸안고 반가와했다. 오랜만에그리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것이다. 미리 사둔 초가에피난보따리를 풀고 가족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오손도손 둘러앉았다. 쌓였던 얘기들이 밤 늦도록 그칠줄을 몰랐다.

그 이튿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는 보도가 라디오를통해 터져나왔다. 멀지 않아 큰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됐다. 뒤이어 또 나가사끼에도 원자탄이 투하되었다는 것이다. 이젠 일본의 발악도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됐다. 일본군부는 미군이 일본본토에 상륙하

◇나는고향 咸昌의 왕릉산에서 8·15해방을 맞이했다。 (당시의 가족사진 뒷줄。중앙이 필자)

美軍上陸대비 대나무창 訓鍊까지 갑자기 降伏방송…거리마다 "萬歲"

면 마구 일본인을 죽일것이며, 재산은 강탈당하고 부녀자는 함부로 능욕당할 것이라고 악선전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는 다 미군한사람씩을 죽이고 자결하라고 종용했다. 그래서 대나무창을 준비하라느니, 쇠갈고리를 준비하라느니 등 국민들에게 사제무기를 제조하라고 강요했다. 이미 원자탄을 개발한 과학전에서 일본군부는 잔학한 야만성을 종전기에 드러냈다.

계속 라디오를 듣고있던 나는 돌연 중대발표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일본천황 히로히또의 목소리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 심장을 고동치게 했다.

『일본이 항복을 했다』아우가 뛰어오고 어머니도 달려오셨다. 『항복을 하다니 무슨 소리냐』어머니도 어리둥절하신 모양이다.

『일본이 전쟁에 졌읍니다. 일본천황이 항복을 했읍니다. 어머니』우리는 얼싸안고 좋아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읍니다. 조선은 곧 독립합니다』나는 밖으로 뛰어나가 내 선조가 묻힌 왕릉산으로 올라갔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읍내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모두들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나도 왕릉산위에서 두팔을 높이 치켜들고 만세를 불렀다.

한국일보 詩壇

돌산위에 사는 재미

金汝貞

높은 돌산위에서 살아나 보아요。
밤마다 까만 하늘 만지며
높은 돌산위에서 살아나 보아요。
밤마다 하늘 만져서
하늘만큼 커진 손바닥에
티눈되어 박힌 총총한 별을 보며
돌산위에서 살아나 보아요。
낮에 평지에서 숨숨기며
천 근 몸에 젖은 솜뭉치
등에 지고
발부리만 내려다보며 살다가도
밤에 높은 돌산위에서 살아나 보아요。
꺾였던 목고개 빳빳이
펴들고
별도 총총 빛나는 하늘 쳐다보는
그 재미、맛이나 보아요。
봄비라도 촉촉히 젖어내리는 밤이면
가슴이라도 촉촉히 젖어내리는 밤이면
사는 근심 그것도 재미
재미라고
아랫동네 평지에서
불빛도 남작남작 춤추고 있어요。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 總譜 298手完

白(7段)河燦錫〈4勝2敗〉
黑(6段)徐能旭〈2勝4敗〉
(각5시간·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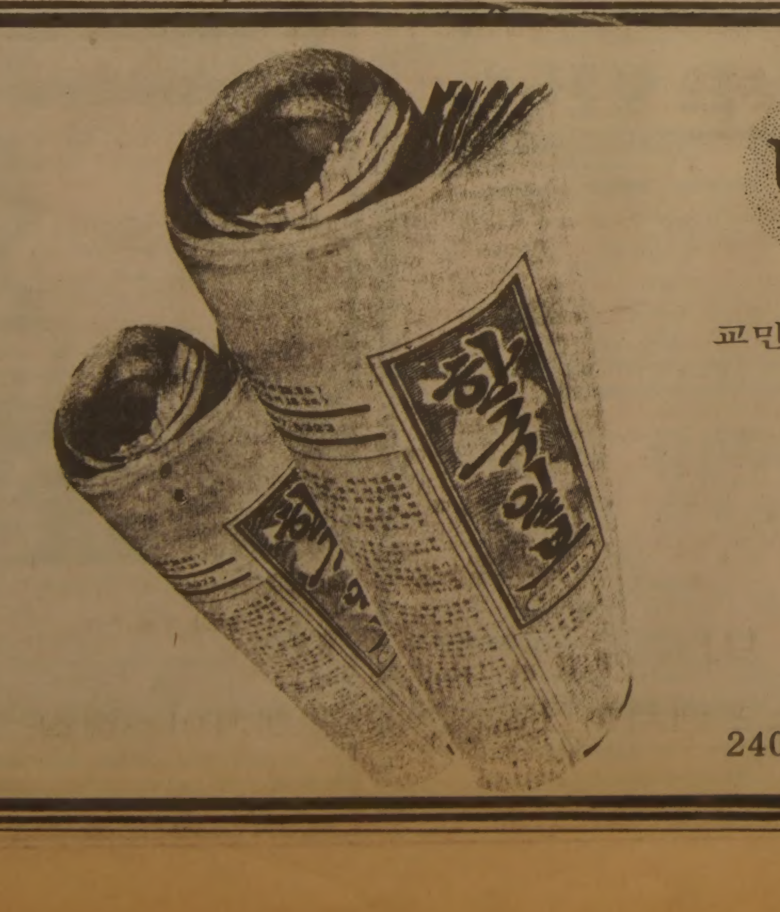
河7段 힘겨운 殘留

河7단은 힘겹게 시드組에 잔류했다. 시초 張秀英6단에게 부전패하고 黎敷4단에게 역전당하여 줄곧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徐6단은 4단때 제10期부터 4년간 꾸준히 지켜오며 정이 들대로 든 名人戰인데 이제 덧없이 물러나게 되고보니 정작 본인보다 그의 팬들이 더욱 섭섭함을 금치 못하는 모양이나 다음期의 부활을 기대해 본다.

이바둑은 처음포석에서 黑13이하 17까지 徐6단의 대담한 작전이었으나 실속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실패작이었다. 더구나 하변의 침부대를 黑35로 잘못움직인 때문에 한때 死境을 헤맨끝에 용케 활로를 열기는 했지만 대세를 크게 손상했다.

黑3점을 아주 제압하지 않는탓에 黑63이하로 혼전상태에 빠졌는데 그뒤 白은 62로 63자리에 두어 37까지의 상변에서 黑123으로 124자리를 끝막지않고 白140이하의 통렬한 끝내기를 당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말았던 것이다.



발 축 전

교민사회가 존재하는한 토론토한국일보는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토론토한국일보는
읽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전의 촉진제입니다.

D. Y. Import Co. 오 기 환
240 Humber Line Dr. Rexdale, Ont. ☎ : 675-8930

海外여성

"天才는 환경이 만든다"

유전보다 父母교육에 따라

네딸 成功的으로 키운 美國人 부부

○…美國 오하이오주 톨코드에사는 올해 11살난 수지·수세딕양은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뛰놀며 아버지의 농장에서 동물들과 놀기를 좋아하는 소녀이다. 그는 벌써 머스킹엄 대학에서 예비의과 대학강의를 받고있는 천재소녀이다.

수지뿐만아니라 그의 세 여동생들도 지능테스트결과 모두 천재로 밝혀졌는데 이 천재소녀들은 미국인 아버지 조셉·수세딕과 일본인 어머니 지주꼬·수세딕 사이에서 태어났다.

수세딕부부는『천재는 유전학적 인자보다도 환경에서 더큰 영향을 받으며 환경만 잘 조성하면 세상의 어느부모도 자식을 영특한 아이로 키울수있다』고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부모들이 신경만 잘쓰면 어린이들은 천재로 자라게 될뿐만아니라 전람하고 행복하게, 또 사회에 잘 적응하는 모범생이 될수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천재아동의 교육법은 무엇인가?

수세딕부부와 두명의 천재아동전문교육가들은 좋은 교육환경과 어학교육, 호기심 자극등 세가지만 잘배합하면 손쉽게 자녀들을 뛰어난 아동으로 키울수있다고 장담한다.

피츠버그 플라트 아카데미원장인 캐롤·테일러박사도 이방법으로 10살, 14살난 자매를 교육시켜 천재아동으로 만들었다. 두자매는 파트타임으로 대학에서 예비의과대학 과목을 수강하고있다.

수세딕부부와 캐롤박사는 어학교수법은 어린이 지능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아동들은 발음교육만 마치고 나면 대학교재는 물론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독파할수 있게 되기때문이다.

지난 25년동안 천재아동만을 상대로 하계특별수학강습을 실시해온 전문교육가 아놀드·로스는 이들 천재아동들은 한결같이 좋은환경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모두 적극적이고 흥미가많고 책임감이 강하고 행동적이라고 그 공통점을 얘기했다.

로스는 부모들이 유아기때부터 호기심을 갖도록철저히 교육시킨 결과, 천재아동들이 이런 특성을 지니게 된것으로 보고있다. 수세딕부부는『자녀들이 태내에 있을때부터 조용한환경속에서생활, 태아가 완전한 책임감을갖고 태어날수 있도록했다. 이책임감없이는 교육을받을수 없기때문이다』라고말한다.

이들은 부모와 교사들이항상 어린이들과 의사를교환해야 하며 바쁠때도 어린이의 얘기를듣지는 않지만 듣는척이라도해야 한다고말했다.

어린이들은 낱말을 분해해서 각각의 발음법을 배우면서 낱말을 분석하는법과 그 뜻을 알게된다.

天才 아동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수학또는물리학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것.

천재아동 전문교육가 로스교수는 자기가 가르친 아동중에서 영문학 또는 법학으로 방향을전환, 좋은결과를맺은 학생이 있다면서, 천재아동은 과학분야에만 한정된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네딸을 모두천재아동으로 교육시킨 조셉·수세딕부부와 그딸들. 왼쪽부터 수지(11), 스테파니(7), 스테이시(9), 조하나양(4)。스테파니가 들고있는 책은 부모가 직접만든 교재이다.

百세할머니 大學에 또入學

長壽비결 藥안먹기

○…증손자까지둔 미국의 1백살된 할머니가 대학에입학했다. 이미 80년전 대학을졸업, 약사자격증까지 얻었던 아이다·마우다·버치 할머니는 오는7월 1백세생일을 앞두고 금년 69세의 딸과함께 인생을 다시산다는 의미에서 빅벤드단기대학에 등록, 또다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세기가 막 시작되던 190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02년 워싱턴대학을 졸업하면서 약사자격증을 획득한이래 지금껏 모든일에 정열적으로 일해왔고 공부해왔다.

『내가 졸업할당시에는 여자를 약사로 취업시켜주지않았으며 기껏해야 소다수 만드는일 정도나 시켰었다. 그래서나는 아예 약사로서의일을 시작하지도 못했었다』고 말하는 그는 졸업후 여성모자점에취직했다가과수원을경영하는 남자와 결혼, 지금3명의 손자와 두명의 증손자를두고있다. 워싱턴주 북쪽 소프호수가에 살고있는 할머니는 이미 지난몇년동안 주에서 운영하는 다른 단기대학 몇군데에서 미술과 디자인등을 공부했었다.

그는 지금도 정원을 청소하고, 바느질도 하며 자수를 놓기도 하는데 스킬은 지난 82살때 배운 솜씨이다. 그는『장수하는 비결은 따로 없으나 다만 독한술과 약은 안먹는다』라고 말한다.

◇바브러·스트라이샌드

스트라이샌드 全財産투입 映畵「옌틀」제작

「興行에참패」 예상

○…미국의 뮤지컬스타 바브러·스트라이샌드가 영화「옌틀」제작을 위해 전재산을투입,「生의 도박」을 하고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여성월간지「레이디즈·홈·저널」5월호에 따르면 이달로 40세가된 바바라는 노벨문학상수상자인 아이작·싱어의 소설을 각색한 뮤지컬「옌틀」(Yentel)에 무려 2천만달러 (韓貨1백40억원)를 투입 제작과 주연을 맡고 있다는 것.

영화「옌틀」은 유대교율법인 토라(Torah)를 연구하고 싶은 한 유대인 소녀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男裝을 했다가 그만 다른 여성과 사랑을 속삭이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줄거리.

美영화계인사들은 이 뮤지컬의 내용이 구태의연하고록 유태인사회를 다룬것이어서 흥행에 참패할 것이라고 바브러에게 제작을 포기하도록 종용했으나 그녀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있다.

독실한 유대교신자인 바브러의 아버지는 37세에죽었는데 역시 독실한 유대교신자인 그녀도 40세전후에 죽을 것이라고 늘 말해 왔었다. 최근 그녀는 존·레논이 피격당했을때 큰충격을느껴서 보디가드를증원하고자택에전자경보장치를강화하기까지했다.『40세의 나이는 또다른 삶을 시작할 때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자했던 짓들을 하려고한다.「옌틀」의 흥행에 실패해도 후회는없다』고 말했다.

美서도 單獨住宅인기…62%가희망

이동주택 84%늘어

○…미국인의주거양상이지난10년동안에크게변화했다. 미국인들도 다른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을 갖는것이 꿈이지만 아파트와 이동식주택의 인구가 단독주택인구보다는 더욱 빨리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80년도국세조사결과 밝혀졌다.

전국주택총수는 80년 현재 단독주택,아파트,모발홈(이동식주택)등을 포함하여 모두8천6백80만동인데 이중 62%가 단독주택으로 여전히 주택의 주종을이루었다.

그러나 증가율을보면 모빌홈이 2백10만동에서 3백80만동으로 84%가 증가, 제일 빠른 신장을 보였다.

또한 지난10년사이에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핵가족추세가 더욱 심화되고있다는 것. 인구는 겨우11%만이 증가했으나 가구수는24%가 증가, 평균가구원수 3·11명에서 2·75명으로줄어들었다.

자가주택비율이 제일높은 주는 웨스트버지니아주로 무려 74%이고 뉴욕주는 49%로 전국에서 제일저조했다.

뉴욕의 도시권지역은 이보다 더욱 낮은 31%였다.

주택비는 소득을 훨씬 앞질러올라 주택임대료는 10년사이에 월평균 1백8달러에서 2백43달러로 배이상 뛰었으며 자가주택자의 월간주택상환금도 평균 1백72달러에서 3백65달러로 1백12%가 상승했다.

世界아마복싱

金東吉 銀에 머물러

쿠바 가르시아에 完敗

【뮌헨=聯】한국의 金東吉은 16일상오4시(한국시간) 올림피홀에서 벌어진 제3회 세계아마 복싱 선수권대회 최종일 라이트·웰터급 결승전서 쿠바의 강호 가르시아·카를로스에게 판정패,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국은 이번대회에서 은1·동1개를 획득, 폴란드와 함께 공동6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은메달 1개에 그쳐 한국에이어서 공동 7위를 마크했다. 이번대회 메달획득 내용을보면 쿠바가 금5·은1·동1로 1위,美國이 금3·은2·동2, 蘇聯금3·은2·동1이다. 쿠바는 이번대회 우승으로 3連覇를달성했다.

◇미니·스커트바람 다시 올지

미니·스커트의 창시자로 60年代에 선풍적인 미니바람을 일으켰던 英國의 여류디자이너 매리·퀀트가 최근 런던에서 열린 의상쇼에 내놓은 미니·스커트。제2의 미니·스커트 바람을 일으키기위해 제작된 이 옷은 키가 크고 앳된 모습의 여성을 모델로해 소박하면서도 날렵한 맵시를 강조하고있다。【영국대사관제공】

女배구 完敗쇼크

NHK盃 쿠바이어 日에도 3-0

【東京支社】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16일 오오사까 부립체육관에서 벌어진 NHK컵국제배구대회 최종전에서 日本여자대표팀에 3-0으로 패했다.

한국여자대표팀은 日本주니어팀에만 이겼을뿐 쿠바·日本대표팀에 완패,11월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큰 충격을 입었다. 한국은 64년 東京올림픽때 日本에 스트레이트로 패배한 이래 지금까지 21전2승19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첫세트서 졸전을벌였으나 제2세트경기는 아까웠다. 제2세트초반 한때 7-0까지 뒤지다가 공수호조로 10-7 역전리드를 잡았으며 3차례 듀스끝에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막판 시소에서 日本주심의 판정이 모호했다.

이날 최종3차전서도 제1차전때 나타났던 단점이 그대로 지적됐다. 서브및 서브리시브가 좋지않았고 이가맞지않는 수비형태를 보였다. 한국공격수들은 대부분 꼬리가긴 스파이크를 구사, 日本수비진이 쉽게 걷어올렸다. 또한 스파이크 타이밍이 항상 한템포씩 처졌다.

주장인 金英淑은 나름대로 열심히 플레이했지만 감정의 변화가 너무 정직하게 얼굴에나타나 동료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못했다.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것은 국제경기 경험이다. 대한배구협회는 우선 이문제에 가장큰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최종전적

日本 3 (15-10, 18-16, 15-6) 0 한국

◇3일전적

日本 3 (15-7, 15-13, 15-11) 0 쿠바

單複式등 모두석권

퀸스컵 국제女子J테니스

한국은 16일 마닐라잘코트서 막을내린 제5회 로드티·퀸스컵 국제 여자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서 단식·복식·단체전등 전종목서 우승했다.

이번대회에 처음참가한 한국은 단체전서 自由中國을 3-0으로 누르고 우승을차지했다.

또 단식결승서는 한국선수끼리 대결,李辰珠가曺敏淑을 2-1(6-3 3-6 7-6)로 물리쳤으며, 복식서도 崔賢美·曺敏淑조가 李辰珠·禹淑姬조에 기권승, 각각 우승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海外스포츠

인디아내 大會서

자동차競走 62번째 絶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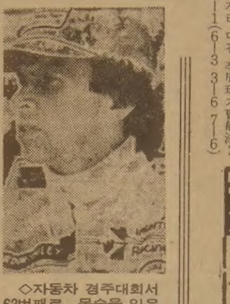
美 스마일리, 時速2百96km로 달리다

◆…자동차 경주대회서 잇달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큰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8일 벨기에 그랑프리대회서 캐나다의 질러너브선수가 충돌사고로 사망한데 이어서 16일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회인「인디아내 폴리스 500」예선전서 고든·스마일리(33·미국) 선수가 숨을 거두었다.

스마일리의 차는 시속 185마일(약2백96km)의 속도로 달리다가 코스를 이탈, 콘크리트벽에 부딪치면서 세동강이 났으며 화염에 휩싸였고 스마일리는 현장에서절명했다.

인디아내폴리스 대회서 목숨을잃는 사고가 발생한것은 지난73년에 3명의 인명손실을 기록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09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자동차사고로 생명을잃은 선수는 62명에이르고있어 선수들의안전에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자동차 경주대회서 62번째로 목숨을 잃은 스마일리선수。

레너드視力 낙관적

◆…망막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던 프로복싱 세계웰터급통합챔피언인美國의 슈거·레이·레너드가 16일퇴원했다。의사들은 그가 완전히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할수있을 것으로 낙관하고있다고 전했다.【볼티모(美메릴랜드州)=聯】

4회아마복싱 伊서

◆…세계아마복싱 연맹은 제4회 세계아마복싱선수권대회가 83년10월로마서 열린다고발표했다。【뮌헨=聯】

파리마라톤 英우승 2시간15분45초로

◆…16일 파리에서 열린 제7회 파리마라톤대회에서 英國의 이언·톰슨(32)이 2시간15분45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톰슨은 대회가 끝난뒤더위때문에 최선을 다할수없었다고 말하고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도 참가할것이라고 밝혔다。【파리=聯】

蘇, 北京陸上참가

◆…오는 6월18일 北京에서 열리는 82년도 北京초청육상선수권대회에 蘇聯이 참가한다고 中共육상협회대변인이 밝혔다。이대변인은 이대회에는 蘇聯 체코 東獨 핀란드 印度 日本 泰國등 7개국이 참가한다고 말했다。【北京=聯】

프로野球 홈런83개

주말 6게임서 12個보태

先頭OB, 三美대파

주말 프로야구장에 홈런소나기가 쏟아졌다.

15·16일 이틀간 6게임에서 터진 홈런은 모두12개。프로야구 23일간 61게임에서 총 83개의 홈런이 기록되었다. 홈런더비 1위는 OB베어스의 주장4번 金宇烈。33세의 노장인 金은 실업야구에서 69년(7개) 78년(11개) 홈런王座를 차지한후 다소 침체했으나 프로시즌개막후 홈런으로만 13타점을 올렸다. 白仁天(MBC)은 6개, 金準桓(해태)과 李萬洙(삼성)는 5개로 홈런더비 2·3위를 달리고있다。

三星라이언즈는 16일 光州에서가진 해태타이거즈와의 5차전에서 8회초 李萬洙의 2점, 咸學洙의 솔로, 裵大雄의 2점호머등 홈런3발로 해태의 金城漢, 金勇男을 통타, 7-4로이겨 전날의 역전패를 설욕했다。

MBC靑龍도 釜山서 롯데자이언츠와 맞서 3회초 李光殷의 솔로, 金容允의 3점, 白仁天의 솔로등 홈런 3방으로 전세를뒤엎고 7-5로 이겼다。

OB베어스는 서울에서 三美슈퍼스타즈의 琴光玉에게 3회초 역전 2점홈런을 맞았으나 8회말 四死球 6개, 2안타, 폭투 2개로 7득점, 13-4로 낙승했다。

◇16일전적

◆서울

三美	012	100	000	4
OB	200	001	37×	13

▲홈런=琴光玉(3회·2점·삼미)

◆부산

MBC	004	000	003	7
롯데	300	001	010	5

▲홈런=李光殷(3회) 金容允(3회·2점) 白仁天(3회·이상 MBC)

◇홈런더비 1위金宇烈

◇전기중간순위(17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OB	14	6	·700
②삼성	14	8	·636
③MBC	11	10	·524
④해태	9	10	·474
⑤롯데	8	11	·421
⑥삼미	5	15	·238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流星의 賦 <385>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勇名이 天下에 떨치다 ③

대천에서의 패배는 입화를 분노케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홍계남에 대한 보복을 해야겠다고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는 그 전투에서 한쪽 팔과 등에 부상하여 당분간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던 차 축산부(竹山府)에 주둔하고 있던 복도정치(福島正則)의 부장(部將) 영산무태(影山茂太)가 병문안을 왔다. 영산은

『전사(戰士)가 전지에서 부상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부장이 그런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오. 도대체 어떻게 된거요』

하고 물었다.

『당신 홍계남이란 이름 들은적이있지?·그자에게 당한거라. 그자는 참으로 신출귀몰한 자야. 용인까지 나갔다가 수원성이 위태롭다는 소식을듣고 방중에돌아오는데 높은 산기에 매복하고있었던거야. 하필 우리가 건너가기쉬운곳이라고해서 표를해놓은지점에서 말야. 정말 귀신같은 놈이야. 어떻게 그지점을 알았느냐말이야』

하고 입화가 이를갈았다.

『당신 그것도 몰라? 강을 건너려면 물이 얕은 곳이라야 되지않겠는가. 홍계남은 그것을 짚은것뿐이오』

영산의 말이었다.

『단순한 추측이 아냐. 물이 얕은 곳이 그곳만이 아닐거고, 용인 수원간을 하필이면 그 지점을 골라야만 할 것도 아냐. 내 딴으론 되려 도는 길이 되는데를 택했고, 그때문에 안심하고 행군한 것이기도 한데』

『입화공의 보복은 내가 해주지』

『그런 동정은 받고싶지 않군』

『아냐。홍계남이라고 하면 모두들 벌벌 떠는데 아군의 사기를위해서도 빨리 보복전이 있어야겠어。그것을 내가 맡겠다는 것이지 입화공에 대한 동정심때문에 하는 말이 아뇨』

『그렇다면 영산공에겐 홍계남을 칠만한 자신이 있단 말요?』

『있구말구요』

『그 얘기 한번 들읍시다』

『입화공도 알고 있는 일이겠소만 홍계남은 안성 사람이오。그런데 안성은 계남의 아버지가 의병들을 모아 지키고 있소。나는 먼저 안성을 공격할 참이오。안성을 공격해서 계남의 아버지를 사로잡아 놓으면 계남이 가만 있지 못할 것 아뇨。계남이 그의 본 거지에서 나와 안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을막아 기습을 가하든지、안성에까지 들어오게 해서 치든지、그 때의 상황을 봐서 하면 될 것 아니오』

『그 계획은 그럴듯 한군요。가능하다면 계남의 부친을 사로잡아 인질로 이용하면 좋은 수가있을듯 하오만』

『계남의 부친을 사로잡을 수가 있겠소?』

『계남의 부친은 만만찮은 사람이라고 들었소만 이미 나이가 50여세이고 그가 거느린 군사들은 대개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서 정병(精兵)을 동원해서 일거에 치면 용이할 줄 아오。물론 이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기라도 해서 계남이 미리 출동해서 그 아버지와 합류라도 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소』

하고 입화는 침을 삼켰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3>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明暗 ㊼

수지로부터 멀리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되돌아봤다. 수지는 따라오지않았다. 인재 혼자였다. 그는 잠시 우두커니 서있었다.

졸업식날 노모를 떠나보내고 서울역광장에 우두커니 서있던 생각이 났다. 그때의 참담한 마음엔 그래도 수지한테 위로받을수있다는 가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없었다.

「조강지처상을 지집은 그저 사람 됨됨이 먼첨봐야제」하면서 수지를 못마땅해하던 노모 생각이 났다. 노모의주름에 뒤덮인 흐릿한 눈빛이 수지에게서 본건 뭐였을까? 오늘날의자기꼴까지 그때 노모의 눈엔 함께 비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하며 인재는 정처없이 밤거리를방황했다.

그후 수지로부터는 감감 무소식이었고 인재 역시 수지네 집 불빛에 홀려 밤마다 그 근처를 서성이는 점잖지 못한 짓을 하며 없어지고 말았다.

차라리 안만나니만 못했다는 생각이나 문득문득 하는 게 고작이었다. 여자한테 함부로 농락당했다는 생각은 배신감보다 더 불쾌했다. 그 그렇더라도 수지한테 농락당한 분풀이를 하필 왜 오목이한테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가 없었다. 인재는 자신이 다른사람보다 도덕적이라던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더라도 그렇게까지 치사한 인간인줄은 미처 몰랐었다.

그 일은 전혀 계획한 바없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일이었다. 그렇다고해서 책임을 안져도 되는 걸까. 오목이가 너무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도 인재의 가책을 덜어주기보다는 더해주고있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책임지려는 마음없이 송전히 농락을 목적으로, 아니 나도 여자 하나쯤 농락 못할줄 알고 하는 유치한 자기과시욕과 순간적인 충동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수가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자시이 싫어졌고 앞으로 감당해야할 일이 난감했다.

그 일은 수지하고 그렇게 되고나서 며칠안있어서였다. 거의 하숙집 다 와서 오목이를 만난 게 잘못의 시작이었다. 퇴근후 울적해서 소주를 한잔 걸치고 오는 길이라 제법 늦은 시간이었다. 바로 하숙집 못미처 골목에서 만난 오목이는 모직 주름치마에 헐렁한 스웨터를걸치고,뒤축을 찌그린 구두를 질질 끌고,과일 봉투와 담배를 한갑 들고 있었다. 한눈에 가벼운 심부름을 나왔다는 걸 알수있었다.

『한동네살은 알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사는 줄은 몰랐네. 집이 어디야』

집이 가깝다는 것과 오목이가 유난히 어려보인다는걸로 인재는 여지껏의 스스럼을 툭 털어버리고 단박 친숙하게 굴었다.

『조오기요』

오목이가 되려 경계하는것처럼 서먹서먹하게 턱으로가게들이 있는 큰길을 사이로하고 인재의 하숙집과는 반대쪽이 되는골목을 가리켰다.

『그래? 잘 됐네. 이렇게 만난 김에 어른들께 인사 좀 시켜줄래?』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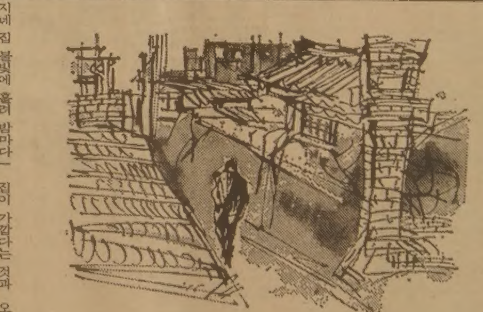
오목이가 의외로 강경하게 부르짖었다.

『안돼? 그래 안될 거야. 난 말야, 어른들이 싫어하는 별난 미운 털이 박힌놈이거던』

인재가 느닷없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술김이 오목이 얼굴에 구정물처럼 튀었다.

『아네요. 그런 게 아니라요』

오목이가 어쩔줄을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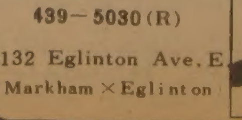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햇슨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파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어음割引利子만 7백억 넘어

張여인事件 搜査급진전 새사실 계속 밝혀져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전共榮토건 邊康雨씨㊨와 전日新제강회장 朱昌均씨㊧。

美서事業추진 상당액 빼돌린듯
달아난 私債업자3명 指名手配

張여인사건중 「어음사기」와 「기업인과의공모」, 「부정대출 부분」이 일요일을고비로 윤곽이 대개 드러난데 이어 검찰수사는 「재산도피와 은닉」, 「배후」로 초점이 모아지고있어 「사건전모」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검찰수사가 수사 22일째를 맞아 활개를 떼기 시작한 것은 李·張부부와 朝興、商業은행 은행장、共榮토건과 日新제강의 전회장등을 구속、이들을 대질신문시키면서 혐의점을 확인할수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張여인이 기업발행의 견질어음을 할인할때 동원한 자금1천4백76억원의구체적 소비처를 계속 조사한 결과 사채업자에게 어음할인이자로 지급된 액수가 중간수사결과 발표때의 5백99억원보다 훨씬많은 7백억원이상임이 밝혀져 이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도 병행중이다。

通帳보이자 1억5천만원 收賄시인 林在琇씨
1천만원씩 5차례 朱會長 직접건네 孔德鍾씨

검찰에의하면 林在琇 전조흥은행장이 뇌물을받은 사실을확인한것은 그의 예금통장이 단서가됐고 孔德鍾 전상업은행장은 朱昌均 日新제강회장의 자백으로 밝혀졌다는것。

검찰은 林행장의 저금통장을 압수、입금내력을 조사하다 자백을받아 이를부인하는 張玲子여인에게 확인 할수있었는데 처음에는 완강히부인하던 張여인이 지난해11월말 1억5천만원을 주었다고 자백하기에 이르렀다는것이다。

孔행장은 처음 뇌물을준 朱昌均日新제강회장이 입을열지않아 5백만원을받은 혐의로만 구속됐으나 심경의변화를 일으킨 朱회장이 5번에걸쳐 5천만원을준사실을 새로 진술함으로써 뇌물액수가 늘어났다。

朱회장은 지난79년12월 행장실에서 1천만원、80년2월중순 孔행장의집에서 1천만원、81년7월과 지난1월4일등 각각 한번에1천만원씩 5차례에 걸쳐 주었다는 것이다。

朱회장은 평소 친분이있던 孔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회사재무구조가 C급이라고 거절당하자 손수 뇌물을 준것이며 돈을 줄때는 단둘이만나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인출、서너군데의 은행을 거친후 현금으로만 주어 추적이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浴室 전화기수리상에서 나온 張여인의 20억원짜리 약속어음 소유자 文俊植씨(47)가 張여인이 지난2월 미국에서 40만달러를 환치기한 文완산씨의 아버지란 사실을 밝혀내고 文씨를통한 재산은닉여부도 캐고있다。

검찰은 또 張씨 부부가 측근인물을 시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물색했다는 정보에 따라 大和산업의 비서 1명과 경비원 5명등 6명도 불러 은닉된 재산을 찾고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들부부가 미국 알래스카등지에서 4~5개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정보도입수、이미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농장구입외에 알래스카석탄산업、에너지사업、합작은행설립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금으로 상당부분을 해외에 빼돌렸을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張여인이 할인때 사채업자들에게준 할인료가 이미 구속된 사채업자 田永栄씨등 3명에게 4백억원가량 지급된것으로 나머지 3백억원의 대부분이 수배중인 사채업자 장송호씨(58·서울道峰區雙門洞)、김영철씨(36·서울江南區鶴洞山5의1)、황병로씨등 3명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중간수사결과 가운데 張씨의 진술에 근거한것이었기때문에 사용처불명의 77억원이란액수는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의 수사에서 자세한 소비처가 밝혀질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소비처는 어음할인이자 7백억원 외에 사채업자 田씨가 張씨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던 共榮토건발행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과 張씨가 친정아버지 張秉俊씨(67)에게 준 1억9천만원、오빠 張相律씨에게준 5천만원등이며 張씨가벌인 불사에도 수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張씨가 친정식구들에게 지금까지 밝혀진 액수 이상을 도피시켰을것으로 보고 이들에대한 수사도 계속하고있다。

千6백억申告
張여인 관련어음

張여인사건관련어음 4천3백51매1천6백40억원이 신고됐다。지난14、15양일간 주거래은행의 전국점포망을통해 신고된 張玲子사건관련어음은 전체발행매수 6천2백매의70%、전체발행금액 2천4백1억원의68·3%가 신고되었으며 신고인수는 모두 3천4백4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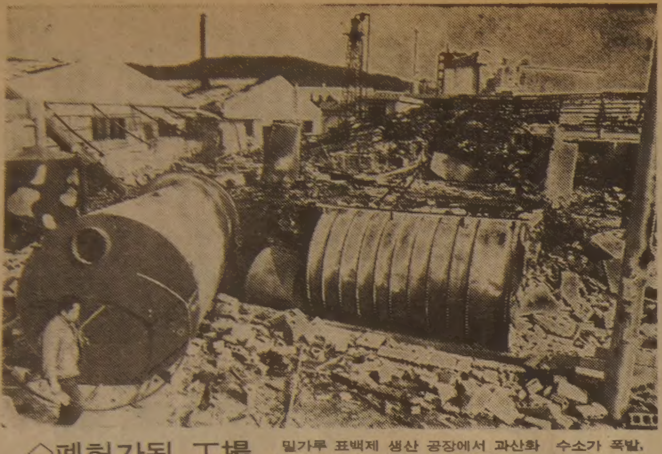
관련회사별로는 共榮土建이 신고인수 2천5백72명、신고매수 2천9백93매(신고율74·4%)、신고금액 1천1백29억원(신고율76·9%)이었으며 日新製鋼은 신고인수 1백37명、신고매수 4백35매(63·6%)、신고금액 2백51억원(49·4%)이었고 라이프주택은 신고인 6백32명、신고매수 8백83매、신고금액 2백59억원(61%)이었다。

"佛敎 모독하고 있다"
曹溪宗 대책회의、言論 사과요구

대한불교조계종은 17일 하오2시 불교회관1층 강당에서 張여인사건 관련、전언론이 불교를 모독하는 기사를 게재하고있다고 주장、긴급대책회의를열고 「10인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각언론기관에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로했다。

조계종산하 2백여 사찰주지가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언론이 張여인의 보시행위와 범죄사실을 연관시켜 불교계를 모독했고 불교와관련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전불교계를 마치썩은양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3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黃彰經스님을 대책위원장으로선임했다。



◇폐허가된 工場　밀가루 표백제 생산 공장에서 과산화 수소가 폭발, 3백평 규모의 작업장이 완전히 폐허가됐다。이사고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張啓文기자찍음】

工場가스爆發 넷死亡
富川
과산화수소 過熱 行人등27명 重輕傷·2명실종
3백평건물 박살 인근住宅 지붕내려앉아

17일하오1시35분께 경기富川市春衣洞157의3 밀가루 표백제 제조업체인 오성종합상사(대표 安秉宅·39) 작업장에서 과산화수소가 폭발、작업중이던 공원 강성례씨(45·富川市春衣洞161)등 4명이 숨지고 강도준씨(34)등 2명이 실종됐으며 행인을 포함한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날상오 수리한모터 자동조절장치 마그네트스위치에서 스파이크가 발생、15m떨어진 건조기안에있는 과산화수소에 인화되면서 혼합기안에 있는 과산화수소2와 지하에있는 과산화수소 소통을 폭발시켜 일어났다。

사고당시 이공장에는 종업원 18명가운데 11명이 작업중이었다。

이날 사고로 3백평짜리 시멘트건물이 완전히 박살났고 철근등은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으며 3톤짜리 물탱크2개가 2~3m가량 날아갔다。

또 작업장바닥은 가로8m 세로6m규모의 구멍이 두군데나 뚫려 2m아래의 지하원료창고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또 반경50m이내의 공장·주택가의 유리창이 산산조각났으며 지붕이 내려앉고 담이 무너져 내렸다。

이 회사경비원 신용한씨(47)에 의하면 5m떨어진 경비실겸 사무실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꽝」소리가 2、3번 났고동시에 정신을 잃었다가 10여분후에 깨어나보니 건물등이 주저 앉았고 종업원들의 다리등이 길밖까지 퉁겨 나와있었다는것。

이사고로 이공장종업원 11명중 6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으며 이공장 생산부과장 이재수씨(26)와 이공장 이웃 한국금속종업원11명、행인등 모두27명이 중경상을입어 富川市 새서울병원등 6개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사고가나자 경찰은 전경대원등 4백여명을 동원、통행을 금지시킨채 시체발굴작업에 나서는한편 이회사사장 安씨등을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列車·트럭충돌 2件에 넷死傷

【全州】휴일인 16일 하룻동안 全北道내에서 열차와 트럭이 충돌한 사고가 2건이나 발생、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6일 새벽1시38분께 全北金堤郡金堤邑尊洞里 尊洞건널목에서 木浦기관차사무소소속 木浦발 龍山행 434호 완행열차(기관사 정형주·44)와 전북7가3097호 4·5톤트럭(운전사 安경호·42)이 충돌、운전석에 타고있던 하주 조석문씨(30·金堤郡竹山里658)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사 安씨와 인부 유선영씨(40·竹山面竹山里)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6일상오6시17분께 全北南原市王亭洞 王亭철도건널목에서 順天발 裡里행 順天기관차사무소소속 제484호 보통열차(기관사 金상재·37)와 전북7가3418호 자가용 화물트럭(운전사 安형엽·28)이 충돌、트럭이 크게 부서지고 트럭운전사 安씨는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聯合】

오늘 全南道民단합대회
5·18두돌맞아 새光州추진協議會결성

【光州】全南도내 12개 민간단체 대표들은 일요일인 16일저녁 새光州건설추진 도민협의회를 결성、새역사 창조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하오7시30분 光州상의회장실에서 첫모임을 가진 도민협의회는 회장에 申泰浩光州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한후 18일상오 光州無等경기장에서 새光州건설을위한 도민단합대회를 갖기로 한편 이를 계기로 5·18의 악몽을 새光州도약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로 다짐했다。

申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는 더이상 어둠과 좌절로 얼룩진 과거에만 집착할수없다』고 전제하고 『보다 밝은내일、희망찬 미래를 향해 서로 믿고 화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새시대의 새光州건설을위해 민족화합의 핵이되고 새역사창조의 견인차 구실을 다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光州=聯合】

미니해설

광주사태 두돌을 맞아 전남도 전역에서는 2년전의 아픈상처와 슬픈기억을 승화시켜 새광주건설을 위한 힘찬 재기의 움직임이 일고있다。

전남도내 12개 민간단체 대표들은 16일하오 새광주건설추진 도민협의회를 결성한데이어 18일상오에는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새광주 건설을위한 도민단합대회를 성대하게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민들의 이같은 자발적 새광주건설운동은 과거광주가 항상 저항과 낙후의대명사가 되어왔고 특히 2년전의 불행한 비극을 새로운 창조와 건설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하는 전도민들의 결연한 뜻이 표출된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1인 장기집권하의 구시대적 모순과 부조리와는 달리 제5공화국의 새시대정신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것으로 볼수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61

우리는일하고싶다
日新종업원대회

日新제강 梧柳洞공장 종업원8백여명은 17일 상오9시부터 한시간동안 서울九老區梧柳洞123 공장에서 李哲熙·張玲子씨부부 사채파동과 관련 자신들의입장을 밝히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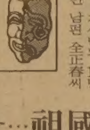
종업원들은 이날 『우리는 일하고싶다』는 검은띠를 머리에두르고 사가(社歌)등을 부르며 공장내 운동장을 행진하기도했다。

종업원들은 또 관계당국에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조속한 시일내에 회사를 정상화시켜줄것▲상업은행채권이외의 입금채권의 확보도 보장해줄것▲경영주가 바뀌더라도 종업원의 해고등은 없도록 해줄것등을 요구했다。

오늘 停戰委개최
무장간첩시체 引渡

군사정전위 제4백65차 본회의가 18일하오5시 판문점에서열린다고 17일 유엔군사령부가 발표했다。이회의에서 유엔측은 북괴군시체1구를 공산측에 인도할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샤프롱」 재일동포 李鍾植여사
入賞못했지만 담담…祖國의 實體느껴



15일의 82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 참가한 재일동포眞 全秀子양(22·회사원)의 샤프롱은 어머니 李鐘植씨(45·사진·日本東京都新宿區中落合1-11-18)。샤프롱같아 보이질않는다。다른 여자들이 무대의미녀들보다 더 흥분돼 안달을 할때도 담담하게 대기실과 무대뒤의 온갖 정경과 嬌態를 「구경」하고있었다。

경비가 삼엄(?)한 무대출입문을 나가 世宗문화회관의 이것저것 보고다니기도 했다。딸을 보살핀것은 수영복심사가 끝나고 퇴장했을때 머리를 매만져준 정도다。

결국 秀子양은 1차선발된 15명속에 끼지 못했지만 남편 全正春씨(51·상업·일본명 伊藤正春)가 소매를 떨치며 『가자』고 화를 냈을때도 잔잔한 미소로 응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딸의입상에 관심이 없던것은 물론 아니다。먼친척 李信淑씨(36·東京 山野愛子미용학원2년)에게 맡기고 태연해보이려애썼을 뿐이다。솔직히 『가슴이 떨린다』면서 『빨리끝나 돌아가서 자고싶다』고 말할때는 진정이었다。

그사이 李信淑씨는 15명에 못끼자 대기실에가 주저앉아 버렸고…。

어머니 李씨는 미녀대회가 그렇게 호화스럽고 화려할줄 몰랐다。다른 48명의 날씬한 몸매가 모두딸보다 나아보이고 딸은 더구나 한국말을못해 안스러웠다。

한국인2세인 李씨도 한국말은못한다。

지난해 東京YMCA에 다니면서 배웠지만 우리의 5살짜리 어린이만도 못하다。77년 남편의 고향인 부산에 성묘하러온뒤 이번이 두번째 방한이다。

24년전 맞선(見合)결혼、2남1녀의 어머니인 李씨는 학교때 농구를 좋아했다。

막내 達哉군(16·駒澤高2년)을 낳고부터 살이쪄 「뚱보」가 됐지만 처녀시절엔 스스로 생각해도 괜찮은 편이었다。처녀때는 다까기(高木嘉子)。지금은 남편姓을따라 이또·요시꼬(伊藤嘉子)로 통한다。

實踐女子學園高와 文化學院가정과를 나온 李씨는 어미를 닮아 운동·무용을 잘하는 딸이 영화배우를 하고싶어해서 그러라고 했다。막내는 한국의 대학에 보낼 생각이다。

李씨는 시무룩해하는 남편을 달래 당초 예정대로 남편친구들에게 저녁을 대접했고 17일 「담담하게」돌아갔다。입상못해 아쉽기도하지만 당당한 한국인의 한사람으로 가족이 서울에 와 겪어보았다는 것은 더할나위없이 값진 「경험」이었다。【任祜淳기자】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뱅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Store Helper 구함.
Full Time 주 40시간
남자로서 유경험자에 한함.
오후 3시-9시까지 (주6일)
전화: 368-8147 김.

캐셔 또는 매니져 구함(남·녀관계 없음)
57 Willows Lane Pickering, Mr.Kim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숙소 제공해 줄수 있음)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Full Time 캐쉬어 구함.
(웨스톤 × 휜치) 전화: 741-146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바디·Shop에서 일하실분 구함
(훌타임·파트타임 가능)
전화 : 751-9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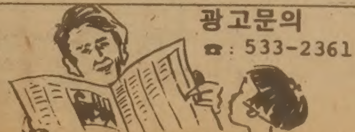
Part Time으로 가게에서 막일 하실분 구함.
전화: 622-8516

Variety & Grocery Store
매니져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368-8138 (오후6시 이후에 연락 바람)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꽃집에서 일하실 남자 Helper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5-9419

Full Time 스토아 헬퍼구함.
리치몬드·힐 지역(Yonge×Hwy 7)
전화: 884-5433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착실한 26세부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히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이훈모부동산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주매상: $6,500. Rent: $1,200
주5일 영업, 아스킹: $24만
다운페이: $10만, 리스3년 + 5년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Rent: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점포와 Apartment
Bloor 한인상가에 있음.
아스킹: $149,000. 다운페이: $6만.

전화: 225-1204

Hunt's Bakery 급매
Jane-Finch Shopping Mall안에
3개월된 새 Store 임.
건강관계로 급매 코져함. 전망좋은 Mall임.
가격: $148,500 다운페이: $45,000
잔액은 Business Loan 가능함.
3주간 Hunt's 본사 School 에서 Training 받음.
전화: 635-0187 Mr. Kim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히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Variety & Hardware Store 급매
주매상: $9,000 아스킹: $100,000 + 스탁
리스 4년 + 옵션 5년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cent Shopping Mall 옆)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Variey Store 매매
(꼭 관심 있으신분은 내방 바람)
영업시간 :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일요일은 쉼)
조그마한 규모로서 혼자서 경영가능
1946 제랄드×우드바인코너
(J & M Discount Store)

과일·꽃가게 급매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8시(주6일영업,일요일은 쉼)
주매상: $6,000 개런티 리스: 4년 + 5년
Rent: $1,043/mon. 넓이: 2,385 Sq.ft.
아스킹: $40,000 + 스탁
437 Carlaw Ave.(Riverdale Plaza) At Gerrard.

토론토에서 가까운 지역의 Motels.
▲19 Unites: $ 93,000 Gross, ▲29 Unites: $101,000 Gross
▲15 Unites: $ 66,000 Gross, ▲16 Unites: $ 72,000 Gross
▲16 Unites+ $110,000 Gross, ▲30 Unites: $200,000 Gross
Call: Andrew 665-6778, 537-4156
Yanka Realty Inc.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로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타사업 관계로 (Variety) 급매. Ticket은 별도수입
주매상 : $4,500. 좋은 살림집 꼭 관심 있으신분 전화요망.
전화: 636-44 38

New Market에 있는 Smoke & Gift Shop급매
시간짧고 주6일 영업 (Lottary머신 있음)
1-895-9581 (저녁9시 이전)

Stock Sale, Giftware, Retail Value,
$10,000이상. Asking : $2,500(Cash)
전화 : 823-6390 Mr. Kim

코너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9,000(No Agents)
73 Coxwell Ave. (4시 이후 방문 바람)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Becker Milk Store Franchise
3731 Lawrence Ave. E.
꼭히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전화: 431-3921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 이후)

세탁소 장비 일절 급매
아스킹 : $65,000. 자세한 문의는 오전8시~오후7시 사이에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255-5751 (Willian)

하우스 렌트

클립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구독신청월~토
☎: 533-236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소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Saoln Young(블루어×로얄욕)
▲남·녀 컷 & 파마전문
▲3074 Bloor St. W. 전화 : 231-4285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광고문의 ☎ : 533-2361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236-1011 R)763-1155 손 명 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 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광고문의 533-2361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수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삼복식품 대폭세일

★ 3 개사면 1 개 free

냉면, 소면, 당면, 동태전감, 삼치, 이면수, 마른미역 엿기름, 메주가루 , 보리차, D. Y. 새우젓

★경기미 쌀 1 자루(20 kg) $14.95

★일제라면(30개) ------ 1 Box ---------------- $7.50

햇 김(특산품 100장) -------------------- $13.95

이외 냄비, 다라이, 찜통, 찬합, 등 다량입하.

★한국서 직수입한 비데오테이프를 $100 이상 사시는 손님에게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신간 5 월호 잡지 : 주부생활, 신동아, 주간학생, 주간여성 판매.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교민의 벗 · 길잡이

생동하는 뉴스 · 계몽기사

한인사회 대동맥,

앞서가는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CANADA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743—8270